

시민주도 지역혁신자원의 사회적가치 실현 효과분석

: 리빙랩(생활실험)수단의 효과분석에
근거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시민주도 지역혁신자원의 사회적가치 실현 효과분석

: 리빙랩(생활실험)수단의 효과분석에
근거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연구진

최지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전대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리빙랩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선, 기존 성과분석을 통한 한계점도출, 수범사례 기준의 설정을 통해 이러한 수범사례 확산의 제도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일련의 정책점검과정이 필요함
- 특히 리빙랩이 초기실험 단계를 벗어나 주민주도 정책문제 해결의 주요한 수단으로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다음의 ▲작동환경에 대한 이해, ▲사업성과분석에 근거한 제도지원 마련이 필요함

2. 연구내용

Ⅰ 작동환경에 대한 이해

-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격차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필연적으로 지역 내 시민사회, 주민, 지자체의 역량의 격차를 야기함
 - 작동환경에 대한 이해는 향후 지역중심의 방향적 바람직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임
 - 환경과 주민의 역량 등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민의 역량과 적극적 참여가 핵심이 되는 리빙랩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은 저마다 다름
 - 리빙랩 사업의 추진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리빙랩 설계와 지원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역의 특성을 유형화하는 작업은 필수적임
- 리빙랩이 작동하는 환경과 실제 구현된 양상이 부합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작동환경에 대한 유형적 접근을 시도함
- 리빙랩이 정착하기 효과적인 지역에 리빙랩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

으로써 환경과 실제 정책개입의 미스매치(mis-match)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 지역 내 리빙랩 수행이 가능한 혁신역량에 대한 파악, 역량의 지역적 격차를 고려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로 인해 사회혁신의 참여자의 풀(pool)이 제한적인 농촌지역, 참여가능한 사람들은 많으나 잦은 인구이동으로 지역에 대한 문제인식이 희박한 도시지역 등과 같이 지역별로 사회혁신자원의 편차가 큼
- 지역 내 민간혁신 역량을 수용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까지 연결 짓기 위해선 지자체의 혁신역량에 근거한 관리전략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

2 리빙랩 사업성과 분석과 이에 근거한 정책지원 방안 마련

- 행정에서 구현된 리빙랩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재 리빙랩 사업의 전개양상(성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한 정책지원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리빙랩은 성과분석은 다음의 쟁점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
 - **(설정범위)** 지역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주민주도의 문제해결시도 전부를 리빙랩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로, 과학기술연구진이나 대학이 주도하는 지역 리빙랩과 기존의 행정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와의 구별이 필요함
 - **(수행방식)** 현존하는 리빙랩은 정부의 공모사업과 지자체의 자체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업들이 다수이며 수행 초기에 해당하는데 실제 지속가능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운영체계)**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이 있는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지속적인 시도가 가능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공공주도의 하향적 공모사업¹⁾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가 존재하는

1) 지난 5-6년 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이 주축이 되어 정부, 지자체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성과지표정의) 사용자 주도로 이해관계자들과의 문제해결 과정 전반(기획-운영과정-산출)을 모두 성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성과관리 지표의 선정, 관리체계의 마련이 어려움

- 좁게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관계에서부터, 넓게는 리빙랩을 통해 해결된 지역문제, 삶의 질 개선이 성과가 될 수 있는 성과정의의 포괄성으로 인해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 구축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에도 실제 리빙랩이 지역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현양상 분석 등의 정책과정평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현재 사업관리의 주요 쟁점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함
- 이는 리빙랩이라는 정책수단이 주민이 정의하며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주민 주도형 문제해결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수단은 더 이상 행정이 단독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에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본 연구는 리빙랩이 장기적으로 작동 가능한 정책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리빙랩 사업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구현양상을 살펴보고자 함
 - 구현양상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한 분석(정량분석)과 수범사례(best-practice)의 구성요소 도출(정성분석)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음

3.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리빙랩 유형별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함

체, 민간기업, 시민섹터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리빙랩이 시도됨

〈표-1〉 리빙랩 유형에 근거한 맞춤형 정책지원

리빙랩유형		성격	리빙랩성과	관리성격	정책지원방안	성과관리의 주안점: 행정관점
단독	관찰	문제발굴	의제	개별영역의 목적 달성	발굴의제의 정책화 조려 마련	발굴된 문제의 성격과 발굴주체의보편성, 지속가능한문제발굴 통로 확보
	실험	실험	실험결과			실험과정의혁신성, 실패에도 계속되는 시도 실험결과의 확산
	협력	공간, 거버넌스	인프라			조성된 공간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채우며 연대의 틀을 만드는 것 공간운영주체의 자율성 보장
	공유	정책, 확산, 홍보	정책, 사업			결과의 활용과 제도화 유관정보아카이브의 구축과 정보축적
복합	관찰+실험	발굴된 문제의 실험적 적용	의제별성과	의제의 발굴 및 연계작업	마을3법의 연계통한중간 지원조직거버 넌스 구축	발굴의제별 성과의 확산과 자원연계
	관찰+협력	문제중심의 주민연대	의제의 발굴과 의제에 동의하는 자원연대			의제해결할 실험적 시도, 실험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관찰+ 공유	발굴의제의 공식화	의제의 정책화			발굴된 문제가 직접 정책결정과정에서 채택
	관찰+실험 +협력	실험결과의 개선을 위한 외부자원과의 연대와 협력체계	의제별성과의 확산이 가능한 연대, 네트워크			초기 구축된 문제해결자원의 제도적 전환
	관찰+실험 +공유	가시적성과	의제별성과의 정책화			문재해결자원의 확장 문제해결방식의 일반화

리빙랩유형	성격	리빙랩성과	관리성격	정책지원방안	성과관리의 주안점: 행정관점
관찰+실험 +협력+ 공유	완결적문제해결 프로세스	시스템	성과축적	소통협력공간 운영자율성및 평가지표 자율화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선순환 관리
실험+공유	실험결과의 즉각적인 정책도입	실험결과의 사업화, 정책화			실험에 사용될 의제가 지역의 고유한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 외부자원연계 방식검토
실험+협력	실험결과와 해결자원간 연계	실험결과, 연대	공간운영의자 율성 부여	소통협력공간 운영자율성및 평가지표 자율화	실험에 사용될 의제가 지역의 고유한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
실험+협력 +공유	외부의 의제로 실험실시	실험결과, 연대, 사업화 및 정책화			실험에 사용될 의제가 지역의 고유한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
협력+공유	자원의 결합을 위한 공간	네트워크, 인프라			공간의 지속적인 활용

○ 그 외 부처연계방안, 국내 사업의 확장방안을 제안함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 1. 연구배경 3
- 2. 연구목적 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8

- 1. 연구범위 8
- 2. 연구방법 9

제2장 | 리빙랩에 대한 이해

제1절 리빙랩 개념의 이해 13

- 1. 리빙랩 개념 논의 13
- 2. 리빙랩의 유형 22

제2절 리빙랩 전개양상의 분석 27

- 1. 한국 리빙랩의 태동 27
- 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리빙랩 진행상황 27

제3절 리빙랩 성과관리를 위한 검토쟁점 30

- 1. 리빙랩 개념의 모호성에 근거한 환상 30
- 2. 성과지표의 정의 문제 31
- 3. 지역에 대한 이해 32

제3장 | 리빙랩 현황분석

제1절 분석개관 37

제2절 사업현황 분석 38

- 1. 조사개요 38
- 2. 수행주체별 현황분석 38

3. 현황분석 결과	63
제3절 리빙랩 유형화 및 유형분석	66
1. 유형화 기준	66
2. 유형화의 적용 및 결과	70
3. 소결	75

제4장 | 리빙랩의 성과분석

제1절 지역역량과 리빙랩 실행 간 불합치 분석	79
1. 분석요소	79
2. 지역역량에 근거한 유형화 및 유형분포	82
3. 지역역량과 리빙랩 유형간 불일치 분석	96
4. 소결: 지역역량의 불합치 문제에 관련된 맞춤형 제도운영의 필요성 도입	110
제2절 리빙랩 성과평가 기준의 마련	111
1. 평가기준의 도출	111
2. 평가기준의 도출	114

제5장 | 리빙랩 우수사례분석

제1절 분석개요	117
1. 기준별 평가의 적용	117
제2절 심층 사례분석	118
1. 분석목적 및 개요	118
2. 리빙랩 수범사례	118

제6장 | 결론 및 정책적 재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43
1. 리빙랩 현황분석	143
2. 리빙랩 유형화 분석	146
3. 리빙랩 성과분석	147
제2절 정책적 제언	148
1. 리빙랩 유형별 맞춤형 정책지원	148
2. 부처연계 방안	150
3. 지역혁신사업에서의 리빙랩 확장방안	151
【참고문헌】	155

표목차 | LIST OF TABLES

〈표 1-1〉 본 연구의 방법론	9
〈표 2-1〉 리빙랩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참여주체에 따른 리빙랩 유형	23
〈표 3-1〉 리빙랩 사업 예산규모 (총9개 사업, 단위:백만원)	39
〈표 3-2〉 리빙랩 사업 참여자 (총9개 사업, 단위:건)	39
〈표 3-3〉 리빙랩 사업 추진기간	40
〈표 3-4〉 리빙랩 사업 참여 전문인력	40
〈표 3-5〉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일반현황	42
〈표 3-6〉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내용분석	45
〈표 3-7〉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참여자	47
〈표 3-8〉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제품개발여부	49
〈표 3-9〉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예산규모	52
〈표 3-10〉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예산출처	54
〈표 3-11〉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예산구성	57
〈표 3-12〉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소관부서	59
〈표 3-13〉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기간	61
〈표 3-14〉 리빙랩의 유형별 주요 특징	66
〈표 3-15〉 리빙랩 유형별 성격	68
〈표 3-16〉 리빙랩의 유형별 분류	70
〈표 3-17〉 지역별 리빙랩 유형분포	73
〈표 4-1〉 지역역량의 측정	80
〈표 4-2〉 기초여건 판단 및 유형화기준	83
〈표 4-3〉 전국 기초지자체 유형별 분포	85
〈표 4-4〉 사회주도형 혁신지역 특성	87
〈표 4-5〉 사회주도형 혁신지역 특성	90
〈표 4-6〉 제도견인형(scale-up 시범지역) 특성	91
〈표 4-7〉 제도견인형(scale-up 시범지역) 모형별 세부특성	91
〈표 4-8〉 3유형 지역유형별 시범지역 특징	92

〈표 4-9〉 제도건인형 지역혁신관리 모형별 세부특성	93
〈표 4-10〉 기초지자체별 지역역량 유형수준	96
〈표 4-11〉 제도건인형 지역혁신관리 모형별 세부특성	103
〈표 4-12〉 평가기준의 도출	111
〈표 4-13〉 리빙랩 평가기준	112
〈표 5-1〉 리빙랩 평가기준	117
〈표 5-2〉 리빙랩 평가기준	118
〈표 5-3〉 자발적 자원순환 활동 서비스 운영프로세스	125
〈표 5-4〉 재활용 및 재사용 폐기물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	126
〈표 5-5〉 리빙랩 추진 성과	127
〈표 5-6〉 리빙랩 사업모델 및 확산성과	129
〈표 5-7〉 리빙랩 거버넌스 구조와 혁신성	133
〈표 6-1〉 리빙랩 유형에 근거한 맞춤형 정책지원	148
〈표 6-2〉 정책행위자에 대한 잘못된 가정	152
〈표 6-3〉 지역혁신사업에서의 리빙랩 확장에 관련된 사업 로드맵 제안	153

그림목차 | LIST OF FIGURES

〈그림 2-1〉 한국의 리빙랩사업 목표 및 유럽의 리빙랩 연구분야	14
〈그림 2-2〉 리빙랩의 기본적인 속성	16
〈그림 2-3〉 두 리빙랩 유형의 결합	24
〈그림 2-4〉 더블다이아몬드 프로세스	25
〈그림 3-1〉 리빙랩 현황분석	37
〈그림 3-2〉 소통협력공간의 프로세스별 역할	66
〈그림 4-1〉 지역혁신지역의 세부유형(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	86
〈그림 4-2〉 유형별 기초지자체 분포	86
〈그림 4-3〉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둘러싼 정부 관계기관의 혁신 관련 환경	89
〈그림 5-1〉 생태계 참여 놀이터의 어린이 제안 디자인(설치 후)	121
〈그림 5-2〉 강원 춘천시 이동식 리필트럭 ‘담아가게’	125
〈그림 5-3〉 강원 춘천시 이동식 자원순환 리워드 상점 ‘모아가게’	127
〈그림 5-4〉 강원 춘천시 ‘케어까페’	134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배경

- 최근 기술·사회혁신 분야의 화두인 리빙랩(Living Lab)은 현장 및 사용자 중심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참여형 혁신플랫폼이라 할 수 있음
 - 리빙랩은 일상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생활공동체 속에서 연구와 혁신체계를 통합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뜻함(이재원 외, 2019)
 - 이는 일반적으로 신기술, 신제품, 서비스 혁신을 위한 솔루션 개발과 사용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실험 참여방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부터 ICT와 IoT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실사용자인 시민이 함께 연구하고 실험하는 참여플랫폼으로 제안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 사회분야로 확산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최근 5년 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이 주축이 되어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시민섹터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리빙랩을 시도함
 - 2018년 행정안전부는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공감e가득 사업)’이라는 리빙랩 공모사업을 운영하였고, 「주민주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활성화」를 2019년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선정한 바 있음(이재원 외, 2019)
 -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현안에 대한 혁신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공공부문(정부, 지자체)의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지역혁신 수단으로 ‘리빙랩’ 방식을 활용·지원의 문제의식이 고도화된 결과임
 - 이러한 정부 공모사업들을 통해 많은 지자체들이 주민참여에 초점을 맞

- 춘 리빙랩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일회적인 시범사업 수준인 경우가 많음
- 지역사회발전과 참여 관점에서 '리빙랩'의 지역혁신 잠재성과 문제해결 유효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러한 영역에서 리빙랩은 아직 초기 실험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역량과 지역내 문제의식을 가진 정책 수요자의 부족문제와, 리빙랩의 토대가 되는 기술 기반의 부족, 공급자 중심의 정책집행 방식 및 하향식 사업집행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지속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존재
- 리빙랩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선, 기존 성과분석을 통한 한계점도출, 수범사례 기준의 설정을 통해 이러한 수범사례 확산의 제도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일련의 정책점검과정이 필요함
- 특히 리빙랩이 초기실험 단계를 벗어나 주민주도 정책문제 해결의 주요한 수단으로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다음의 ▲작동환경에 대한 이해, ▲사업성 과분석에 근거한 제도지원 마련이 필요함

1 작동환경에 대한 이해

-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격차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필연적으로 지역 내 시민사회, 주민, 지자체의 역량의 격차를 야기함
- 작동환경에 대한 이해는 향후 지역중심의 방향적 바람직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임
 - 환경과 주민의 역량 등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민의 역량과 적극적 참여가 핵심이 되는 리빙랩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은 저마다 다름
 - 리빙랩 사업의 추진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리빙랩 설계와 지원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역의 특성을 유형화하는 작업은 필수적임
- 리빙랩이 작동하는 환경과 실제 구현된 양상이 부합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작동환경에 대한 유형적 접근을 시도함

- 리빙랩이 정착하기 효과적인 지역에 리빙랩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환경과 실제 정책개입의 미스매치(mis-match)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 지역 내 리빙랩 수행이 가능한 혁신역량에 대한 파악, 역량의 지역적 격차를 고려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로 인해 사회혁신의 참여자의 풀(pool)이 제한적인 농촌지역, 참여가능한 사람들은 많으나 잦은 인구이동으로 지역에 대한 문제인식이 희박한 도시지역 등과 같이 지역별로 사회혁신자원의 편차가 큼
 - 지역 내 민간혁신 역량을 수용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까지 연결 짓기 위해선 지자체의 혁신역량에 근거한 관리전략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

② 리빙랩 사업성과 분석

- 행정에서 구현된 리빙랩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재 리빙랩 사업의 전개양상(성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한 정책지원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리빙랩은 성과분석은 다음의 쟁점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
 - **(설정범위)** 지역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주민주도의 문제해결시도 전부를 리빙랩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로, 과학기술연구진이나 대학이 주도하는 지역 리빙랩과 기존의 행정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와의 구별이 필요함
 - **(수행방식)** 현존하는 리빙랩은 정부의 공모사업과 지자체의 자체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업들이 다수이며 수행 초기에 해당하는데 실제 지속가능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운영체계)**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련이 있는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지속적인 시도가 가능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공공주도의 하향적 공모사업²⁾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성과지표정의) 사용자 주도로 이해관계자들과의 문제해결 과정 전반(기획-운영과정-산출)을 모두 성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성과관리 지표의 선정, 관리체계의 마련이 어려움

- 좁게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관계에서부터, 넓게는 리빙랩을 통해 해결된 지역문제, 삶의 질 개선이 성과가 될 수 있는 성과정의의 포괄성으로 인해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 구축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에도 실제 리빙랩이 지역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현양상 분석 등의 정책과정평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현재 사업관리의 주요 쟁점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함
- 이는 리빙랩이라는 정책수단이 주민이 정의하며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주민 주도형 문제해결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수단은 더 이상 행정이 단독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에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본 연구는 리빙랩이 장기적으로 작동 가능한 정책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리빙랩 사업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구현양상을 살펴보고자 함
 - 구현양상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한 분석(정량분석)과 수범사례(best-practice)의 구성요소 도출(정성분석)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음

2. 연구목적

- 본 연구를 통해 리빙랩이라는 혁신실험방법과 지역사회, 지역혁신체계가 함께 교차하는 영역에서 '리빙랩 사업의 확대·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과 사업제

2) 지난 5-6년 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이 주축이 되어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시민섹터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리빙랩이 시도됨

안이라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함

- 핵심은 현재의 리빙랩 사업성과와 리빙랩이 작동하는 환경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리빙랩의 확대·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성과분석, 작동환경분석, 이를 결합한 맞춤형 사업 고도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리빙랩 추진성과분석)** 중앙부처, 지자체 등 리빙랩 추진 주체별 사업의 구현양상을 추진내용을 분석하여 성과를 가늠하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선 지역 차별화된 리빙랩 수행을 위한 환경분석을 시도함
- **(맞춤형 사업고도화 방안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제시)**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부처 간 연계 가능성이 높은 사업영역의 획정, 추진 추체간 협업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개의 연구범위를 다룸
 - (리빙랩 개념의 이해) 리빙랩의 성과관리와 정책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리빙랩의 개념과, 관리의 주요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임
 - (국내 리빙랩 현황분석) 현재까지의 리빙랩 수행의 특징을 분석하여 지역별, 리빙랩의 규모별, 주요 특성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중앙·지자체 리빙랩 사업현황 및 지원조직 등 조사·분석지역별로, 주요 사업내용별로 비교 분석함
 - (리빙랩 추진성과분석) 리빙랩 수행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람직하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작동환경과의 정합성 분석) 리빙랩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작동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역 유형별 특성을 추출하여 현행 사업내용과 비교 분석함
 - (우수사례의 발굴 및 성공요인 분석) 리빙랩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주민 주도성, 기술결합성, 문제해결과 같은 리빙랩 개념요소에 관련된 단순하지만 직관적인 정성적 평가기준)을 통해 도출된 정성기준을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함
 - 대표사례 유형화 및 각 사업별 시사점 분석 및 리빙랩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한 핵심 성공요인과 지향점을 도출
 - (맞춤형 관리체계의 제안) 성과와 작동환경 분석에 근거한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선 다음의 3가지 차원의 제도적 개선방안의 도출을 시도함
 - (부처 간 사업 연계성 확보) 관련부처 간 협업을 위한 사업발굴
 - (지역혁신국사업의 개선방안) 현행 지역혁신국 사업중에 리빙랩을 통해 고도화될 필요성 있는 사업제안

- (법 제도적 개선방안) 주민참여와 협업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도출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양적·질적 연구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얻어진 근거자료를 다각도로 이용하고자 함
 - 리빙랩 정의 및 전개양상 분석
 - 리빙랩 사업실태분석
 - 리빙랩 사업담당자 면담 및 민간참여자 인터뷰 분석
 - 리빙랩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전문가 의견 분석

〈표 1-1〉 본 연구의 방법론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실증 자료(통계 자료) 분석	리빙랩 현황분석
면담 및 설문조사 자료 분석	리빙랩 정책 담당자 면담 및 설문조사 리빙랩 사업 수행에 관한 민간 행위자 인터뷰

제2장

리빙랩에 대한 이해

● 제1절 리빙랩 개념의 이해

● 제2절 리빙랩 전개양상의 분석

● 제3절 리빙랩 성과관리를 위한 검토쟁점

제1절 리빙랩 개념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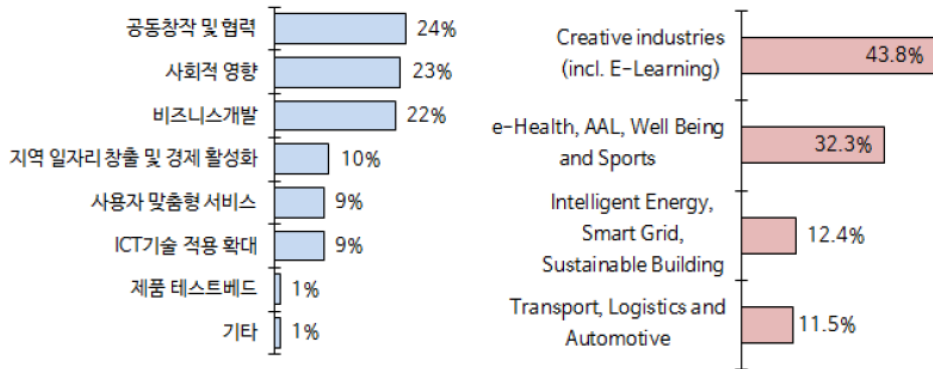
1. 리빙랩 개념 논의

1) 리빙랩의 등장

- 리빙랩은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의 필요성 확대와 공급자 중심의 사회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데에서 출발함
 - 지금까지의 정책수단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새로운 정책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원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해결이 가능한 사례가 증가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한, 문제해결의 창의적 시도 노력이 그 전보다 중요해짐
- 리빙랩(Living lab)의 개념은 MIT의 미첼교수에 의해 정립된 개념으로 스마트 홈이라는 공간에서 연구자가 아닌 실사용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결합된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하는데서 시작
- 리빙랩은 학교, 도시 등 특정 공간 및 지역을 기반으로 공공연구부문,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일종의 ‘혁신플랫폼’으로 실제생활현장에서의 실험과 실증을 통한 문제해결 수단으로 등장함(성지은·박인용, 2016)
- 2006년 유럽리빙랩네트워크(ENoLL) 출범 이후, 현재 전 세계 약 440개 이상의 리빙랩이 스마트시티, 에너지, 교통, 헬스케어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고 있음
 - 리빙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동창작 및 협력이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 비즈니스의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순임

- 유럽 27개국에서 운영 중인 리빙랩의 연구 분야는 스마트학습, 관광, 문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지식서비스가 43.8%로 가장 많고 헬스케어와 생활지원, 웰빙, 스포츠 분야가 32.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2-1〉 한국의 리빙랩사업 목표 및 유럽의 리빙랩 연구분야



자료: Habib(2015).

자료: ENoLL Database.

- 리빙랩은 실생활에서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설계·개발과정에서 공동 창조가 강조되는 개방과 혁신 그리고 선순환적인 프로세스가 중요함
- 최근에는 리빙랩의 의미가 정부-민간 간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수단, 과학문화의 시민 참여형 모델로도 확장되고 있음
- 그 출발은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적 인사들이 상호호혜(Mutual Benefit)의 원칙하에 지역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공동학습(Collective Learning)하는 네트워킹(Networking)을 통해 정보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신뢰(Trust)를 쌓아가는 활동이 전제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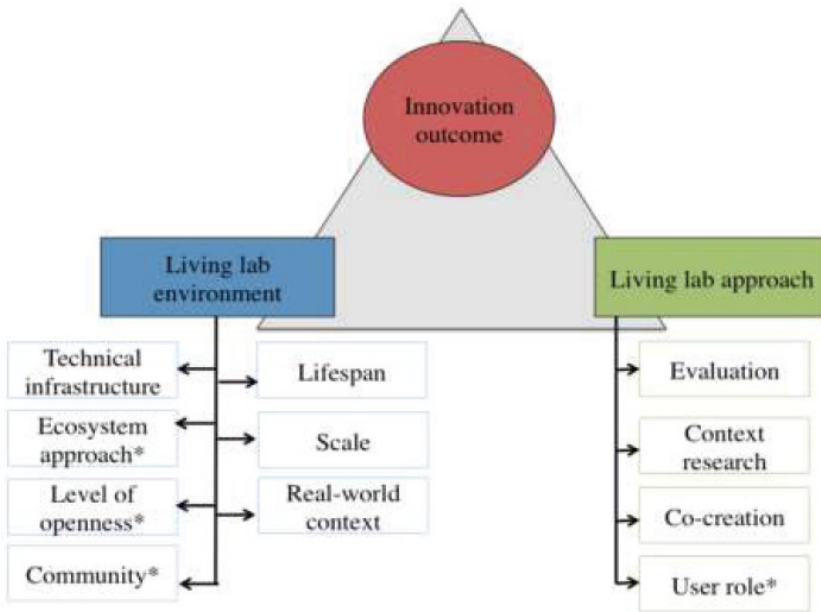
2) 리빙랩의 정의

- 통합적이고 고유한 형태의 개념 정의는 부재한 상황
 - 리빙랩은 실제 생활 현장(real-life setting)에서 사용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실험실이자 테스트 베드임
 - 리빙랩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의 경우 리빙랩을 ‘기업과 시민, 연구소 그리고 정부 간 협력체계(4Ps: 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s)를 바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end-user)가 연구, 개발, 혁신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체제이자 환경’이라는 정의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상황
 - 기존의 연구실험실이나 테스트베드 사업과는 상이하게 사용자의 위치를 혁신의 대상에서 주체로 변화시킨다는 점에 그 의의
- 리빙랩은 혁신과정에서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용자 주도 개방형 혁신생태계(European Commission, 2009)
- 리빙랩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나 공통적으로 “현장”, “개방형”, “혁신실험”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함
 - 리빙랩(Living Lab)은 현장 및 사용자 중심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참여형 혁신플랫폼임
 - ‘살아있는 실험실’, ‘생활 실험’ 등으로도 불리는 리빙랩은 일상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생활공동체 속에서 연구와 혁신체계를 통합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개방형 혁신으로도 이해되는데 산업계, 정부, 학계 중심의 고전적인 혁신체계에 ‘시민참여자’ 혹은 ‘이용자(user)’로 불리는 참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을 의미함

3) 리빙랩의 특성 및 구성요소

- 리빙랩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제 현실 속에서 개방적 사용자 혁신과 창의적 해결안 및 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이고 조직화된 접근방식이라고 할 때 리빙랩의 기본적인 속성은 리빙랩 환경, 리빙랩 접근 방식, 혁신적 성과의 3가지 측면(three pillars)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주경일, 2020)

〈그림 2-2〉 리빙랩의 기본적인 속성



자료: 주경일(2020). 297p 재인용

- 리빙랩의 성과와 특성에 대한 고려요소로서 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리빙랩 환경"의 측면에서 기술적 하부구조(technical infrastructure)는

특정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술적 실험이 가능한 기초 테스트베드를 의미함

- 수명과 규모(lifespan and scale)는 리빙랩이 일종의 프로젝트로서 특정한 시행기간과 규모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함
- 실생활의 맥락(real-world context)은 리빙랩이 단순한 모의시험이 아닌 실제 현실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과정임을 뜻함

- "리빙랩 접근방식"의 측면에 있어 공동창조(co-creation)는 리빙랩 운영상 이해당사자들의 인간 중심 관여와 협력적 참여를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굴이며, 사용자 역할(user' role)은 리빙랩 과정에서 사용자는 정보 제공자와 실험 주도자로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공동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최종 사용자의 관점에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 "리빙랩 혁신의 성과"는 타자와의 협력에 대한 공유된 동기(strategic intention)와 리빙랩 생태계에서의 협력과 참여에 대한 열정(passion), 그리고 리빙랩 네트워크 안에서 공유되는 이해관계자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식과 기술들(knowledge and skills)을 리빙랩 시스템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간주됨(Fiuza, 2017: 19-20).

4) 다양한 리빙랩 개념

□ 초기 리빙랩 : R&D 영역에서 탄생한 실생활 실험

- 미국에서 생겨난 초창기 리빙랩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리빙랩은 과학기술연구의 성과가 사회현장에서 적용될 때 정책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론의 하나로 과학기술 R&D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제해결 방법임(이재원 외, 2019)
 - 미국의 경우, 2004년 MIT Mitchell 교수의 'Place Lab'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으로서 최초의 리빙랩은 공동주택 내 일상적인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1,000 평방 피트 규모의 실제 공동주택을 활용하여 거주민들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ICT 기술과 센서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살펴보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해당 실험 성공 이후 인공적인 실험실을 떠난 일상적인 생활환경 실험공간들이 다양한 R&D 연구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음(이재원 외, 2019)

- 미국에서는 리빙랩 초창기만 하더라도 기술을 사용하는 이들은 혁신활동의 주체라기보다는 관찰의 대상이었으며, 다시 말해 그 당시 리빙랩은 전문가가 사용자를 관찰하고 검증하는 공간에 지나지 않았음

□ 사회혁신 수단으로서의 리빙랩

- 리빙랩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부합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성을 근간으로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임
- 리빙랩은 도서지역 주민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핀란드의 Tarku 리빙랩이나 지역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브라질의 Habitat처럼 기술 검증과 실증을 넘어 공익적 기술개발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도구로도 사용됨(이재현, 2020)
- 사회혁신과 리빙랩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음
 - 제프 멀간(Geoff Mulgan)은 사회 혁신을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이나 사람들이, 사회적 니즈 충족을 위해 운영하는 혁신적 활동과 서비스’로 정의함(이재원 외, 2019)
 - ”사회문제에 대해 기존의 통상적인 해결책보다 더 효율적, 효과적이며 더 지속가능하거나 공정한 해결방안“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혁신 개념에서는 ‘해결방안 도출’이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함께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내는 과정(process)이 중요하게 여겨짐(이재원 외, 2019)
- R&D 영역을 넘어서 사회혁신 수단으로서의 리빙랩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리빙랩의 유용성이 확산되면서, 점차 기존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R&D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 혹은 혁신 비즈니스

- 니스 모델개발 수단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됨
- 리빙랩이 점차 사회문제(교육, 환경, 복지, 공동체 회복, 젠더 등)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들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간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다양한 정책사업의 주민참여 절차의 일환으로 확대도입됨
 - 유럽에서는 리빙랩이 사용자 참여와 혁신공동체의 구성을 지향하는 일종의 사회운동으로서 시작되었으며, 사회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연구자, 공무원, 기업, 시민이 함께 개방형 혁신을 도모하는 혁신형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음
 - ENoLL에 의하면, 리빙랩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능동적 사용자의 참여(User Engagement), 실제 생활에서의 구성(Real-Life Setting),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Multi-Stakeholder Participation), 다양한 방법론(Multi-Method Approach), 공동창조 프로세스(Co Creation Process)"등이며, 특히 이들 중 "실제 생활에서의 구성", "공동창조" 등은 리빙랩을 리빙랩답게 만드는 필수 구성요소로 받아들여짐
 - 우리나라에서도 소셜 리빙랩(Social living lab)개념이 활발하게 확산되면서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이를 둘러싼 참여 및 연대의 문제, 경제적·윤리적 이슈들이 리빙랩의 핵심 문제로 부각함

□ 주민참여 리빙랩

- 주민참여의 리빙랩의 장점은 지역문제의 지역화가 효과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지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의 여러 주체들(지방자치단체 집행부, 지방의회, 시민단체, 지역 학계, 지역언론 등)이 지역공동체라는 하나의 실험실에서 협력과 연대의 효용성과 가치를 깨달아 주민자치의 효능감 제고 및 사회자본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리빙랩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리빙랩은 지역사회의 혁신을 도모하는 리빙랩을 "주민참여 리빙랩"으로 다시 명시됨

- 주민참여 리빙랩은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혁신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리빙랩'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안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기술혁신 리빙랩(R&D 리빙랩), 사회혁신 리빙랩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음(이재원 외, 2019)
- 지역 및 지역성이란 해당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을 이루는 공간(영토), 주민, 지방정부와 기타 공적 주체, 민간 주체(기업, 시민단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이 있으며 이들 중 핵심요소는 영토, 주민,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주민참여 리빙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리빙랩을 통해 주민사회가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며 주민의 주도적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고 둘째, 사회문제해결과정에 주민이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는 주민주도의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임
- 기존의 리빙랩에선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주민사회와 교감하는 개방형 혁신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 리빙랩이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이 강조됨

○ 주민참여 리빙랩의 중요가치 및 차별점

- 실험을 계획하고 운영을 전적으로 주민이 하거나 아니면 공공이나 전문가와의 협업하면서 진행과정을 함께 하는 리빙랩이 필요함
- 주민참여 리빙랩은 지역사회(주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 공동창조의 원칙 아래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에 대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제 생활현장에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며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주민이 더 이상 공공정책 및 사회서비스의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협력 주체로 여겨지고 있음
- 일반적인 주민참여사업에도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방법들이 있으나 주민참여 리빙랩은 '실험성'이 더욱 강조됨
- '실험성'이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

(실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초기 아이디어를 실제 상황에서 테스트-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진행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용납하는 계획의 변경가능성과 최종적으로 바라는 결과가 정확하게 도출되지 않더라도 실험과정에서 얻어지는 정보와 지식을 통해 개선을 성과로 보는 것임

- 즉 주민참여 리빙랩은 주민참여활동이 가지는 ‘지역주도성, 책임성’과 R&D리빙랩, 사회혁신 리빙랩이 가지는 ‘실험성’과 더불어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담아내는 ‘지역성’을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주민참여 리빙랩과 거버넌스

- 리빙랩은 사용자와 서비스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수단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기술 부문뿐 아니라 점차 폭넓게 사회혁신 영역 전반으로 확산 및 공유되었으며, 이는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생활 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4P(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 거버넌스에 기초해 새로운 정책, 제도, 기술을 개발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와 연관지을 수 있고 이러한 리빙랩 특유의 개방적 혁신 프로세스는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창출하는 사회혁신 개념 안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함(이재원 외, 2019)
- 이재원 외, (2019)의 연구에 의하면 4P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Public(정부/지자체), Private(민간/개발자), People(주민, 지역사회)의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Private, 민간부문) 기존 지역발전 사업에서는 투자 및 용역으로 참여하지만, 주민참여 리빙랩 안에서는 함께 혁신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험의 전문성을 제공하거나 후원하는 역할을 수행
- (Public, 공공부문 중 지방자치단체) 주민사회와 밀착하여 생활실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리빙랩 운영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리빙랩을 운영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공모전 형태로 지역 내 리빙랩을 활성화할 수 있음

- (Public, 공공부문 중 중앙정부) 공적 보조금을 통해 직접 재정을 후원하거나 포괄적 차원에서 리빙랩 생태계를 조성-후원-인센티브 제공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아래 지역별 리빙랩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거나 전국적 공모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실험을 하는데 있어 조직의 운영이나 예산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고 중앙-지방정부 간 공적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 (People, 사용자/시민) 주민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 정의-아이디어 제안 등 실험 기획 전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외 리빙랩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혹은 시민사회 활동가 등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이러한 4P 거버넌스의 틀을 바탕으로 하여 각 사안별로 리빙랩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거버넌스 및 리빙랩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노력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2. 리빙랩의 유형

1) 리빙랩의 유형화 방식

- 리빙랩(Living Lab)은 MIT의 미첼(William J. Mitchell) 교수에 의해 개념이 정립된 후 점차 공간범위가 확장되었고, 2006년에 유럽연합(EU)의 19개 도시가 '범유럽 리빙랩 네트워크'를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됨(옥진아·정효진, 2019)
- 리빙랩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그 유형화 방식도 매우 다양함
 - 사용자 주도(user-driven) 리빙랩의 경우 사용자 공동체에 의해 생성되어 이들의 일상생활상 문제해결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만 그 효과는 사회나 기업에게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주체에 의한 구분

○ 리빙랩의 주요 참여주체에 따른 리빙랩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 리빙랩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참여주체에 따른 리빙랩 유형

기준	활용자 주도형	조력자 주도형	제공자 주도형	사용자 주도형
목적	설정목표에 따른 전략적 R&D활동	활동을 통한 전략개발	지식향상을 통한 운영개발	협업을 통한 성취로 문제해결
조직 구조	빠른 지식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을 조직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형성	지역이나 펀딩 프로젝트 중심의 형태로 네트워크 형성	연구기관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조 생성	공식적인 조정 역할의 매커니즘 부재
활동 내용	활용자는 사용자로부터 정보 수집을 안내하고 설정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지식창출을 촉진	정보는 함께 수집하여 사용하며, 지식은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으로 창조됨	정보는 즉시 또는 미래를 위해 수집되며, 새로운 지식은 타인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생성	정보는 공식적으로 수집되지 않고 사용자에 따라 구축되며, 지식은 네트워크 내에 사용자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 사용
성과	제품 및 사업개발을 위한 새로운 지식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략 변경	운영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식	사용자의 일상 생활 문제 해결
기간	단기간	단기/중기/장기	단기/중기/장기	장기간

자료: 주경일(2020). 296p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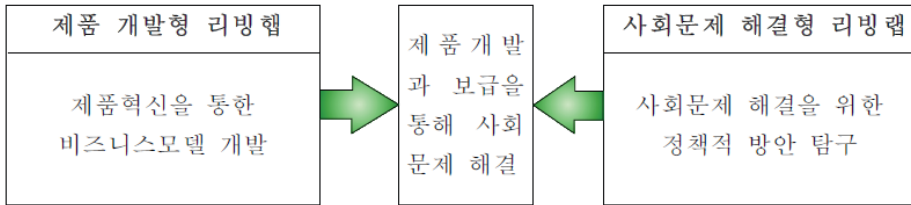
○ 주체에 따라 유형화를 하는 경우, 연구기관 주도형, 기업 주도형, 지자체 주도형, 사용자 주도형 등의 주체, 또는 정책수단, 정책영역으로 구분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리빙랩이 가지고 있는 다의적인 개념에 기반을 두어 다양한 형태로 사업 진화하고 있음
-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으므로 유형화가 다변화됨
- 리빙랩을 매개로 정책적 의사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메이커스 운동이나 과학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
-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도 하고, 대학생들의 지역봉사 모델을 찾기도 하는 등 작동영역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함

□ 목적에 따른 구분

- 리빙랩은 목적을 중심으로 유형화가 가능한데, 결집하는 ‘경로’를 유형화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이재원 외, 2019)
 - 연구 리빙랩: 혁신연구를 위해 연구진-시민사회-공공 등이 연구진이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결집하는 리빙랩
 - 기업 리빙랩: 기업의 혁신개발을 위해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를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결집시키는 리빙랩
 - 내부 조직 리빙랩: 조직(기업, 시민단체, 공공기관, 지자체, 정부부처 등 모든 종류의 조직 포함)의 구성원 및 직접적 이해관계자들 결집하여 혁신을 공동창조하는 리빙랩
- 더 단순하게 리빙랩 유형을 구분할 수도 있는바 리빙랩을 사용자 주도의 혁신 플랫폼으로 보면서도 제품개발형과 사회문제 해결형 리빙랩으로 나누기도 함
- 제품개발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두 유형의 교집합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그림 2-3〉 두 리빙랩 유형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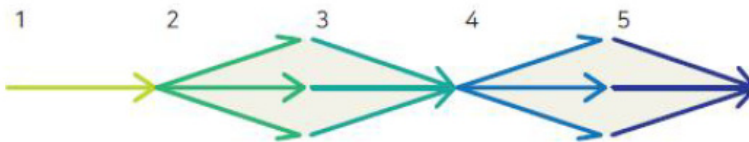
자료: 김준안(2017)참조, 주경일(2020) ,297p. 재인용

□ 프로세스에 따른 구분

- 리빙랩은 일련의 문제해결 절차와 과정이므로 그에 맞춘 구분 가능함
- 이는 리빙랩을 “아이디어를 디자인하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에 근거함

- ‘서비스 디자인 씽킹(SDT)’방법은 현재 민간기업, 공공정책 등 민관이 애용하는 혁신 디자인 기법이며, 리빙랩 이론연구에서도 빈번하게 제시되는 혁신아이디어 도출 기법임
- SDT 프로세스는 통상적으로 ‘더블다이아몬드 프로세스’라 불리는 5단계 절차를 거치는데, 더블다이아몬드 프로세스는 “ 문제발견(Discover, 확산)-문제정의(Definition, 수렴)-아이디어발전(develop, 확산)-아이디어 전달(Deliver, 수렴) 등 사고(thinking) 수렴과 확산이 반복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디자인 하는 과정”임(이재원 외, 2019)
- 현재 행정안전부의 ‘국민디자인단’ 사업을 통해 SDT와 더블다이아몬드 기법이 넓게 확산되어 상당 부분 활용됨
- 디자인 씽킹은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아, 사용자에게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문제를 정의하며, 확산과 수렴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거침(이재원 외, 2019)

〈그림 2-4〉 더블다이아몬드 프로세스



시작 (문제이해)	확산 (문제발견)	수렴 (문제정의 및 아이디어 수집)	확산 (아이디어 및 해결책 발전, 구체화)	수렴 (아이디어 전달/적용)
-팀구성/오리엔테이션 진행 -주제 후보군 선정 -진행 방향성 협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논의 -행정절차(공문 등) 준비 -이해관계자 섭외 및 인터뷰	-활동 방향성 협의 -이해관계자 협조 요청 -실행가능성 점검	-아이디어 워크숍 준비와 진행, 아이디어 스케치와 시나리오 -서비스콘셉트 개발	-최종 서비스 전달 (스토리보드, 프로토타입 제시) -실행전략 수립 -사후관리 및 피드백

자료: 국민디자인단 매뉴얼(2018). 행정안전부 외. p.12, 14 저자 재정리.

- 리빙랩을 프로세스로 보는 유형은 현재 행정안전부 소통협력공간에서 리빙랩의 성과를 정리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제2절 리빙랩 전개양상의 분석

1. 한국 리빙랩의 태동

- 사회혁신이 국가 정책의제로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사회혁신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리빙랩이 정부, 지자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도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기술혁신”, “산업혁신” 등의 개념으로 처음 도입되어 대부분의 리빙랩 도입이 디지털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등과 관련된 기술의 실증사업으로 진행됨(경기연구원, 20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통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및 기술 사업화·실증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친환경 도시 설계 및 도시재생을 위한 추진 노력 등을 결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수행함
- 리빙랩 사업을 시민사회와 엮어 발전시키고자 2017년 3월,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광주·대구·부산·전북·경남·대전 등 지역별 및 대학·스마트시티 등 영역별 리빙랩 네트워크가 발족하였음

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리빙랩 진행상황

- 리빙랩은 등장이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성과창출형과 함께 지역사회의 사회혁신을 지향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 가운데 현 정부에 들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함
 -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행정안전부, 2019/02/26)의 네 번째 테마인 “4.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

- 기반 구축” 이 리빙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제안하여 해결과정까지 주도하는 리빙랩(Living Lab)과 같은 참여 방식을 활성화한다고 하여 지방분권을 대비한 “지역문제의 지역화”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음
 - 지역문제의 지역화는 중앙 집중적 쏠림현상을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방향에서 기획되었는 점에서 주민자치, 지방자치와 문제해결 수단인 리빙랩을 직접적으로 결합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 국정 과제의 수단으로 리빙랩을 채택하여 연구개발예산에 편성함
- 리빙랩은 스마트도시의 확산과 함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며, 리빙랩에서 다루는 도시문제는 지역주민들의 활동 공간과 연계되기 때문에 공간적 맥락(context)을 다루게 됨
 - 2017년 이후 스마트 시티 관련 자치법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리빙랩 관련 조례는 그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
 - 2020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리빙랩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은 7건(서울, 경기, 광주)이었으며, 지자체 스마트 시티 관련 조례 제개정은 53건임(이재현, 2020)
- 현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리빙랩 사업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초창기 리빙랩은 과학기술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2018년 들어 행정안전부와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국민해결 2018”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사회혁신 목적의 리빙랩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로 전국 지자체들의 리빙랩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국민해결 2018”사업은 리빙랩의 공공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기술혁신 목적위주의 리빙랩과의 차별점을 두었으며, 즉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목표로 하여 리빙랩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는 기존의 도시재생 등의 사회혁신이 지나치게 관 주도적이고 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노력으로 여겨짐

- 2021년 현재, 리빙랩 활동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정을 혁신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과기부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이나 국민생활연구사업,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혁신사업,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사업 등에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리빙랩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음
 -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대학들의 리빙랩 활동도 활발한데, 2019년 초 실시된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다양한 리빙랩 활동으로 교육·연구·지역사회 혁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서로 연계하고 고도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가 발족하기도 하였음
 - 시민사회도 리빙랩 활동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2019년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마을로 성장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성대골의 에너지 리빙랩, 2019년 본격적인 마을주도 통합돌봄 모델로서 자리잡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고 해당 리빙랩 사업들은 단순 사례를 넘어 다른 지역에도 도입될 수 있는 지역 플랫폼으로 발전됨
- 리빙랩 사업 시행을 위한 소통협력 공간의 조성이 확대됨
- (사업규모) '18년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한 사업지 6개소('18년: ①강원 춘천, ②전북 전주, '19년: ③대전, ④제주, '20년: ⑤충남, '21년: ⑥울산)
 - (예산) 선정 지자체 국비 연 20억 ※보조율 50%, 기본 3년+차등지원안
 - (주요내용) 지역혁신 거점공간 조성: 주민참여 공간기획 및 리모델링·개소, 주민 주도 문제해결 혁신활동 지원: 공간 기반 혁신활동 지원(입주, 다목적공간 대관 등), 지역밀착 생활실험 지원(리빙랩 등), 저변확대(홍보, 컨퍼런스 등) 및 거버넌스, 사례연구 및 아카이브
- 리빙랩의 유용성에 국가가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기획, 민간의 자원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형태로 사업이 운영됨

제3절 리빙랩 성과관리를 위한 검토쟁점

1. 리빙랩 개념의 모호성에 근거한 환상

□ 리빙랩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성 부재

- 리빙랩의 용어가 생활실험을 뜻하지만, 생활과 실험을 결합하는 세련된 기법이라 일반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가의 리그라는 선입견이 존재할 여지가 있음
- 또한 리빙랩이 폭넓은 정책영역에 수단으로 작동함에 따라 리빙랩이 기존의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음
 - 주민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업을 리빙랩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참여제도와 의견수렴 제도를 마치 새로운 기법인 것으로 포장될 수 있음
 - 참여의 수단과 발굴된 의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채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지나친 주민주도성에 대한 환상

- 리빙랩의 주민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과 관리의 영역임에도 이를 집행할 지자체의 인식은 낮은 수준임(이재원 외, 2019)
 - 주민주도 리빙랩의 경우 특정한 사업(project)이나 실험실(lab)을 관리·운영한 경험이 없는 일반 주민들이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주민이 주도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시행착오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라인과 지원이 부재하여 의도하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 지자체 정부 또한 리빙랩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어 관성적으로 항상 운영하던 보조금 사업이나 아이디어 공모전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가 있어, 실험과정의 문제점이나 책임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함
 - 전문 인력(퍼실리테이터 등)을 별도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혁신적 시도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

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은 사업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주민은 의견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리빙랩에 참여하기 때문에, 연구진보다 목적성이 약하며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도 이러한 약한 목적성 때문에 실험과정에서 탈퇴 및 포기가 쉬움
 - 결국 리빙랩이 현장에 착근하기 위한 제반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주도성 개념에 매몰되어 리빙랩의 사업시행 이후의 결과가 축적되지 못하게 되는 것임
- 수원시정연구위원회에서는 2018년도에 ‘지역문제 해결모델로서의 일상생활실험실(Living-Lab)과 마을만들기 사례 비교연구(김도영, 2018)’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연구는 유사한 사례에서 두 가지 주민참여 방법(리빙랩, 마을만들기)이 어떻게 다른 지를 비교했으나 리빙랩의 경험이 있는 지역사회현장에서도 리빙랩과 일반적 주민참여 사업 간의 구분이 쉽지 않음을 반증
- 주민이 주도하여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야한다는 리빙랩의 이상적인 가치에 지나치게 경도된 형태로 사업이 시행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함

2. 성과지표의 정의 문제

- 리빙랩의 개념의 다양성과 리빙랩을 일련의 단계로 보는 경우에는 성과지표 자체를 정의하기 어려움
- 리빙랩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리빙랩평가 지표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리빙랩은 새로 도입된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접근 가능한 해외사례가 적을 뿐더러 리빙랩 평가지표에 대한 사례는 전무함
- 김은지·박영일(2019)의 연구와 같이 전체적인 리빙랩을 평가하기 보다, 특정영역과 분야에서 작동하는 도시재생 리빙랩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대상 사업 자체를 평가하는 소수의 연구가 있음
- 그러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한 관리체계 구축에 이르는 이론적 논

의가 확장되지 못함

- 지표관리의 중앙집권성, 지자체 특수성, 사업영역별 재량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리빙랩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한 관리체계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적 추진의지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제약이 존재함
- 정량지표를 지역단위로 표준화하기 위해 고려하는 인구수, 면적의 지표는 대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측정결과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구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경우 인구단위를 모수로 하여 사회적 가치의 성과를 환산하는 경우 극단값의 지자체는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측정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표준화되지 않은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존재하는데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공개되지 않은 문제,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 사용 등으로 인해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움
- 따라서 엄밀한 성과평가보단 이행상황의 점검과 주요정책 내용의 전개양상이 지역유형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맞춤형 정책 설계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준의 평가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3. 지역에 대한 이해

- 리빙랩의 취지가 실제 어떻게 지역과 지방행정과정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
- 지방정부는 정부혁신과 사회혁신, 민과 관이 함께 이루는 혁신의 접점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므로 정부혁신과 사회혁신에서 중요한 주체지만 리빙랩 과정에서의 지방정부의 적정역할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 대부분의 정부혁신은 국가주도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지역에 대한 이해와 수요파악은 소홀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리빙랩 역시 현장이 아닌 국가운 영방향에서 확장된 정책수단에 가까움

-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리빙랩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 대한 이해와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것임

제3장

리빙랩 현황분석

제1절 분석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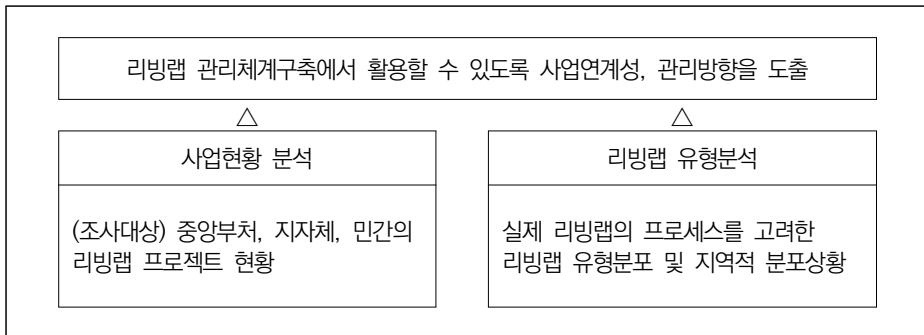
제2절 사업현황 분석

제3절 리빙랩 유형화 및 유형분석

제1절 분석개관

- 리빙랩의 현황분석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리빙랩의 주요 특징을 지역별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음
- 현황분석을 통해 리빙랩 관리체계구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연계성, 관리방향을 도출할 수 있음
- 현황분석은 사업현황분석, 리빙랩의 유형분석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뤄짐

〈그림 3-1〉 리빙랩 현황분석



제2절 사업현황 분석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의 리빙랩 프로젝트 현황
- (조사방식) 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 리빙랩 사업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조사표³⁾ 배부, 민간의 리빙랩은 소통협력공간 사회혁신센터 및 지역별 리빙랩네트워크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수합받아 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함
- (조사기간) 중앙부처 : '21. 4. 26. ~ 5. 3. / 지자체 : '21. 4.12. ~ 4. 23.

2. 수행주체별 현황분석

1) 중앙부처 리빙랩 현황

- 중앙정부의 경우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부각됨에 따라 각종 리빙랩 프로그램들이 추진 중임
 - 대표적으로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는 상기 두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 기반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시도함
 - 특히, 행안부는 소위 ‘공감e가득’이라는 사회문제 해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지자체 적용 및 확산을 통한 지역격차 완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총 6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분야별로 8개 과제를 선정하여 각 과제당 8천만원 한도하에 지원함

3) 조사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리빙랩 개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주민참여절차를 운영하는 통상적 개발사업을 리빙랩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있었음. 다만 전수 조사라는 조사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연구진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자체가 제출한 리빙랩 사업을 재분류하지는 않음

○ 중앙부처 리빙랩 사업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음

- 중앙부처 리빙랩 사업은 총 9건이며 예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원~ 1억 원”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1건, “1억 원~ 5억 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1건, “5억 원~ 10억 원”에 보건복지부 사업 1건으로 나타났으며 “20억 원 이상”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업 2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1건, 해양수산부 사업 1건, 교육부 사업 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1건 등이었음

〈표 3-1〉 리빙랩 사업 예산규모 (총9개 사업, 단위:백만원)

구분	~50미만	50~100	100~500	500~1,000	1,000~2,000	2,000이상
중앙부처		문체부(1)	문체부(1)	복지부(1),		행안부(2), 농림부(1), 해수부(1), 교육부(1), 과기부(1)

○ 중앙부처 리빙랩 사업 참가자는 다음과 같음

- 지역주민은 8개 리빙랩(행안부 1개, 농림부 1개, 복지부 1개, 해수부 1개, 문체부 2개, 행안부 1개, 과기부 1개), 연구기관 및 대학은 8개(행안부(중복), 농림부(중복), 복지부(중복), 해수부(중복), 교육부(1), 복지부(중복), 행안부(중복), 과기부(중복))였고 그 중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6개 부서의 리빙랩 사업이 참여주체가 지역주민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지막 민간기관 및 단체가 리빙랩 사업 참여자로서 참여산 사업은 행안부, 복지부, 해수부, 문체부 사업 등이며 해당 4건의 사업은 참여주체가 중복

〈표 3-2〉 리빙랩 사업 참여자 (총9개 사업, 단위:건)

구분	지역주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관 및 단체
합계	8개	8개(1) (6개사업 참여주체 중복)	4개(0) (4개사업 참여주체중복)

구분	지역주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관 및 단체
중앙부처	행안부(1), 농림부(1), 복지부(1), 해수부(1), 문체부(2), 행안부(1), 과기부(1)	행안부(중복), 농림부(중복), 복지부(중복), 해수부(중복), 교육부(1), 복지부(중복), 행안부(중복), 과기부(중복)	행안부(중복), 복지부(중복), 해수부(중복), 문체부(중복)

○ 중앙부처 리빙랩 사업 추진기간은 다음과 같음

- 리빙랩 추진기간이 “~12개월”인 사업은 문체부 사업 2개가 속하였으며 “24~36개월”인 사업은 농림부(1) 및 복지부(1) 사업이었고 “36개월 이상”에 속하는 사업은 행안부(1), 해수부(1), 교육부(1), 행안부(1), 과기부(1) 등이었음

〈표 3-3〉 리빙랩 사업 추진기간

(단위: 건)

구분	~12개월	12~24개월	24~36개월	36개월 이상
중앙부처	문체부(2)	-	농림부(1), 복지부(1)	행안부(1), 해수부(1), 교육부(1), 행안부(1), 과기부(1)(협업)

○ 중앙부처 리빙랩 사업 참여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음

- 리빙랩 사업 참여 인원은 50명 이하가 5건(복지부 1건, 행안부 1건, 과기부 1건, 문체부 2건)이었으며, 50~100명이 1건(행안부 1건), 100~150명이 2건(농림부 1건, 해수부 1건), 150명 이상이 1건(교육부 1건)이었음

〈표 3-4〉 리빙랩 사업 참여 전문인력

(단위: 명)

구분	50명 이하	50~100명	100~150	150명 이상
중앙부처	복지부(1), 행안부(1), 과기부(1), 문체부(2)	행안부(1)	농림부(1), 해수부(1)	교육부(1)

2)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현황

□ 예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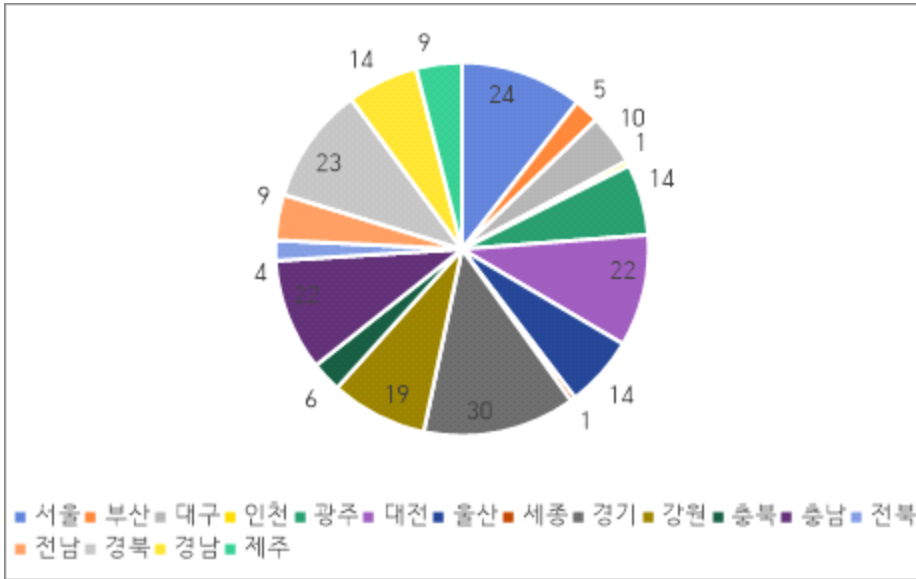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의 예산 현황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리빙랩은 총 227개로 각각의 리빙랩에는 평균 약 3억 8225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있으며 그 중 비예산 사업은 총 18개이고 리빙랩 평균 수행기간은 12.97개월임
 - (총계) 리빙랩 숫자는 경기도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24건, 경북 23건, 충남 및 대전이 각각 22건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인천, 세종 등이 1건으로 가장 적었음
 - (평균예산) 평균예산은 경북이 대규모 사업들을 유치 및 진행하며 약 23억 6100만원 가량의 평균예산을 보였으며 경북을 제외하면 울산이 약 6억 357만원 등이 뒤를 따랐고, 1억 이하 평균예산을 가진 지역이 많았으며 그중 충북은 평균 약 1375만 원, 경북은 평균 약 1,587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남
 - (비예산사업수) 비예산사업수의 경우, 제주가 4건(44.44%)로 건수와 비율 측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은 비예산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수행기간) 평균수행기간의 경우 경북이 가장 긴 약 35.43개월을 보였으며 충북(18.17개월), 부산(16.22개월), 대전(13.32개월), 울산(13.86개월) 등이 평균(12.97)개월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6.75개월), 강원(6.32개월) 등의 평균 수행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드러남

4) 지자체 담당자가 인식하는 리빙랩 사업에 대한 예산자료를 기입받아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리빙랩 사업을 포함하는 전체 사업 예산이 기입되어 실제 예산규모가 크게 잡힘. 예를 들어 경상북도의 경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농림축산식품부) 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가 모두 포함되어, 실제 수행되는 리빙랩사업의 예산보다 과잉해석될 여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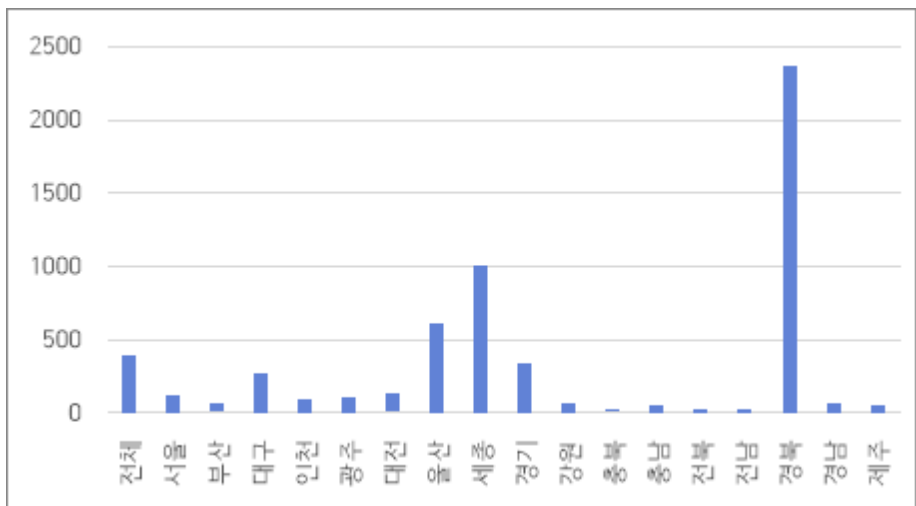
〈표 3-5〉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일반현황

구분	총계	평균예산 (백 만원)	비에산사업수	평균수행기간 (개월)
전체	227	382.25	18 (7.92%)	12.97
서울	24	114.05	-	11.41
부산	5	54.84	1 (20.0%)	16.22
대구	10	259.57	2 (20.0%)	10.73
인천	1	90	-	12
광주	14	107.89	-	8.42
대전	22	122.11	-	13.32
울산	14	603.57	-	13.86
세종	1	1000	-	18
경기	30	333.62	3 (10.0%)	10
강원	19	63.31	-	6.32
충북	6	13.75	2 (33.3%)	18.17
충남	22	45.36	3 (13.53%)	8.10
전북	4	15.87	-	6.75
전남	9	18.86	-	9.44
경북	23	2361.32	-	35.43
경남	14	65.36	3 (21.42%)	11.71
제주	9	41.78	4 (44.4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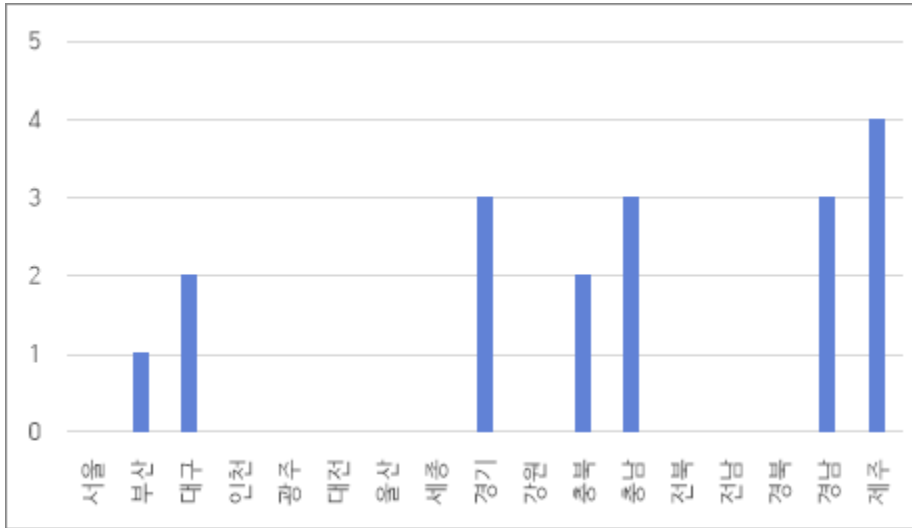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분포(단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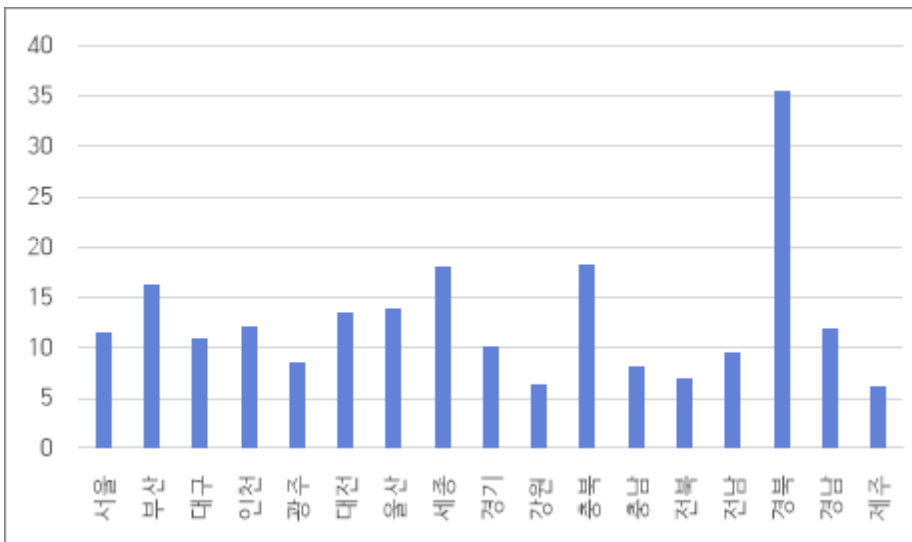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평균예산(단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비사업 예산 분포(단위:건)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평균수행기간(개월)



□ 사업 내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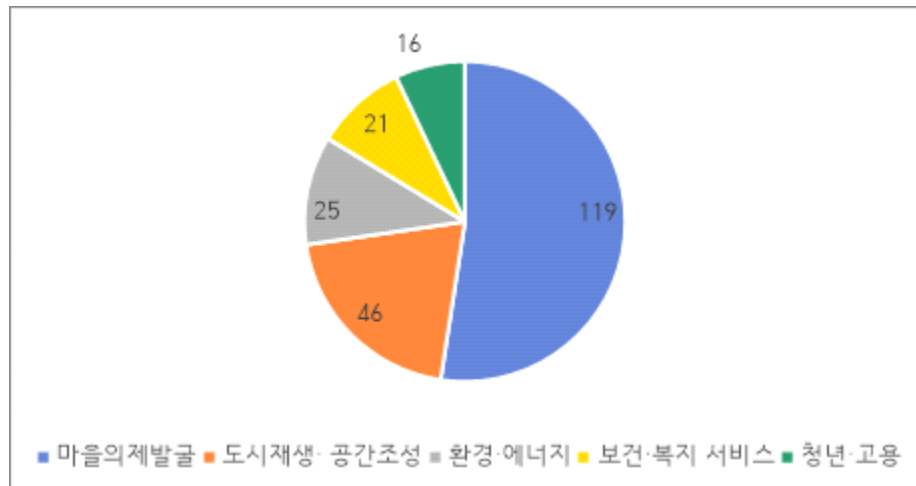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주제에 따른 내용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마을의제발굴 유형이 119건(52.42%), 도시재생·공간조성 유형이 46건(20.46%), 환경·에너지가 25건(11.01%), 보건·복지서비스가 21건(9.25%), 청년·고용이 16건(7.05%)으로 나타났음
 - 대구, 전북과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마을의제발굴’ 유형 리빙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60.00%), 인천(100%), 광주(85.71%), 대전(63.64%), 울산(64.8%), 세종(100%), 강원(52.63%), 충북(83.33%), 충남(54.54%), 경남(71.44%), 제주(77.78%) 등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대구는 “도시재생·공간조성” 유형 리빙랩이 절반(5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전북은 “마을의제발굴”, “도시재생·공간조성”, “환경·에너지”, “보건·복지서비스”, “청년·고용” 등이 각각 25씩을, 전남의 경우 “환경·에너지”가 4건(44.4%), “보건·복지서비스”가 4건(44.4%), “청년·고용”이 1건(11.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내용분석

구분	마을의제 발굴	도시재생· 공간조성	환경· 에너지	보건·복지 서비스	청년·고용
전체	119 (52.42%)	46 (20.26%)	25 (11.01%)	21 (9.25%)	16 (7.05%)
서울	7 (29.17%)	6 (25.00%)	6 (25.00%)	4 (16.67%)	1 (4.17%)
부산	3 (60.00%)	1 (20.00%)			1 (20.00%)
대구	2 (20.00%)	5 (50.00%)	2 (20.00%)		1 (10.00%)
인천	1 (100.00%)				
광주	12 (85.71%)	1 (7.14%)		1 (7.14%)	
대전	14 (63.64%)	4 (18.19%)	1 (4.54%)		3 (13.63%)

구분	마을의제 발굴	도시재생· 공간조성	환경· 에너지	보건·복지 서비스	청년·고용
울산	9 (64.28%)	1 (7.14%)	2 (14.29%)		2 (14.29%)
세종	1 (100.00%)				
경기	14 (46.67%)	10 (33.33%)	4 (13.33%)	2 (6.67%)	
강원	10 (52.63%)	3 (15.79%)	1 (5.26%)	4 (21.05%)	1 (5.26%)
충북	5 (83.33%)		1 (16.67%)		
충남	12 (54.54%)	5 (22.72%)	1 (4.54%)	1 (4.54%)	3 (13.64%)
전북	1 (25.00%)	1 (25.00%)		1 (25.00%)	1 (25.00%)
전남			4 (44.44%)	4 (44.44%)	1 (11.11%)
경북	11 (47.93%)	6 (23.08%)	1 (4.35%)	4 (17.39%)	1 (4.35%)
경남	10 (71.44%)	2 (14.28%)	1 (7.14%)		1 (7.14%)
제주	7 (77.78%)	1 (11.11%)	1 (11.11%)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분포(단위:건)



○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참가자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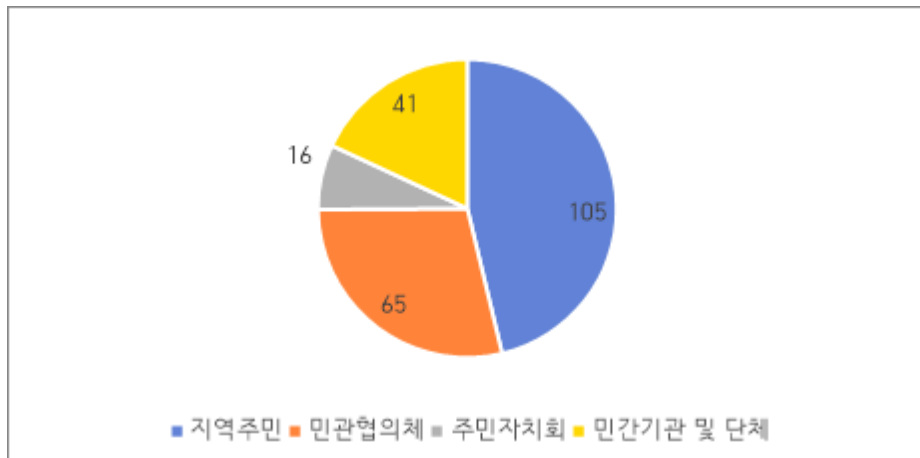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비율이 46.26%(10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민관협의체가 28.63%(65건), 민간기관 및 단체가 18.06%(41건), 주민자치회가 7.05%(16건)로 뒤를 따랐음
- 대구(5건, 50.00%), 대전(9건, 40.91%), 울산(7건, 50.00%), 강원(17건, 89.47%), 충북(5건, 83.33%), 충남(16건, 72.73%), 경남(12건, 85.71%), 제주(9건, 100%) 등에서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리빙랩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서울(11건, 45.83%), 부산(3건, 60.00%), 대구(5건, 50.00%), 인천(1건, 100%), 경기(16건, 53.33%), 전남(3건, 33.33%), 경북(11건, 47.83%) 등에서는 민관협의체가 참가하는 리빙랩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그 밖에 광주는 주민자치회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참가하는 리빙랩이 각각 5건(35.71%)씩 나타나며 전체 리빙랩 중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전북의 경우 주민자치회(2건, 50.00%)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7〉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참여자

구분	지역주민	민관협의체	주민자치회	민간기관 및 단체
전체	105 (46.26%)	65 (28.63%)	16 (7.05%)	41 (18.06%)
서울	3 (12.50%)	11 (45.83%)		10 (41.67%)
부산	2 (40.00%)	3 (60.00%)		
대구	5 (50.00%)	5 (50.00%)		
인천		1 (100.00%)		
광주	3 (21.53%)	1 (7.14%)	5 (35.71%)	5 (35.71%)
대전	9 (40.91%)	4 (18.18%)	1 (4.54%)	8 (36.36%)

구분	지역주민	민관협의회	주민자치회	민간기관 및 단체
울산	7 (50.00%)	3 (21.42%)	2 (14.28%)	2 (14.28%)
세종		1 (100.00%)		
경기	9 (30.00%)	16 (53.33%)		5 (16.67%)
강원	17 (89.47%)		2 (10.53%)	
충북	5 (83.33%)	1 (16.67%)		
충남	16 (72.73%)	4 (18.18%)		2 (9.09%)
전북		1 (25.00%)	2 (50.00%)	1 (25.00%)
전남	1 (11.11%)	3 (33.33%)	2 (22.22%)	3 (33.33%)
경북	7 (30.43%)	11 (47.83%)	2 (8.70%)	3 (13.04%)
경남	12 (85.71%)			2 (14.29%)
제주	9 (100.00%)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참여자 분포(단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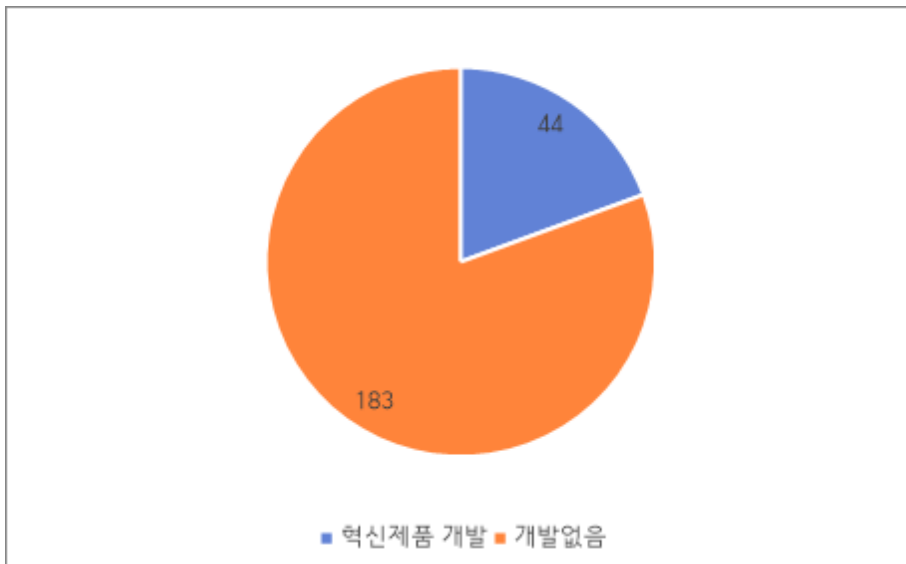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여부는 다음과 같음
- 전체의 19.38%에 속하는 44건에서 혁신제품을 개발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별로 봤을때는 강원지역 리빙랩의 68.42%에 속하는 13건의 혁신제품 개발이 이루어져 가장 많은 건수와 높은 비율을 보임
 - 그 뒤를 제주(6건, 66.67%), 부산(2건, 40.00%)등이 따랐으며, 한편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북, 전남 등은 혁신제품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표 3-8〉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제품개발여부

구분	혁신제품 개발	개발없음
전체	44 (19.38%)	183 (80.62%)
서울	6 (25.00%)	18 (75.00%)
부산	2 (40.00%)	3 (60.00%)
대구	1 (10.00%)	9 (90.00%)
인천		1 (100.00%)
광주		14 (100.00%)
대전		22 (100.00%)
울산	4 (28.57%)	10 (71.43%)
세종		1 (100.00%)
경기	4 (13.33%)	26 (86.67%)
강원	13 (68.42%)	6 (31.58%)

구분	혁신제품 개발	개발없음
충북		6 (100.00%)
충남	5 (22.73%)	17 (77.27%)
전북		4 (100.00%)
전남		9 (100.00%)
경북	2 (8.70%)	21 (91.30%)
경남	1 (7.14%)	13 (92.86%)
제주	6 (66.67%)	3 (33.33%)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제품개발여부 분포(단위:건)



□ 추진체계 분석

○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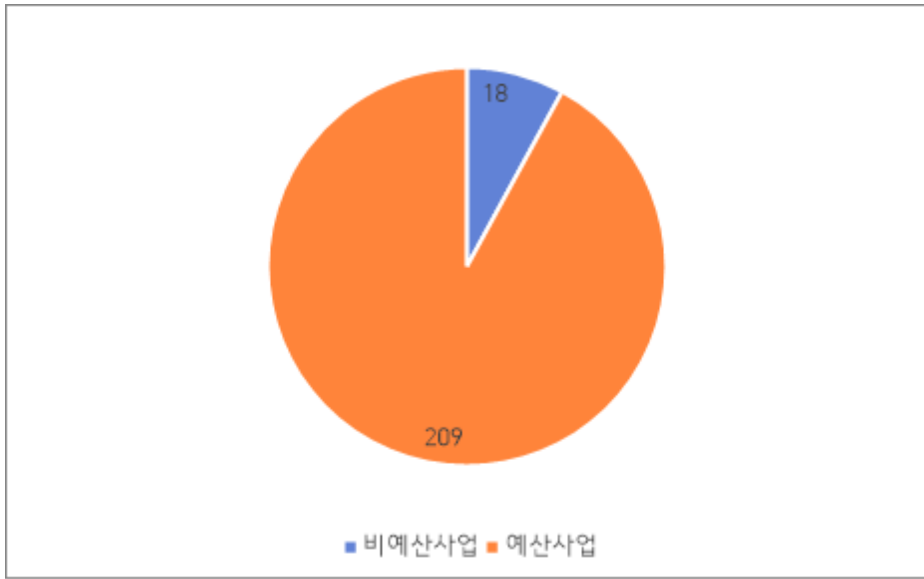
- (예산항목) 예산항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예산사업은 209건으로, 전체의 92.08%를 차지하였으며 비예산 사업은 19건으로 7.92%를 차지하였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비예산 사업이 전체 리빙랩 사업의 44.4%에 해당하는 4건을 보이며 가장 많은 건수와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아래로 충남 3건(13.53%), 경기 3건(10.00%), 경남 3건(21.42%), 대구 2건(20.00%), 부산 1건(20.00%) 등이 있었으며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은 모든 리빙랩 사업에 예산이 책정되어있었음
- (예산범위)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의 예산범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5천만 원 미만”이 58.85%, “5천만 원~1억 원”이 16.75%, “1억 원~5억 원”이 21.53%, “5억 원~10억 원”이 3.83%, “10억 원~20억 원”이 2.87%, “20억 원 이상”이 4.78%였음
- 지역별로 보았을 때, 부산(75.00%), 대구(62.50%), 인천(100%), 강원(68.42%), 충북(75.00%), 충남(63.16%), 전북(100%), 전남(88.89%) 등에서 “5천만 원 미만”의 비율이 전국 평균(58.85%)보다 높게 나타나며 해당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리빙랩이 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광주(42.86%), 대전(45.45%), 경남(45.45%), 제주(80.00%) 등은 “1억 원~5억 원” 규모의 리빙랩을 전국 평균(21.5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음
-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리빙랩의 경우, 경북(10억 원~ 20억 원 2건, 20억 원 이상 7건)에서 가장 많은 건수와 높은 비율을 보이며 경북 지역에서 다수의 대규모 리빙랩 사업이 계획 및 집행 중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표 3-9〉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예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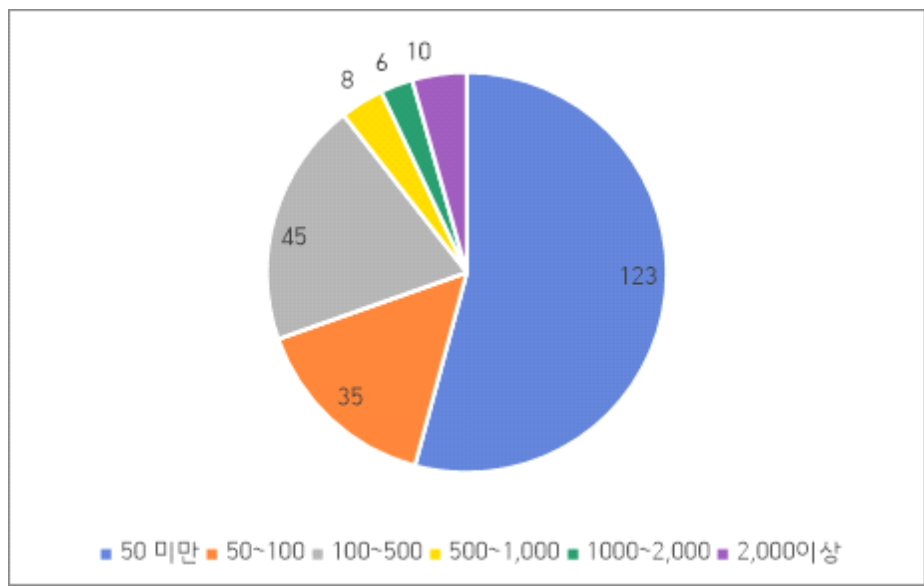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항목		예산범위					
	비예산 사업	예산 사업	50 미만	50 ~100	100 ~500	500 ~1,000	1,000 ~2,000	2,000 이상
전체	18 (7.92%)	209 (92.08%)	123 (58.85%)	35 (16.75%)	45 (21.53%)	8 (3.83%)	6 (2.87%)	10 (4.78%)
서울	-	24 (100%)	11 (45.83%)	6 (25.00%)	4 (16.67%)	3 (12.50%)		
부산	1 (20.0%)	4 (80.00%)	3 (75.00%)	1 (25.00%)				
대구	2 (20.0%)	8 (80.00%)	5 (62.50%)	1 (12.50%)	1 (12.50%)		1 (12.50%)	
인천	-	1 (100%)	1 (100%)					
광주	-	14 (100%)	7 (50.00%)	1 (7.14%)	6 (42.86%)			
대전	-	22 (100%)	12 (54.55%)		10 (45.45%)			
울산	-	14 (100%)	7 (50.00%)		4 (28.57%)		1 (7.14%)	2 (14.29%)
세종	-	1 (100%)					1 (100%)	
경기	3 (10.0%)	27 (90.00%)	8 (29.63%)	11 (40.74%)	4 (14.81%)	2 (7.41%)	1 (3.70%)	1 (3.70%)
강원	-	19 (100%)	13 (68.42%)	2 (10.53%)	3 (15.79%)	1 (5.26%)		
충북	2 (33.3%)	4 (66.67%)	3 (75.00%)	1 (25.00%)				
충남	3 (13.53%)	19 (86.47%)	12 (63.16%)	5 (26.32%)	2 (10.53%)			
전북	-	4 (100%)	4 (100%)					
전남	-	9 (100%)	8 (88.89%)	1 (11.11%)				
경북	-	23 (100%)	8 (34.78%)		4 (17.39%)	2 (8.70%)	2 (8.70%)	7 (30.43%)
경남	3 (21.42%)	11 (78.58%)	4 (36.36%)	2 (18.18%)	5 (45.45%)			
제주	4 (44.44%)	5 (55.56%)		1 (20.00%)	4 (80.00%)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예산사업/비예산 사업 분포(단위:건)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예산분포(단위:건)



○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의 예산출처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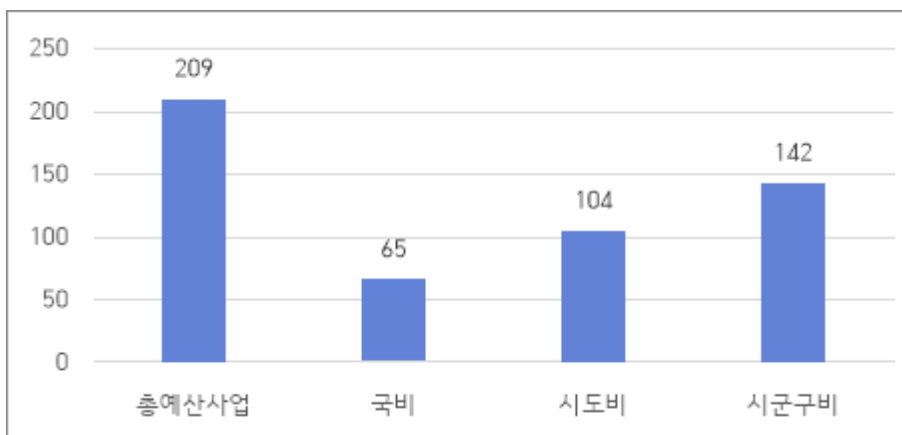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리빙랩 사업 예산이 국비로부터 오는 리빙랩은 65건으로 전체의 31.10%, 시도비는 104건으로 전체의 49.76%, 시군구비는 142건으로 전체의 67.94%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산의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종(1건, 100.00%), 강원(78.95%), 충남(68.42%)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도비의 경우, 리빙랩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종, 충북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시도비 예산의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천(1건, 100.00%), 경남(10건, 90.01%), 제주(5건 100.00%)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군구비의 전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듯 부산(3건, 75.00%), 광주(11건, 78.57%), 대전(16건, 72.83%), 경기(21건, 77.78%), 강원(19건, 100.00%), 충북(4건, 100.00%), 전북(4건, 100.00%), 전남(9건, 100.00%), 경북(21건, 91.30%), 경남(11건, 100.00%)등 시군구비 위주로 리빙랩이 운영되는 지역이 가장 많았음

〈표 3-10〉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예산출처

구분	예산사업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전체	209	65 (31.10%)	104 (49.76%)	142 (67.94%)
서울	24		15 (62.50%)	8 (33.33%)
부산	4		1 (25.00%)	3 (75.00%)
대구	8	2 (25.00%)	5 (62.50%)	1 (12.50%)
인천	1		1 (100.0%)	
광주	14	2 (14.29%)	9 (64.29%)	11 (78.57%)

구분	예산사업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대전	22	7 (31.82%)	10 (45.45%)	16 (72.73%)
울산	14	3 (21.43%)	7 (50.00%)	5 (35.71%)
세종	1	1 (100.00%)		
경기	27	8 (29.63%)	9 (33.33%)	21 (77.78%)
강원	19	15 (78.95%)	14 (73.68%)	19 (100.00%)
충북	4			4 (100.00%)
충남	19	13 (68.42%)	2 (10.53%)	9 (47.37%)
전북	4	2 (50.00%)	2 (50.00%)	4 (100.00%)
전남	9		4 (44.44%)	9 (100.00%)
경북	23	12 (52.17%)	10 (43.48%)	21 (91.30%)
경남	11		10 (90.91%)	11 (100.00%)
제주	5		5 (100.00%)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예산 출처(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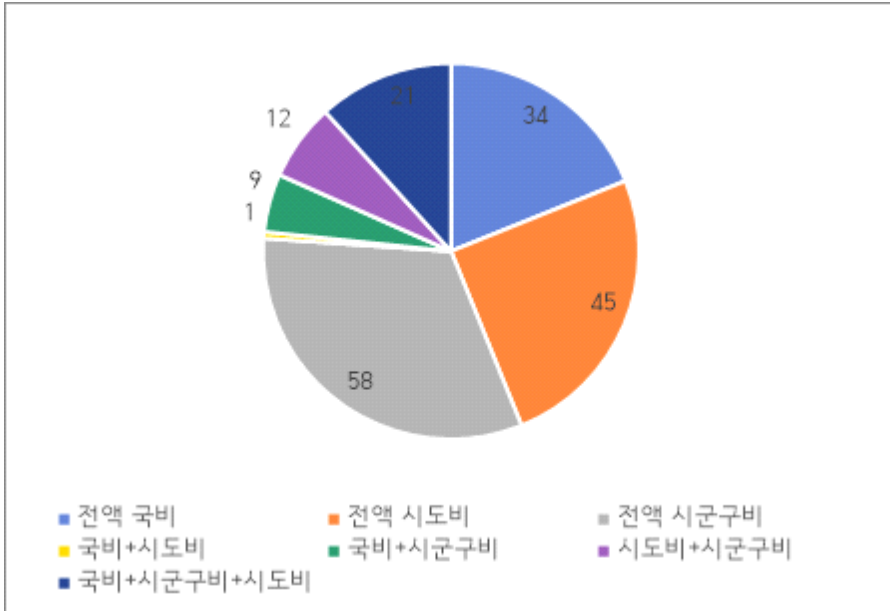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의 예산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액 시군구비로 리빙랩 예산을 구성하는 경우가 58건(27.75%)으로 가장 많았고 전액시도비(45건, 21.53%), 전액국비(16.27%) 등이 뒤를 따랐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리빙랩 예산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지역은 전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세종(1건, 100.00%), 강원(14건, 73.68%), 충남(52.63%) 지역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액시도비로 예산을 충당하는 리빙랩 사업의 분포는 많은 지역에서 골고루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15건, 62.50%), 대구(5건, 62.50%), 울산(6건, 42.68%), 제주(5건, 100.00%)등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전액 시군구비로 예산을 충당하는 리빙랩 사업은 전체 비중에서도 알 수 있듯 전체 리빙랩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로 보아도 부산(3건, 75.00%), 대전(9건, 40.91%), 경기(14건, 51.85%), 충북(4건, 100.00%), 전남(5건, 55.56%) 순임
- 특히 경남의 경우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가 모두 결합되어 예산을 구성하는 리빙랩사업이 10건으로 전체의 90.91%를 차지하고 있음

〈표 3-11〉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예산구성

구분	전액 국비	전액 시도비	전액 시군구비	국비 +시도비	국비 +시군구비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 시군구비 +시도비
전체	34 (16.27%)	45 (21.53%)	58 (27.75%)	1 (0.48%)	9 (4.31%)	12 (5.74%)	21 (10.05%)
서울	1 (4.17%)	15 (62.50%)	7 (29.17%)		1 (4.17%)		
부산		1 (25.00%)	3 (75.00%)				
대구	2 (25.00%)	5 (62.50%)	1 (12.50%)				
인천		1 (100%)					
광주		3 (21.43%)	4 (28.57%)		1 (7.14%)	5 (35.71%)	1 (7.14%)
대전	3 (13.64%)	3 (13.64%)	9 (40.91%)			3 (13.64%)	4 (18.18%)
울산	2 (14.29%)	6 (42.68%)	5 (35.71%)	1 (7.14%)			
세종	1 (100%)						
경기	1 (3.70%)	5 (18.52%)	14 (51.85%)		3 (11.11%)		4 (14.81%)
강원	14 (73.68%)		4 (21.05%)		1 (5.26%)		
충북			4 (100%)				
충남	10 (52.63%)	1 (5.26%)	5 (26.32%)		3 (15.79%)		
전북			2 (50.00%)				2 (50.00%)
전남		1 (11.11%)	5 (55.56%)			3 (33.33%)	
경북	1 (4.35%)	1 (4.35%)	6 (26.09%)		6 (26.09%)	4 (17.39%)	5 (21.74%)
경남						1 (9.09%)	10 (90.91%)
제주		5 (100%)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예산 구성분포(단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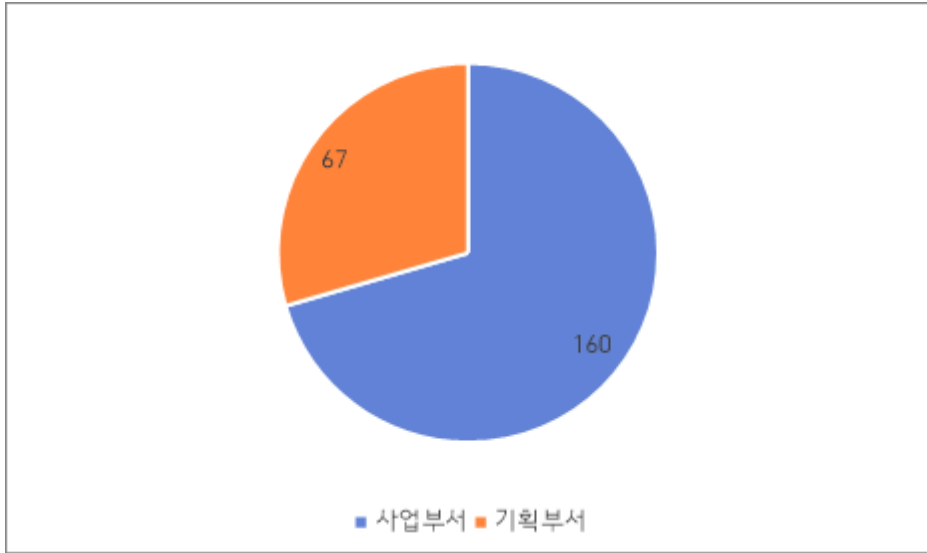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의 소관부서는 다음과 같음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부서가 리빙랩 사업을 소관하는 경우는 전체의 70.48%에 속하는 160건이며 기획부서가 리빙랩 사업을 소관하는 경우가 전체 29.52%에 속하는 67건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사업부서와 기획부서의 비율이 보이는 경향을 살펴보면, 전체 비율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 대부분의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서 사업부서 소관 리빙랩이 기획부서 소관 리빙랩보다 많았으며 경기(17건, 56.67%), 전남(5건, 55.56%)에서만 기획부서 소관 리빙랩이 더 많았음

〈표 3-12〉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소관부서

구분	사업부서	기획부서
전체	160 (70.48%)	67 (29.52%)
서울	18 (75.00%)	6 (25.00%)
부산	3 (60.00%)	2 (40.00%)
대구	4 (40.00%)	6 (60.00%)
인천	1 (100%)	
광주	8 (57.14%)	6 (42.86%)
대전	15 (68.18%)	7 (31.82%)
울산	14 (100%)	
세종	1 (100%)	
경기	13 (43.33%)	17 (56.67%)
강원	17 (89.47%)	2 (10.53%)
충북	2 (33.33%)	4 (66.66%)
충남	20 (90.91%)	2 (9.09%)
전북	4 (100%)	
전남	4 (44.44%)	5 (55.56%)
경북	21 (91.30%)	2 (8.70%)
경남	10 (71.43%)	4 (28.57%)
제주	5 (55.56%)	4 (44.44%)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 소관부서 분포(단위:건)



□ 사업기간

-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기간은 다음과 같음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두고 시행된 리빙랩이 61건(26.87%), “6~12개월”이 90건(39.65%), “12~24개월”이 40건(17.62%), “24개월 이상”이 36건(15.86%)임
 - 지역별로 보았을 때, 부산(2건, 40.00%), 대구(7건, 70.00%), 광주(11건, 78.57%), 대전(59.09%), 경기(16건, 53.33%), 전북(2건, 50.00%), 전남(5건, 55.56%), 경남(10건, 71.43%), 제주(5건, 55.56%) 등에서 “6~12개월”동안 진행된 리빙랩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8건, 57.14%), 강원(13건, 68.42%), 충남(14건, 63.64%)등은 “6개월 미만”에 속하는 리빙랩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 지역이 12개월 미만의 비교적 단기간 리빙랩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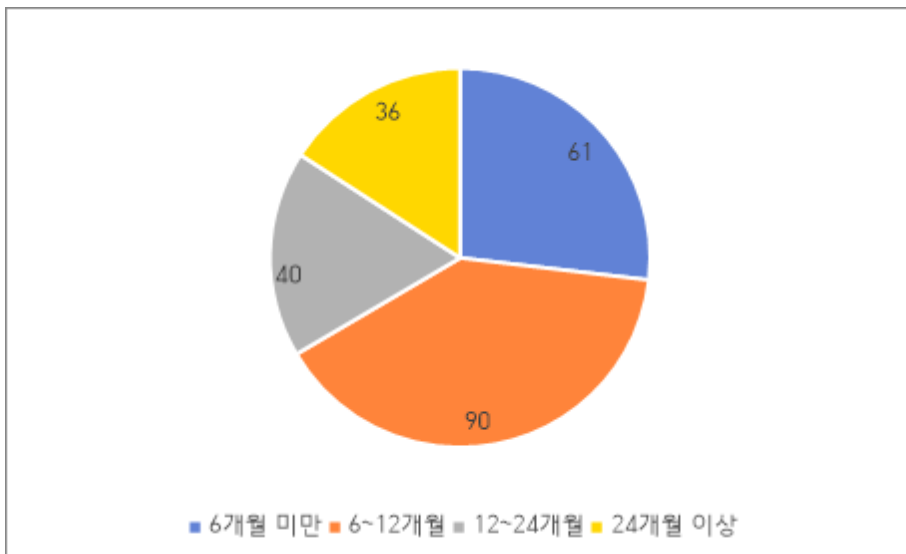
- 그밖에 서울(11건, 45.83%)은 “12~24개월”, 경북(16건, 69.57%)은 “24개월 이상” 리빙랩 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
- 12개월 이상 시행 및 시행이 계획된 리빙랩은 76건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수준으로 나타나며 리빙랩의 최종적인 목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마저도 서울(13건, 54.16%), 충북(4건, 66.66%), 경북(19건, 82.61%) 등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리빙랩이 밀집해있는 형태를 보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리빙랩 사업이 단기적인 사업 혹은 공모사업적 특징을 지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표 3-13〉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기간

구분	6개월 미만	6~12개월	12~24개월	24개월 이상
전체	61 (26.87%)	90 (39.65%)	40 (17.62%)	36 (15.86%)
서울	2 (8.33%)	9 (37.50%)	11 (45.83%)	2 (8.33%)
부산	1 (20.00%)	2 (40.00%)	1 (20.00%)	1 (20.00%)
대구	1 (10.00%)	7 (70.00%)	1 (10.00%)	1 (10.00%)
인천			1 (100.00%)	
광주	1 (7.14%)	11 (78.57%)	2 (14.29%)	
대전	5 (22.73%)	13 (59.09%)		4 (18.18%)
울산	8 (57.14%)		4 (28.57%)	2 (14.29%)
세종			1 (100.00%)	
경기	8 (26.67%)	16 (53.33%)	2 (6.67%)	4 (13.33%)

구분	6개월 미만	6~12개월	12~24개월	24개월 이상
강원	13 (68.42%)	3 (15.79%)	3 (15.79%)	
충북	2 (33.33%)		2 (33.33%)	2 (33.33%)
충남	14 (63.64%)	3 (13.64%)	3 (13.64%)	2 (9.09%)
전북	1 (25.00%)	2 (50.00%)	1 (25.00%)	
전남		5 (55.56%)	4 (44.44%)	
경북		4 (17.39%)	3 (13.04%)	16 (69.57%)
경남	1 (7.14%)	10 (71.43%)	1 (7.14%)	2 (14.29%)
제주	4 (44.44%)	5 (55.55%)		

지방자치단체 리빙랩 사업기간 분포(단위:건)



3. 현황분석 결과

□ 지역별로 리빙랩 수행의 편차가 존재함

-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격차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필연적으로 지역 내 시민사회, 주민, 지자체의 역량의 격차를 야기함
 - 수도권 및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의 리빙랩 사업예산은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음
 - 평균수행기간 또한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비수도권에서는 충분한 예산 공급과 안정적인 리빙랩 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유형별 특성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음
 - 지역 내 리빙랩 수행이 가능한 혁신역량에 대한 파악, 역량의 지역적 격차를 고려한 문제해결의 가능성 타진에서 출발해야함
 - 고령화로 인해 사회혁신의 참여자의 풀(pool)이 제한적인 농촌지역, 참여가능한 사람들은 많으나 잦은 인구이동으로 지역에 대한 문제인식이 희박한 도시지역 등과 같이 지역별로 사회혁신자원의 편차가 크지만 실제 지역특성별로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의제가 충분히 발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 내 민간혁신 역량을 수용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까지 연결 짓기 위해선 지자체의 혁신역량에 대한 파악과 관리전략마련이 시급

□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

- 상당수의 리빙랩이 마을 의제발굴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리빙랩의 단계중 가장 첫 번째 “탐색” 단계에 해당하며 의도하던 문제해결의 단계까지는 많은 절차적 이행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관계 자체가, 또는 리빙랩을 통해 해결된 지역문제, 삶의 질 개선이 성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빙랩을 통해 달성하는

성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리빙랩은 새로운 거버넌스(플랫폼)을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지역단위로 확장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마을의제 발굴의 최종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워짐
- “마을의제발굴”이 완전한 리빙랩 유형으로 인정받고 그로 인한 성과가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인 관계 자체를 성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협력관계로 인해 맺어진 결실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에 리빙랩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주민참여제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빙랩의 ‘실험성’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이를 판단하는 평가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지나치게 많은 이해관계자로 인한 관리부담의 발생

- 리빙랩 대상이 협업을 강조함으로 관리범위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함
- 주민의 정책참여를 모두 리빙랩으로 간주하는 경우, 리빙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음
 - 리빙랩의 무분별한 양산이 아닌 정확한 개념적 정의를 통하여 리빙랩만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부각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함
 - 지역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리빙랩을 전부 리빙랩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이슈로, 과학기술연구진이나 대학이 주도하는 지역 리빙랩과 주민참여제도와의 차별적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추진 방식의 한계) 공공부문 주도의 공모사업의 부수적으로 포함된 일회성 프로젝트의 속성과 분절적 전달체계에 따른 시너지 창출이 어려울 수 있음
 - 본질적으로 리빙랩은 “참여”와 “기술”의 결합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있는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지속적인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협력체계의 유지가 필수적임

- 즉 리빙랩의 설계, 집행, 이후의 성과관리까지의 프로세스별로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가 명확해야하며 이러한 체계를 관리하고 운영할 역량이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 추진·운영중인 대부분의 리빙랩은 중앙주도, 지자체주도의 하향적 공모사업⁵⁾에 포함되어 있어 리빙랩을 통해 구축된 거버넌스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동력을 상실함
- 특히 지역 내 다양한 리빙랩 사업들이 수행되지만 분절적인 추진체제로 인해 사업의 통합적 추진이 어려워 민간자원의 시너지 창출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됨
- 현재의 공모사업적 특성을 지니는 리빙랩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거버넌스의 실현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리빙랩을 개발 및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수적임

○ **(성과관리의 어려움)** 범위의 포괄성과 추진체계의 분절성은 관리체계(성과 지표, 평가체계)구축의 어려움을 초래함

-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리빙랩 사업이 원래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역성’을 가지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리빙랩은 과도하게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체계가 분절되어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업을 주민주도로 실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 혹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차이가 극심하다고 여겨지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모든 지역의 상황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의 구축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5) 지난 5-6년 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이 주축이 되어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시민섹터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리빙랩이 시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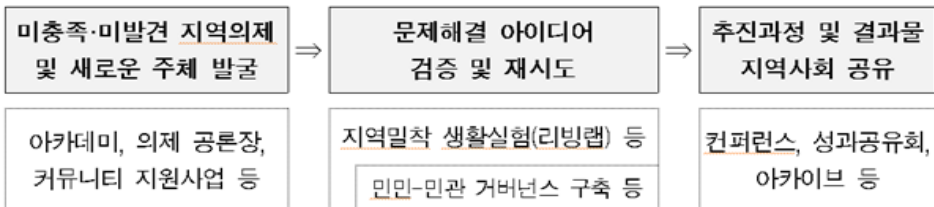
제3절 리빙랩 유형화 및 유형분석

1. 유형화 기준

1) 프로세스에 근거한 리빙랩 유형화

- 프로세스에 근거한 리빙랩의 유형화는 앞서 논의한 서비스 디자인 씽킹 (Service Design Thinking)과 현재 행정안전부 소통협력공간에서 분류하고 있는 리빙랩 유형기준을 결합한 기준임
 - 소통협력공간은 리빙랩의 실행을 위한 물리적 공간과 관리체계를 집적화한 곳으로 지역문제의 발견, 문제에 근거한 해결방식, 성과확산의 다음의 프로세스로 운영됨

〈그림 3-2〉 소통협력공간의 프로세스별 역할



자료: 행정안전부 소통협력공간 설명자료(2021.5)

- 본 연구는 서비스 디자인 씽킹과 리빙랩의 속성, 리빙랩이 시행되고 있는 관리되고 있는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여 다음의 유형화 기준을 설정함

〈표 3-14〉 리빙랩의 유형별 주요 특징

프로세스	관찰	실험	협력	공유 및 환류
특징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의 등장 지역의 문제가 정의되는 것	관찰을 통해 정의된 지역의 문제가 적정수단을 통해 해결되는지에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자원이 결합하고 협력하는 것	지역사회가 문제해결의 전반적 과정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프로세스	관찰	실험	협력	공유 및 환류
		대한 가설검증과정		지원이 가능한 상황
키워드	문제의 발견 주민의 유입	가설검증 실제 문제해결의 시도	협력, 확장	기록, 확장, 가시적 성과, 정책화, 정책인지
주요목표	주민홍보 참여주체의 확대 문제정의과정에 주민이 등장하는지 여부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과 공론장의 마련 문제해결의 규칙 실험과정과 결과의 기록관리	협력이 가능한 물리적 공간의 마련 실험결과 외연확대 협력공간의 공고화	가시적 성과의 발굴 성과의 축적과 문제해결수단과 주체의 외연확대
성과관리의 주안점	기존 참여주체와의 기득권 조정 주민의 문제의식을 발굴하기 위한 기획과 관리 기존에 존재하던 문제와 새롭게 발굴한 문제간 우선순위의 배분사항	문제해결수단의 발굴 실패가능성의 인정	협력공간조성 협력과정의 갈등조정 및 관리 협력의 구체적 결과물과 정책성과	성과의 측정, 성과의 홍보, 지속가능한 성과창출의 자원연계
유관지표	참여주민수 발굴의제수	실험횟수 리빙랩의 규모와 참여자수 지역문제개선사항	협력공간의 조성건수 정책건수 및 활용방안	기록과 연구생산물 언론보도 및 자체관리

□ 관찰

-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혹은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한 단계로 가장 최초의 단계에 해당함

□ 실험

- 관찰을 통해 발견한 해결방안과 가치 실현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증명하는 단계로 문제해결 수단이 결합되고, 과학기술이 결합됨

□ 협력

- 개인, 단체, 기관 지역 등 도움이 필요한 곳과 도와주는 연결하는 단계로 물리적(온오프라인)공간을 통해 주체들이 연결되는 공고화 단계

□ 공유

- 관찰과 실험, 협력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함께 활용하는 단계로 성과의 지속적 창출을 위한 정책화와 리빙랩 프로세스 전반의 기록 관리가 여기에 해당함

2) 리빙랩 유형별 성격

- 단독유형: 비교적 쉽게 운영되며 주체의 역할이 뚜렷하지만 해당 단계에 때물되는 경우, 리빙랩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특히 관찰단계에만 머무르는 경우 형식적 실행의 문제 존재)
- 복합유형: 모든 프로세스를 다 고려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관리비용이 높고 성과에 대한 제도적 연결, 확장에 관련된 지자체/사업주체의 노력이 필요함

〈표 3-15〉 리빙랩 유형별 성격

리빙랩 유형		성격	리빙랩 성과	주안점	프로세스 관리필요성
단독	관찰	문제발굴	의제	발굴된 문제의 성격과 발굴주체의 보편성, 지속가능한 문제발굴통로 확보	-
	실험	실험	실험결과	실험과정의 혁신성, 실패에도 계속되는 시도	-
	협력	공간, 거버넌스	인프라	조성된 공간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채우며 연대의 틀을 만드는 것	높음

리빙랩 유형	성격	리빙랩 성과	주안점	프로세스 관리필요성	
공유	정책, 확산, 홍보	정책, 사업	결과의 활용과 제도화	-	
복합	관찰+실험	발굴된 문제의 실험적 적용	의제별 성과	발굴의제별 성과의 확산과 자원연계	높음
	관찰+협력	문제중심의 주민연대	의제의 발굴과 의제에 동의하는 자원연대	의제해결할 실험적 시도, 실험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
	관찰+ 공유	발굴의제의 공식화	의제의 정책화	발굴된 문제가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채택	높음
	관찰+실험+협력	실험결과의 개선을 위한 외부자원과의 연대와 협력체계	의제별 성과의 확산이 가능한 연대, 네트워크	초기 구축된 문제해결자원의 제도적 전환	-
	관찰+실험+공유	가시적성과	의제별 성과의 정책화	문제해결자원의 확장 문제해결방식의 일반화	-
	관찰+실험+협력+공유	완결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시스템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선순환 관리	-
	실험+공유	실험결과의 즉각적인 정책도입	실험결과의 사업화, 정책화	실험에 사용될 의제가 지역의 고유한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 외부자원연계 방식검토	높음
	실험+협력	실험결과와 해결자원간 연계	실험결과, 연대	실험에 사용될 의제가 지역의 고유한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	높음
	실험+협력+공유	외부의 의제로 실험실시	실험결과, 연대, 사업화 및 정책화	실험에 사용될 의제가 지역의 고유한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	높음
	협력+공유	자원의 결합을 위한 공간	네트워크, 인프라	공간의 지속적인 활용	높음

2. 유형화의 적용 및 결과

□ 유형별 분류

○ 리빙랩의 유형별 분류 및 분포는 아래와 같음

- (단독유형) 문제발굴의 성격을 가진 관찰이 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의 37.50%를 차지하는 비중이고, 공간 및 거버넌스의 성격을 가진 협력이 17건(7.59%), 나머지 실험과 공유가 각각 2건(0.89%)으로 나타남
- (복합유형) 두 유형이 복합된 경우, 관찰+실험이 64건(28.5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관찰+협력(15건, 6.70%), 실험+협력(3건, 1.34%), 관찰+공유(2건, 0.89%), 협력+공유(1건, 0.45%)등이 있었고 실험+공유 유형은 없었음
- 세 유형이 복합된 경우, 관찰+실험+협력이 29건(12.95%)으로 가장 많았고, 관찰+실험+공유, 관찰+협력+공유가 각각 1건(0.45%) 씩 있었으며 실험+협력+공유는 없었음
- 네 유형 모두 복합된 경우는 3건으로 전체의 1.34%를 차지함

〈표 3-16〉 리빙랩의 유형별 분류

리빙랩 유형		성격	계	비중
단독 유형	관찰	문제발굴	84	37.50%
	실험	실험	2	0.89%
	협력	공간, 거버넌스	17	7.59%
	공유	정책, 확산, 홍보	2	0.89%
복합 유형	관찰+실험	발굴된 문제의 실험적 적용	64	28.57%
	관찰+협력	문제중심의 주민연대	15	6.70%
	관찰+공유	발굴의제의 공식화	2	0.89%
	실험+협력	실험결과와 해결자원간 연계	3	1.34%
	실험+공유	실험결과의 즉각적인 정책도입	-	-
	협력+공유	자원의 결함을 위한 공간	1	0.45%
	관찰+실험+협력	실험결과의 개선을 위한 외부자원과의 연대와 협력체계	29	12.95%

리빙랩 유형	성격	계	비중
관찰+실험+공유	가시적성과	1	0.45%
관찰+협력+공유	외부의 의제로 실험실시	1	0.45%
실험+협력+공유	외부의 의제로 실험실시	-	-
관찰+실험+협력+공유	완결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3	1.34%

□ 지역별 리빙랩 유형분포

○ 지역별 리빙랩 유형분포는 아래와 같음

- (서울) 관찰+실험 유형이 14건(60.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찰(5건, 23.74%), 협력(3건, 13.04%) 등이 뒤를 이었음
- (부산) 관찰+실험 유형이 3건(60.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찰(2건, 40.00%)이 뒤를 이었음
- (대구) 관찰+실험 유형이 3건(30.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찰+실험+협력+공유 유형이 2건(20.00%)으로 뒤를 이었음
- (인천) 관찰+실험 유형이 1건(100%) 있었음
- (광주) 관찰 유형이 7건(50.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찰+실험 유형, 관찰+실험+협력 유형이 각각 3건(21.43%)으로 뒤를 이었음
- (대전) 관찰+실험 유형이 3건(30.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찰+실험+협력+공유 유형이 2건(20.00%)으로 뒤를 이었음
- (울산) 관찰 유형이 5건(3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찰+실험 유형, 관찰+협동 유형이 각각 3건(21.43%)으로 뒤를 이었음
- (세종) 관찰+실험 유형이 1건(100%) 있었음
- (경기) 관찰 유형이 14건(4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찰+실험 유형이 11건(36.67%)으로 뒤를 이었음
- (강원) 관찰+실험+협력 유형이 10건(5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찰, 관찰+실험 유형 등이 각각 3건(16.67%)으로 뒤를 이었음
- (충북) 관찰 유형이 5건(8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찰+실험 유형이 1건(16.67%)으로 뒤를 이었음

- (충남) 관찰+실험+협력 유형이 12건(57.14%)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찰 유형이 5건(28.81%), 관찰+실험 유형이 4건(19.05%)으로 뒤를 이었음
- (전북) 관찰 유형이 2건(50.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험, 협력 유형이 각각 1건(25.00%)씩으로 뒤를 이었음
- (전남) 관찰 유형이 3건(3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찰+실험 유형이 2건(22.22%)으로 뒤를 이었음
- (경북) 관찰 유형이 8건(3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력 유형이 7건(30.43%), 관찰+실험, 관찰+협력 유형 등이 각각 3건(13.04%)으로 뒤를 이었음
- (경남) 관찰+실험 유형이 6건(4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찰유형이 5건(35.71%), 협력 유형이 3건(21.43%) 등으로 뒤를 이었음
- (제주) 관찰 유형이 6건(6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찰+실험 유형이 2건(22.22%)으로 뒤를 이었음

〈표 3-17〉 지역별 리빙랩 유형분포

광역	단독				복합유형										
	관찰	실험	협력	공유	관 + 실	관 + 협	관 + 공	실 + 협	실 + 공	협 + 공	관 + 실 + 협	관 + 실 + 공	관 + 협 + 공	실 + 협 + 공	관 + 실 + 협 + 공
계	223	84	2	17	2	64	15	2	3	-	1	29	1	1	3
서울	23	5 (23.74%)	-	3 (13.04%)	-	14 (60.87%)	1 (4.35%)	-	-	-	-	-	-	-	-
부산	5	2 (40.00%)				3 (60.00%)		-		-					
대구	10	1 (10.00%)		1 (10.00%)	1 (10.00%)	3 (30.00%)		1 (10.00%)		-	1 (10.00%)				2 (20.00%)
인천	1					1 (100%)		-		-					
광주	14	7 (50.00%)				3 (21.43%)		-		-		3 (21.43%)	1 (7.14%)		
대전	21	13 (61.90%)				5 (23.81%)	3 (14.29%)	-		-					
울산	14	5 (35.71%)				3 (21.43%)	3 (21.43%)	-		-		3 (21.43%)			
세종	1					1 (100%)		-		-					
경기	30	14 (46.67%)	1 (3.33%)			11 (36.67%)	2 (6.67%)	-	1 (3.33%)	-		1 (3.33%)			

광역	계	단독				복합유형														
		관찰	실험	협력	공유	관 + 관	관 + 협	관 + 유	관 + 신	관 + 신 + 협	관 + 신 + 유	관 + 협 + 유	신 + 협 + 유	신 + 유	신 + 협	신 + 유	신 + 협 + 유			
강원	18 (16.67%)	3 (16.67%)		1 (5.56%)		3 (16.67%)	1 (5.56%)	-		10 (55.56%)	-	-	-	-	-	-	-	-	-	1 (11.11%)
충북	6 (83.33%)	5 (83.33%)				1 (16.67%)		-			-	-	-	-	-	-	-	-	-	
충남	21 (23.81%)	5 (23.81%)				4 (19.05%)		-		12 (57.14%)	-	-	-	-	-	-	-	-	-	
전북	4 (50.00%)	2 (50.00%)	1 (25.00%)					-			-	-	-	-	-	-	-	-	-	
전남	9 (33.33%)	3 (33.33%)		1 (11.11%)		1 (11.11%)	2 (22.22%)	-			-	-	-	-	-	-	-	-	-	
경북	23 (34.78%)	8 (34.78%)		7 (30.43%)		3 (13.04%)	3 (13.04%)	-			-	2 (8.70%)	-	-	-	-	-	-	-	
경남	14 (35.71%)	5 (35.71%)		3 (21.43%)		6 (42.86%)		-			-	-	-	-	-	-	-	-	-	
제주	9 (66.67%)	6 (66.67%)				2 (22.22%)		1 (11.11%)												

3. 소결

- 관 주도의 자생력이 약한 사업들이 다수이거나 리빙랩 프로세스 중 일부만 형식적으로 갖춘 경우가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의 약 45%에 해당하는 리빙랩이 관찰, 실험, 협력, 공유 중 한가지 유형에만 해당하고 있음을 확인함
 - 한 가지 유형에 특화되어있는 리빙랩은 그 역할 및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특별성을 지닐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여지가 큼
 - 네 가지 프로세스 중 두 가지 기능 만을 수행하는 리빙랩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약 85% 가량 되며 전체 프로세스의 절반 정도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지속가능한 리빙랩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으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여지가 큼
 - 3가지 이상의 프로세스를 갖춘 리빙랩은 전체의 약 15%에 불과하였으며 모든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갖춘 리빙랩은 3군데(1.34%)에 불과했음
 - 특히 실험 및 공유 프로세스를 갖춘 리빙랩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 지역별로 리빙랩 유형의 분포가 달라짐
 - 리빙랩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17개 시도 간 유형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기본적으로는 관찰 및 관찰+실험의 형태를 가진 리빙랩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다수였지만 통일된 규칙없이 다양한 형태의 리빙랩 유형 분포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존재하였음
 - 관찰+실험 유형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경남)가 대부분이었으나 관찰 유형 리빙랩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광주,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등도 다수 존재하였으며 특별히 강원과 충남은 관찰+실험+협력 유형이 가장 많았음
- 소통협력공간이 조성된 지자체(춘천, 충남, 제주, 울산, 전북, 대전)의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 비교결과 제시

- 춘천이 거점도시가 되어 소통협력공간이 운영되는 강원과 충남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관찰+실험+협력 유형의 리빙랩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이는 소통협력공간이 운영됨으로 지자체의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협력이 원활해짐에 따라 다양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리빙랩이 생겨난 것으로 여겨짐
- 그 외 지역(제주, 울산, 전북, 대전)은 복합유형의 비중이 더 큰 울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단독유형 리빙랩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소통협력공간이 조성되지 않은 지자체와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리빙랩 프로세스별로 각각의 성과관리의 주안점과 관련지표가 상이한데, 특히 리빙랩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4가지 유형의 복합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성과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됨

제4장

리빙랩 성과분석

제1절 지역역량과 리빙랩 실행 간 불합치 분석

제2절 리빙랩 성과평가 기준의 마련

제1절 지역역량과 리빙랩 실행 간 불합치 분석

1. 분석요소⁶⁾

1) 분석지표

□ 사회경제적 환경요인

- 시민사회의 참여적 속성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여건으로 나뉨
- 지역경제상황: 지역의 경제상황은 지역의 성장과 소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성장지역은 일자리를 기반으로한 행정서비스 수요의 확대되고, 정치·문화·사회 측면의 질적·양적 성장이 가능
 - 지역수준문제의 핵심적인 지표로써 지역의 경제상황이 좋을수록 실험성이 높은 리빙랩 사업, 수익성과 연관된 지역혁신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
- 시민참여기반: 지역 내 사회자본의 수준을 나타내며, 자발적 참여의 기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시민참여기반이 높으면 다양한 리빙랩 사업시행과 더불어 각종 마을기반 사업의 집적화, 완전한 권한이양을 통하여 성공사례를 확산시키는 전략이 타당하고 낮다면 작은규모의 마을단위의 정책실험(리빙랩) 시행, 외부로부터 시민지원프로그램 이수할 필요 존재

□ 지자체 내부 특성

- 제도적인 특성과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속성으로 앞서 언급한 사회혁신, 정부혁신의 개념도식, 사회와 정부의 중첩요인에 부합한 것으로 선정함

6) 최지민(2019) 문제해결형 사회혁신 실현방안에서 고려한 지역역량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제도적 특징과 환경은 경로의존성에 의해 공고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데이터의 수집시점의 문제는 일정부분 해소됨

- 참여제도기반: 조직문화와 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된 요소로, 적극적인 참여 제도의 활용, 주민의 참여가 조직차원에서 허용된 지자체의 속성(정부의 soft-ware)
 - 참여제도 기반이 낮을 때, 사회혁신적인 요소가 지방정부 업무방식으로 전환되지 못하여 민관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 높음. 지방행정혁신을 통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높여주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직접적으로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역량: 자체적으로 지역의 혁신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속성으로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혁신조직의 운영, 사업제정 등이 좌우되며 지방정부 역량이 낮을 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과 외부자원의 연계가 중요함

□ 지역역량 측정기준

〈표 4-1〉 지역역량의 측정

특성 변수	사회경제적 환경요인		지자체 내부 특성	
	지역경제상황	시민참여기반	참여제도 기반(운영양상)	지방정부역량(구조)
분석 지표	경제활동인구수 전년대비취업자증가율 사업체수 전입인구	정보공개청구 건수 환경운동단체수 정치단체수 시민운동단체수 봉사활동등록인원 대학 수 및 대학인구비중	총참여제도수 주민형참여제도건수 정보공개수용건수	시군 총생산 총공무원수 재정자립도 5급이하 실무인력 비중
혁신 기반 주체	기업	주민 및 지역내 자원	지방자치단체	
혁신 영역	사회혁신		정부견인 사회혁신/ 사회견인 정부혁신	정부혁신
사회 문제 해결 방식	자발적인 사회혁신주체에 의한 해결		사회혁신주체들이 공식적 참여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규제 및 공공서비스 통한 직접개입

출처: 최지민(2019)

* 참고: 시민참여 특성중 대학교 수 및 지역내의 연구기반사항에 대한 자료도 구축하였으나 요인 적합성이 기준에 못미쳐 본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함

- 현장에 문제와 해결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가장먼저 선행되어야 함
- 지역 수준에 대한 현황이 정확하게 진단되는 경우, 시민과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적합한 대응(정책설계, 및 향후추진 방향)이 가능함
 - 지역혁신역량은 지역의 혁신주체(지자체, 기업, 주민, 연구기관)의 역량 수준을 기준으로 고-중-저의 분포를 산출하면 맞춤형 혁신추진체계 방안에 대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역맞춤형 접근은 중앙, 지방, 주민 전부에 필요함. 지역 내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면, 외부와 적극적인 자원연계가 필요한데 이는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에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반의 혁신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에게도 중요한 과제임
- 지역유형화는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지표의 패턴을 비교하고, 이에 근거하여 맞춤형 정책수단을 위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 적합함
 - 지역의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평면적으로 나열한 경우, 제도설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직접 발견하기 어렵지만 유형별 파악을 통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국가차원) 전국 차원에서 시급하고 지역 간의 균형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생활 인프라 여건 진단에 기반을 두고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로드맵에 활용할 수 있음
 - (지자체차원) 자신이 속한 유형의 특성에 기반하여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고, 동일한 유형의 지자체 간의 연계 협력유인이 높아지며, 지자체 간 공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함

2) 분석자료

- 분석자료는 2010~2017년 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표를 패널데이터(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로 구축한 뒤, 2017년 단일연도만 분석을 실시함

-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직교회전, varimax)을 통해 다양한 변수의 속성을 단일 값으로 축약함
 - 지역사회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를 비교 가능한 단일한 수치로 환원해야 함
 - 각각의 척도가 다른 경우, 단순 평균을 통한 지표산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통계적 기법이 요구됨
 - 요인분석은 통계학적 과정을 거쳐 잠재개념에 대한 각 문항에 대한 가중치가 상관계수의 형태로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유용함(문춘걸·나성린, 1999)

2. 지역역량에 근거한 유형화 및 유형분포

1) 유형화 기준

- 지역혁신체계(균형발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고자 기초여건과 공간(문제) 범위 4사분면 기준을 함께 적용하되 리빙랩 **주력대상은 2,3사분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함
- 지역의 유형화는 ①지역혁신을 위한 기초여건과 ②공간범위로 구분됨
 - ① (기초여건의 판단) 역량의 고-저는 4분위로 등급화 함(상위 25%이내 : 고, 상위25~50%사이: 중상, 하위 25~50%: 중하, 하위 25%이내: 저)
 - ② (공간/문제범위의 판단) 문제 발생 공간영역을 뜻하며 크기기준 2,3 사분면을 기초자치단체, 1,4분면을 광역 및 국가차원으로 간주함
 - ③ (지역유형의 적용) 2,3사분면에 속하는 기초지자체를 지역혁신의 기초여건의 수준에 따라 유형화하여 적용이 가능함
 - 성공사례 발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1유형(주로 거시적 지표가 양호한 서울 및 경기, 수도권에 해당될 가능성 높음)이고 1유형의 다양한 시도는 추후 국가차원 제도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음

- 2유형의 경우, 수도권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이 해당할 수 있어서 지역유형별 성공사례의 발굴과 확산에 적합한 지역임
- 3과 4유형은 일정부분 지원이 있는 경우, 2사분면으로 진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해당 유형에 대한 판단은 지방행정의 적극적 거버넌스 구조를 의미하는 '참여제도기반'을 적용함
 - * 참여제도기반이 상위 25%이내로 우수한 지역이나 나머지 지표가 다소 미흡한 지역은 3,4유형에 해당함
 - ** 참여제도 기반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방식을 의미하는데 사회경제적 요건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시민협력하며 내부 운영프로세스를 개방하려는 제도적 특성(참여제도)을 반영하고 있음
 - *** 높은 참여기반을 가진 지자체는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외부의 적극적 지원(인력, 예산, 조직원 교육)이 더해진다면 보다 적극적인 민관협력의 실험적 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음

〈표 4-2〉 기초여건 판단 및 유형화기준

유형	지역경제 상황	시민참여 기반	참여제도 기반	지방정부 역량	주요 특징
1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다양한 혁신실험 성공가능 지역 시장성 창출을 위한 기업혁신과 결합 지역단위 혁신의 확산가능
2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다소 높음	기존 참여제도와 지역혁신사업의 결합을 통해 성공사례의 발굴 및 확산 활용한 혁신 시도 가능
3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매우 높음	낮음/ 매우 낮음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혁신인력 충원 및 조직 신설의 효과가 있을 지역
4	낮음/ 매우 낮음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높음	낮음/ 매우 낮음	시민교육을 통한 지역기반의 활동기회 제공 작은 단위의 리빙랩 우선실시(인적교류의 회복)

유형	지역경제 상황	시민참여 기반	참여제도 기반	지방정부 역량	주요 특징
5-1	-	-	낮음/ 매우 낮음	-	지방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경직성 관리필요(지방행정혁신 컨설팅)
5-2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낮음	특히 민관협력 사업 선정에 신중해야 함 지방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경직성 관리필요(지방행정혁신 컨설팅) 국가의 지원과 개입이 매우 필요한 지역
기타	-	-	다소 높음	-	세부역량의 분포를 통해 유사한 유형전략을 적용함 정부의 지자체동기부여 노력이 더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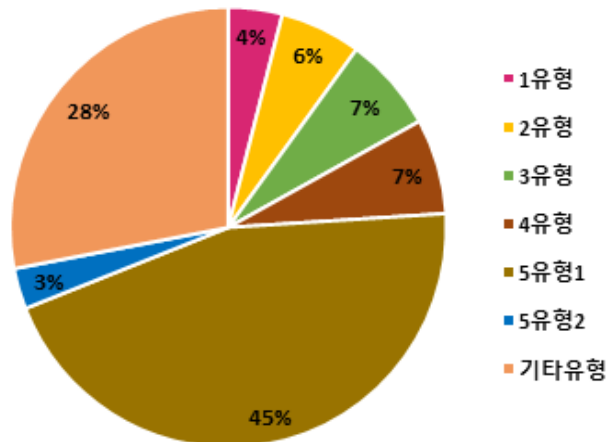
출처: 최지민(2019)

- (기타유형) 참여제도기반이 “중상-다소높음”인 경우, 유형화에 배타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해당 지역들은 “재량운영- 기타유형 지역”으로 명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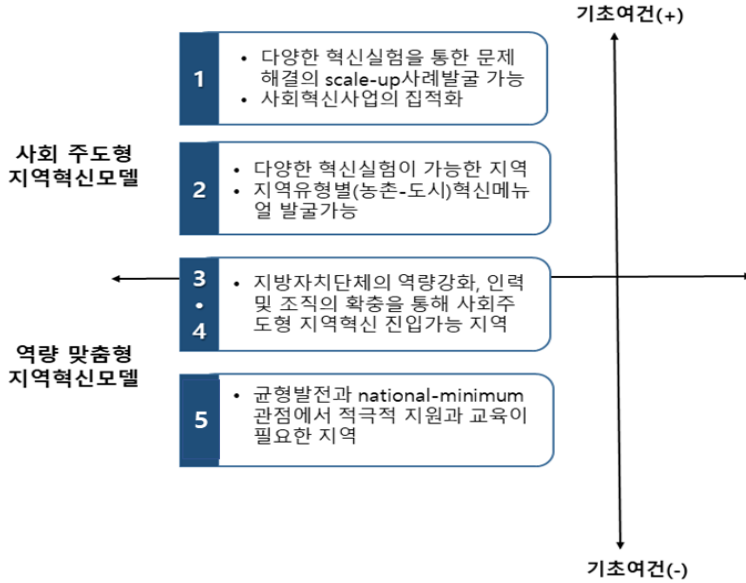
2) 유형분포

〈표 4-3〉 전국 기초지자체 유형별 분포

구분	지역경제 상황	시민참여기반	참여제도 기반	지방정부 역량	총계	비율	
1유형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10	4%	
2유형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다소 높음	14	6%	
3유형	매우높음/ 다소높음	매우높음/ 다소높음	매우 높음	낮음/매우 낮음	15	7%	
4유형	낮음/매우 낮음	낮음/매우 낮음	매우 높음	낮음/매우 낮음	16	7%	
5유형	1	-	-	중하/ 저	-	102	45%
	2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낮음	6	3%
기타유형	-	-	다소 높음	-	63	28%	
총계					226	100%	



〈그림 4-1〉 지역혁신지역의 세부유형(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유형화)



〈그림 4-2〉 유형별 기초지자체 분포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1유형	5-2유형	기타유형	전체

① 사회주도형 혁신(scale-up) 시범지역(1유형)

- 모든 지역역량지표가 상위 25%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그림 4-1>에 제시된 것과 같이 공간범위가 크고 그 성과 확산이 가능한 지역혁신역량을 갖춘 지역임(참고: 부록에 전체유형별로 지자체 세부특성을 제시하였음)
- 이미 진행 중인 다양한 지역사업을 집적화하여 다양한 혁신실험을 통해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는 지역임

〈표 4-4〉 사회주도형 혁신지역 특성

맞춤형전략	지역경제 상황	시민참여 기반	참여제도 적기반	지방정부 역량	전략방향	사분면	유형
사회주도형 혁신 (scale-up 시범지역)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다양한 혁신실험 성공가능 지역 시장성 창출을 위한 기업혁신과 결합 지역단위 혁신의 확산가능(국가차원의 선도적 사업지정대상으로 검토가능)	2	1

출처: 최지민(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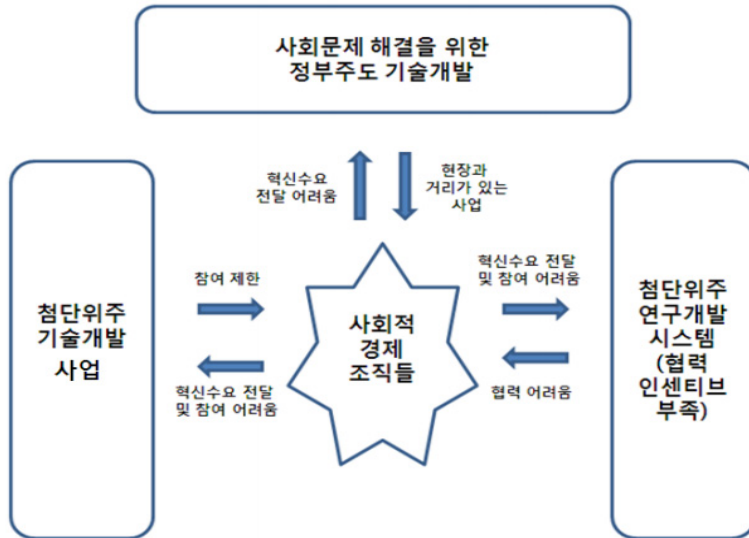
- 사회주도형 지역혁신 지역은 총 10곳으로 현재까지 남양주시만 유일하게 사회혁신 사업이 진행되었음
 - 1유형 중 지역혁신총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원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부평구임
 - 구미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에 해당함
- 반면 다양한 혁신실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2019년 사업의 선정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총 9개임
-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혁신과 더불어 지역혁신과 다양한 연계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발달된 곳의 경우, 특별히 시범사업을 보다 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최저 3, 최대 12(하위 25% 1등급, 상위 25%이내는 4등급 부여, 등급을 점수화함)
- 상위 25% 3등급 기준으로 총 9점 이상일시 상위 25% 수준의 사회적 경제여건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
- (신규사업 적극검토지역) 구미시를 제외한 9개 지역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잘 갖춰져 지역혁신 사업간 시너지가 가능한 곳에 해당함
- (사업집적화 지역) 모든지역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잘 갖춰졌으며 사회적경제 결합에 의한 사회혁신의 확산(scale-up)을 위한 각종 실험이 가능함
- **(사회적 경제와 결합 및 정책수단)** 사회적 경제와 결합은 주로 공동체에 기반한 금융(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의 운영 및 금융컨설팅제도의 운영 등이 될 수 있음
 - 공동체 금융지원 기관은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 지역공동체 기반의 상호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기금 및 은행, 마을 혹은 지역기금, 지역공동체재단(community foundation), 자선재단 등이 있음
 - (참고) 영국에서 태동한 개념으로, 영국의 CDFI는 주로 낙후지역에 자리한 소기업들이나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및 금융 소외계층에게 자금을 투·융자해주는 업무를 하는 비영리 금융기관임. 정부 및 유럽연합(EU) 차원에서의 금융 지원 확대, 씨티(The City)로 대표되는 대형금융기관들과의 협업 또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현재의 마을사업의 경우, 재정지원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경우가 많지만 정부지원금 경직성 등 다양한 한계점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향후 크라우드펀딩, 지역공동체 금융지원기관으로부터의 투·융자 등의 재정지원 등을 통한 자립적 사업구조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풀뿌리 주체의 자립을 위한 기금운영과 더불어 공동체금융확대를 지향하는 컨설팅서비스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며 해결하는 역량과 이를 행정운영과정에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정부조직을 갖추고 있어 사업 규모가 큰 “지역수준의 의

제발굴” 리빙랩과 정책실험 또한 가능함

- 사업체와 연구인력이 밀집한 곳이기 때문에 기술결합을 통한 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임
- 또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사회혁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음 (정부가 직접적으로 해당 조직들에 기술혁신을 연계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들과의 기술혁신 연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임)
- 단 사회적경제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 <그림 4-3>의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할 것임

<그림 4-3>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둘러싼 정부 관계기관의 혁신 관련 환경



자료: 김종선 외 2, 2015

- **(제도적 기반의 마련)** 구체적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법·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주민 간 마을공동체 협약의 촉진·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하는 온·오프라인 허브·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함
- **(다양한 혁신실험의 결합)** 각종 정책패키지 결합을 통해 지역단위 실험과 국가 수준 문제해결을 시도한 예시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인디애나주 고용지원센터: 독립된 지역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지역의 고용 문제를 해결
 - 미국 시애틀 도시기본계획: 시민을 적극 참여시킨 성공적인 매칭펀드를 통하여 시애틀 종합계획 아래 38개의 마을성장계획 수립
 - 캐나다 Citizen Reference Panel: 지역주민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문가와 함께 포럼을 개최, 정책결정자에게 명확한 조언을 제공하고 그 의견이 반영됨
 - 벨기에 City of Things: 도시생활을 즐겁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스마트 기술이 실험 가능한 리빙랩을 만들고 스마트 시티의 원형을 개발함

2) 사회주도형 혁신가능지역 (2유형, 14개 지역)

〈표 4-5〉 사회주도형 혁신지역 특성

맞춤형전략	지역경제 상황	시민참여 기반	참여제도 적기반	지방정부 역량	전략방향	사분면	유형
사회주도형 혁신가능 지역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다소 높음	혁신실험 성공가능 지역 시장성 창출을 위한 기업혁신과 결합가능 주로 지방정부역량 강화전략, 시민교육강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	2	2

출처: 최지민(2019)

7) 관련 법으로는 향후 제정될 (가칭)공동체발전 기본법 체계 하에서 각 부처별 사업을 위한 개별 법 및 특별법의 지속적인 제·개정이 필요함

- 참여의 제도적 기반이 상위 25%이내이며 나머지 세부요인 또한 상위 50% 이내에 해당하는 종합적으로 우수한 지역은 총 14곳임
- 1유형에 비해서는 scale-up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지지만 적절한 각종 혁신실험이 실시가능하며 특히 주민자치와의 결합을 통하여 지방정부 업무방식에 대한 개선전략 혁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
 - 모든 지역역량지표가 상위 25%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그림 4-1>에 제시된 것과 같이 공간범위가 큰 영역이며 그 성과의 확산이 가능함
 - 사회적 경제여건과 결합한 사업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은 총 5곳임

3] 제도견인형 지역혁신(scale-up) 시범지역 (3·4유형)

- 세부혁신역량의 분포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 전략을 택할 수 있음

〈표 4-6〉 제도견인형(scale-up 시범지역) 특성

맞춤형전략	지역경제 상황	시민참여 기반	참여제도적 기반	지방정부 역량	전략방향
제도견인형 지역혁신 (scale-up 시범지역)	-	-	매우높음	-	기존 참여제도와 지역혁신사업의 결합을 통하여 성공사례의 발굴 및 확산 활용한 혁신 시도 가능

출처: 최지민(2019)

〈표 4-7〉 제도견인형(scale-up 시범지역) 모형별 세부특성

맞춤형전략	지역경제 상황	시민참여 기반	참여제도 적기반	지방정부 역량	전략방향	사분면	유형
제도견인형 지역혁신 (scale-up 시범지역)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매우 높음	낮음/ 매우 낮음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혁신인력의 충원 및 조직신설의 효과가 있을 지역 지역유형별(농촌-도시) 성공사례의 축적이 가능한 지역	2/3 경 계 영 역	3

맞춤형전략	지역경제 상황	시민참여 기반	참여제도 적기반	지방정부 역량	전략방향	사분면	유형
	낮음/ 매우 낮음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높음	낮음/ 매우 낮음	시민교육을 통한 지역기반의 활동기회 제공 조직문화개선교육 작은 단위의 리빙랩 우선실시(인적교류의 회복) 지역유형별(농촌-도시)성공사례의 축적이 가능한 지역		4

출처: 최지민(2019)

□ 3유형 세부분석(15개 지역)

- 3유형에 속하는 15개 지역은 시민자원 및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양호하고 지자체 내부의 적극적인 민관활동 지원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반면, 지자체의 자체역량은 다소 부족한 지역임
-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혁신 우수사례 발굴이 가능한 지역
 - 지자체별 사회혁신 전담기구 신설(인력확보, 혁신교육강화)과 같이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함
- 외부 혁신주체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지역혁신 성공사례를 축적할 수 있는 지역
- 지역유형별 우수사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도시형, 농촌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설계 및 집행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함

〈표 4-8〉 3유형 지역유형별 시범지역 특징

지자체 유형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지자체명	대전중구	상주시, 영주시	청주시
일반적 문제상황	좁은 면적 대학가 노후주거지와 구도심 문제	지속적 인구감소지역	넓은 행정면적 지역내 이질적 생활환경 및 큰 격차
지역혁신방향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가	추가
지역혁신전략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부여해서 해당 문제를 잘 해결 수 있는 방향 추가		

출처: 최지민(2019)

□ 4유형 세부분석(16개 지역)

- 4유형에 속하는 16개 지역은 시민자원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지자체가 참여의지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민관활동 지원의 분위기가 조성된 곳임
- 시민자원이 풍부하지는 않으나 지자체의 참여의지가 강하고 적극적 민관활동지원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외부컨설팅, 작은 규모의 리빙랩 사업이 적절한 지역

□ 4 제도견인형 지역혁신 관리지역 (5유형)

〈표 4-9〉 제도견인형 지역혁신관리 모형별 세부특성

맞춤형 전략	지역경제 상황	시민참여 기반	참여제도적 기반	지방정부 역량	전략방향	사분면	유형
지원 및 적극관리 지역	-	-	낮음/ 매우 낮음	-	지방정부 업무방식의 경직성 관리필요(지방행정혁신 컨설팅) 국가 지원과 개입이 매우 필요한 지역	3	5-1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낮음	특히 민관협력 사업 선정에 더욱 신중해야함 지방정부 업무방식의 경직성 관리필요(지방행정혁신 컨설팅) 국가의 지원과 개입이 매우 필요한 지역		5-2

출처: 최지민(2019)

- 5-1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특히 정부내부운영 관리를 통하여 지역 문제해결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지역임
 - 지역경제상황, 지방정부역량, 시민참여기반이 높더라도 결국 민관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핵심은 지자체의 내부 프로세스의 민주성과 효과성 여부임

- 특히 나머지 역량이 전반적으로 높으면서도 참여의 제도적 기반만 매우 낮다면 정부혁신관리가 시급한 지역에 속하며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임
- 5-2유형의 경우, 모든 자원이 절대적으로 미비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주도형 혁신실험이 성공하기 어려우며, 전통적인 참여주체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지자체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강화 노력 등의 복합적인 정책 처방을 통해 일정수준(national-minimum)의 역량관리가 필요한 지역임

□ 5유형 세부분석(72개 지역)

가. 정부혁신 관리시급 지역(참여제도적 기반: 저, 총 45곳)

- 5유형은 참여의 제도적 기반 취약성에 따라 다양한 지자체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유형과는 달리 세부 역량요인에 대한 전체적인 패턴을 검토하고자 함
- 참여의 제도적인 기반이 매우 낮은 지자체의 경우, 민관 협력문화, 참여제도에 관한 운영 중 상당한 갈등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 방식의 경직성 관리가 필요(지방행정혁신 컨설팅)하며 내부 운영의 경직되어 이로 인해 주민주도형 리빙랩 등 사업시행의 성과관리가 어려우므로 기선정된 사업 관리방식의 추가지침배부와 이행사항의 모니터링이 바람직함
 - ※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이 잘 분포되어있으나 참여기반은 조성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 민관 갈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컨설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5유형 중 참여의 제도적 기반이 '매우낮은' 지역은 총 46곳이며 이중 현재 사회혁신 관련 사업이 시행 중인 곳은 9곳임
- 특히 지역혁신역량총점 항목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지역 특성별로 혁신 관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① 지역혁신역량 총점이 다소 높은 지역: 민관갈등 수준(특히 시민참여기반이

매우높은 경우)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내부 경직적 운영관리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체 개혁과제 발굴이 필요하고 단체장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요구됨

- ② 지역혁신역량 총점이 다소 낮은 지역: 경직성관리 난이도 보통, 민관갈등 수준 보통
 - ③ 지역혁신역량 총점이 매우 낮은 지역: 전체적으로 행정운영의 비효율 크며 지역 내 소수 이해자의 참여집중이 발생할 가능성 높음
- 특히 음영 처리된 11개 지역(안산, 안양, 화성, 대전서구, 성북구, 포천, 광주북구, 강릉, 광주서구, 대구동구, 대구중구)는 민관협력상 갈등과 지자체 내부의 피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심층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임

나. 정부혁신 관리필요 지역(참여제도적 기반: 중하, 총 56곳)

- 참여의 제도적 기반이 다소 낮은 지자체는 참여제도에 관한 운영여건, 민관협력문화이 발달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가’ 지역과 유사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업무방식의 경직성을 관리 할 필요(지방행정혁신 컨설팅)가 있으며 지자체 경직성으로 인해 주민주도형 리빙랩 등 사업시행의 성과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선정된 사업 관리방식에 대한 추가지침배부와 이행사항 모니터링이 바람직함
- 5유형 중 참여의 제도적 기반이 ‘다소낮은’ 지역은 총 56곳으로 이들 중, 현재 사회혁신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은 9곳임
- 특히 지역혁신역량이 매우 높은 지역(7지역: 성남, 마포, 용인, 창원, 포항, 파주, 달서구), 다소높은지역(8지역: 강동, 춘천, 수성, 성동, 아산, 원주, 경주, 사상)은 관리가 특별히 더 필요하며, 지자체 전반적 혁신관리의 관점에서 현재 기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성남, 춘천, 마포, 수성, 사상에 대한 사업성과분석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5-2 유형 세부분석(6개 지역)

- 먼저, 지역혁신역량이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지역은 총 6곳임
- 지자체 역량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국가사업 연계가 필요한 지역으로 특별한 리빙랩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

㉔ 기타유형

- 기타유형은 4가지 지역역량의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지역맞춤형 관리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많은 지자체에 해당 지역에 속함
- 이 경우, 세부역량 여건의 패턴을 토대로 가장 유사한 유형에 해당하는 정책을 제안함
 - 예시) 종로구는 3가지 역량수준이 높지만 지방정부 참여제도기반이 다소 높음으로 나타나고 있고, 4개 역량 수준이 가장 높은 1유형과 유사한 특성을 가질 것으로 간주함

3. 지역역량과 리빙랩 유형간 불일치 분석

- 전국 지자체 유형별 지역분포는 다음과 같음

〈표 4-10〉 기초지자체별 지역역량 유형수준

지역명	사회경제여건	시민참여기반	지방정부참여 제도기반	지방정부역량	유형
종로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기타
중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1
용산구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기타
성동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5
광진구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2
동대문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5
종각구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2
성북구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5

지역명	사회경제여건	시민참여기반	지방정부참여 제도기반	지방정부역량	유형
강북구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2
도봉구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노원구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2
은평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서대문구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2
마포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5
양천구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2
강서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5
구로구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2
금천구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2
영등포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1
동작구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5
관악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1
서초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기타
강남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기타
송파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1
강동구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5
부산중구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부산서구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5
부산동구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3
영도구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5
부산진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동래구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5
부산남구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부산북구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3
해운대구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5
사하구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3
금정구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부산강서구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5
연제구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5
수영구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기타
사상구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5
기장군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5
대구중구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5

지역명	사회경제여건	시민참여기반	지방정부참여 제도기반	지방정부역량	유형
대구동구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5
대구서구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기타
대구남구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3
대구북구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수성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5
달서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5
달성군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인천중구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기타
인천동구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기타
인천남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연수구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5
남동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1
부평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1
계양구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5
인천서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5
강화군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기타
옹진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4
광주동구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기타
광주서구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5
광주남구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기타
광주북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5
광산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2
대전동구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3
대전중구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3
대전서구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5
유성구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대덕구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울산중구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울산남구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울산동구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울산북구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울주군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수원시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1
의정부시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지역명	사회경제여건	시민참여기반	지방정부참여 제도기반	지방정부역량	유형
부천시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1
광명시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5
평택시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5
동두천시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5
고양시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기타
과천시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4
구리시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5
남양주시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1
오산시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시흥시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2
군포시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2
의왕시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5
하남시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5
파주시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5
이천시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5
안성시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5
김포시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5
화성시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5
광주시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5
양주시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5
포천시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5
여주시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5
연천군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5
가평군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3
양평군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5
춘천시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5
원주시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5
강릉시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5
동해시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3
태백시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5
속초시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3
삼척시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기타
홍천군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5
횡성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기타

지역명	사회경제여건	시민참여기반	지방정부참여 제도기반	지방정부역량	유형
영월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기타
평창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5
정선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4
철원군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4
화천군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5
양구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기타
인제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기타
고성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기타
양양군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5
충주시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제천시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3
보은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5
옥천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5
영동군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5
진천군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3
괴산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5
음성군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기타
단양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5
증평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4
천안시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기타
공주시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기타
보령시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5
아산시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5
서산시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2
논산시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기타
계룡시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기타
당진시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5
금산군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5
부여군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5
서천군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기타
청양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4
홍성군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5
예산군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5
태안군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5

지역명	사회경제여건	시민참여기반	지방정부참여 제도기반	지방정부역량	유형
전주시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군산시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익산시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정읍시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기타
남원시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기타
김제시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3
완주군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5
진안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기타
무주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5
장수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5
임실군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5
순창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기타
고창군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3
부안군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5
목포시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기타
여수시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2
순천시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2
나주시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5
광양시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5
담양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5
곡성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5
구례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4
고흥군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5
보성군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4
화순군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5
장흥군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4
강진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기타
해남군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5
영암군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4
무안군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5
함평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6
영광군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기타
장성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6
완도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기타

지역명	사회경제여건	시민참여기반	지방정부참여 제도기반	지방정부역량	유형
진도군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5
신안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6
경주시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5
김천시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5
안동시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기타
구미시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1
영주시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3
영천시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5
상주시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낮은편	3
문경시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5
경산시	다소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5
군위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5
의성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5
청송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6
영양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기타
영덕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5
청도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5
고령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기타
성주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4
칠곡군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5
예천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5
봉화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4
울진군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5
울릉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6
진주시	매우높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5
통영시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5
사천시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5
김해시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5
밀양시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기타
거제시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높은편	기타
양산시	매우높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높은편	5
의령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6
함안군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5
창녕군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낮은편	5

지역명	사회경제여건	시민참여기반	지방정부참여 제도기반	지방정부역량	유형
고성군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다소낮은편	기타
남해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4
하동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4
산청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4
함양군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다소높은편	매우낮은편	기타
거창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매우높은편	매우낮은편	4
합천군	매우낮은편	매우낮은편	다소낮은편	매우낮은편	기타

출처: 최지민(2019)

○ 전국 지자체 제도견인형 지역혁신관리 모형별 세부특성은 아래와 같음

〈표 4-11〉 제도견인형 지역혁신관리 모형별 세부특성

지역명	유형	리빙랩 시행여부	총계	리빙랩 유형		지역여건과의 불합치 수준
				단독	복합	
종로구	기타	X				
중구	1	X				
용산구	기타	X				
성동구	5	O	1		1	
광진구	2	X				
동대문구	5	X				
중랑구	2	X				
성북구	5	X				
강북구	2	X				
도봉구	기타	X				
노원구	2	X				
은평구	기타	X				
서대문구	2	X				
마포구	5	X				
양천구	2	O	1		1	
강서구	5	X				
구로구	2	O	4	1	3	
금천구	2	O	2		2	

지역명	유형	리빙랩 시행여부	총계	리빙랩 유형		지역여건과의 불합치 수준
				단독	복합	
영등포구	1	X				
동작구	5	O	8	5	3	높음
관악구	1	X				
서초구	기타	O	1		1	
강남구	기타	X				
송파구	1	X				
강동구	5	X				
부산중구	기타	X				
부산서구	5	X				
부산동구	3	X				
영도구	5	X				
부산진구	기타	X				
동래구	5	O	1		1	
부산남구	기타	O	1		1	
부산북구	3	X				
해운대구	5	X				
사하구	3	X				
금정구	기타	O	1	1		
부산강서구	5	X				
연제구	5	X				
수영구	기타	O	1	1		
사상구	5	X				
기장군	5	X				
대구중구	5	X				
대구동구	5	X				
대구서구	기타	X				
대구남구	3	X				
대구북구	기타	X				
수성구	5	X				
달서구	5	O	1		1	
달성군	기타	X				
인천중구	기타	O	1(합동)		1	

지역명	유형	리빙랩 시행여부	총계	리빙랩 유형		지역여건과의 불합치 수준
				단독	복합	
인천동구	기타	X				
미추홀구	기타	O	1(합동)		1	
연수구	5	O	1(합동)		1	
남동구	1	X				
부평구	1	X				
계양구	5	X				
인천서구	5	X				
강화군	기타	X				
옹진군	4	X				
광주동구	기타	O	6	2	4	
광주서구	5	X				
광주남구	기타	X				
광주북구	5	O	5	3	2	
광산구	2	O	1		1	
대전동구	3	X				
대전중구	3	X				
대전서구	5	O	6	5	1	높음
유성구	기타	O	5	1	4	
대덕구	기타	O	5	5		
울산중구	기타	O	4+1 (합동)	2+1	2	
울산남구	기타	O	2+1 (합동)	0+1	1	
울산동구	기타	O	1(합동)	1		
울산북구	기타	O	1(합동)	1		
울주군	기타	O	1(합동)	1		
수원시	1	X				
용인시		O	1		1	
성남시		O	1		1	
안산시		O	3	2	1	
의정부시	기타	X				
부천시	1	O	4	1	3	

지역명	유형	리빙랩 시행여부	총계	리빙랩 유형		지역여건과의 불합치 수준
				단독	복합	
광명시	5	X				
평택시	5	O	1	1		
동두천시	5	O	5	4	1	
고양시	기타	O	3		3	
과천시	4	O	1		1	
구리시	5	O	1	1		높음
남양주시	1	X				
오산시	기타	O	1		1	
시흥시	2	X				
군포시	2	X				
의왕시	5	X				
하남시	5	O	1		1	
파주시	5	X				
이천시	5	X				
안성시	5	O	1	1	1	
김포시	5	X				
화성시	5	O	1		1	
광주시	5	X				
양주시	5	O	5	5		높음
포천시	5	X				
여주시	5	X				
연천군	5	X				
가평군	3	X				
양평군	5	X				
춘천시	5	O	13	1	12	높음
원주시	5	O	3	1	2	
강릉시	5	X				
동해시	3	X				
태백시	5	X				
속초시	3	X				
삼척시	기타	X				
홍천군	5	O	2	2		높음

지역명	유형	리빙랩 시행여부	총계	리빙랩 유형		지역여건과의 불합치 수준
				단독	복합	
횡성군	기타	X				
영월군	기타	X				
평창군	5	X				
정선군	4	X				
철원군	4	X				
화천군	5	X				
양구군	기타	X				
인제군	기타	X				
고성군	기타	X				
양양군	5	X				
청주시		O	1		1	
충주시	기타	X				
제천시	3	X				
보은군	5	X				
옥천군	5	X				
영동군	5	X				
진천군	3	X				
괴산군	5	O	5	5		높음
음성군	기타	X				
단양군	5	X				
증평군	4	X				
천안시	기타	X				
공주시	기타	O	4	2	2	
보령시	5	X				
아산시	5	X				
서산시	2	O	1	1		
논산시	기타	X				
계룡시	기타	X				
당진시	5	X				
금산군	5	O	1		1	높음
부여군	5	O	1		1	높음
서천군	기타	O	2	1	1	

지역명	유형	리빙랩 시행여부	총계	리빙랩 유형		지역여건과의 불합치 수준
				단독	복합	
청양군	4	X				
홍성군	5	O	2	1	1	높음
예산군	5	X				
태안군	5	X				
전주시	기타	X				
군산시	기타	X				
익산시	기타	O	3	3		
정읍시	기타	X				
남원시	기타	X				
김제시	3	X				
완주군	5	X				
진안군	기타	X				
무주군	5	X				
장수군	5	X				
임실군	5	X				
순창군	기타	X				
고창군	3	X				
부안군	5	O	1	1		높음
목포시	기타	X				
여수시	2	X				
순천시	2	X				
나주시	5	X				
광양시	5	X				
담양군	5	X				
곡성군	5	X				
구례군	4	X				
고흥군	5	X				
보성군	4	X				
화순군	5	X				
장흥군	4	X				
강진군	기타	X				
해남군	5	X				

지역명	유형	리빙랩 시행여부	총계	리빙랩 유형		지역여건과의 불합치 수준
				단독	복합	
영암군	4	X				
무안군	5	X				
함평군	6	O	1		1	높음
영광군	기타	O	2	2		
장성군	6	O	4	2	2	높음
완도군	기타	O	1	1		
진도군	5	O	1		1	높음
신안군	6	X				
경주시	5	O	1		1	높음
포항시		O	1		1	
김천시	5	X				
안동시	기타	O	1	1		
구미시	1	X				
영주시	3	O	7	5	2	
영천시	5	O	1	1		
상주시	3	X				
문경시	5	O	1	1		
경산시	5	X				
군위군	5	O	1		1	
의성군	5	X				
청송군	6	X				
영양군	기타	X				
영덕군	5	O	1		1	높음
청도군	5	X				
고령군	기타	O	2	2		
성주군	4	O	3	2	1	
칠곡군	5	X				
예천군	5	O	2	2		
봉화군	4	X				
울진군	5	O	2	1	1	높음
울릉군	6	X				
진주시	5	O	2	1	1	높음

지역명	유형	리빙랩 시행여부	총계	리빙랩 유형		지역여건과의 불합치 수준
				단독	복합	
통영시	5	O	4	3	1	높음
사천시	5	X				
김해시	5	X				
밀양시	기타	X				
거제시	기타	O	3	1	2	
양산시	5	X				
의령군	6	X				
함안군	5	X				
창녕군	5	X				
고성군	기타	O	1	1		
남해군	4	O	2	1	1	
하동군	4	X				
산청군	4	X				
함양군	기타	X				
거창군	4	O	1	1		
합천군	기타	X				
제주시		O	9	5	4	
서귀포시		X				

4. 소결: 지역역량의 불합치 문제에 관련된 맞춤형 제도운영의 필요성 도입

- 총 76개 지자체중 지역여건이 높지 않음에도 리빙랩이 수행된 지자체는 19곳
 - 리빙랩 시행지역의 25%에 해당하여 사업관리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원인: 공모사업 위주의 사업시행, 국비차입을 위한 지자체의 사업신청 되풀이
- 지역특성에 대한 이해 필요
 - 지방행정 영역의 특수성 고려 필요
 - 지역여건과 리빙랩 수행과의 불합치 수준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관리 노력
 - 제도개선의 총괄 추진체계의 필요

제2절 리빙랩 성과평가 기준의 마련

1. 평가기준의 도출

1) 일반적 사업평가 기준

- 현재 수행중인 리빙랩 사업의 평가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평가지표 및 기준의 개발의 일반 원칙을 따르고자 함
 - 목표의 연계성 원칙은 성과평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하였을 때 리빙랩 목적달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함
 - 지표의 객관성 원칙을 위해 채택된 지표의 측정 방법 및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인지 여부를 파악함
 - 측정 가능성 원칙을 위해 지표를 구성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또 수집이나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도 파악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평가기준은 모든 분야의 리빙랩 사업 평가수준을 비교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 목적임

〈표 4-12〉 평가기준의 도출

지표 채택 기준		내용
평가기준 마련 일반 원칙	목표의 연계성	- 채택된 기준으로 토대로 효과적으로 관리하였을 때 리빙랩의 목적 달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
	기준의 객관성	- 평가기준에 관한 측정 방법 및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인지 여부
	측정 가능성	- 평가기준을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또 수집이나 측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분야 특수성 적용원칙	수용성	- 상이한 여건을 고려한 평가기준의 마련
	특수성	- 영역별 특수한 속성을 고려할 기준의 적용
	특수상황 고려	- 지역의 여건과

출처: 김근혜 외(2014) p426페이지 〈표 3〉과 박승규 외(2020) pp68-69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구성

2) 리빙랩 평가기준

- 리빙랩이란 특수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영역특수적 특화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리빙랩 선정 기준
 - 리빙랩 선정 기준은 정책기획과정에서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정책과정 가운데 시민참여정도, 정책집행 및 성과 부분에서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산가능성, 사회문제해결 기여 등으로 나뉨

<표 4-13> 리빙랩 평가기준

정책단계	정책기획	정책과정(거버넌스)		정책집행(성과)
사업평가기준	창의성	노력도		효과성 확대가능성
리빙랩 선정 기준	혁신성 실현가능성	시민참여정도		지속가능성 확산가능성 사회문제해결기여
리빙랩 프로세스	관찰	실험	협력	공유
유관 평가기준	지역성	노력도, 기술결합		지속가능성 문제해결력
본연구의 개별평가기준	1. 지역의 문제가 정의되고 있는지? 2. 주민주체에 의한 문제정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1. 실험의 공간 및 지역이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2. 실험의 공간에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가?	1.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주민 참여 정도 2. 조례 제 개정 및 예산·인력 투입 등 구체적 노력 정도 및 지자체장 관심도 3.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는가	1. 실험을 통해 도출된 프로토타입이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가? 2. 의도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3. 정책화의 가능성이 있는가?
본연구의 관리평가기준	각각의 리빙랩 진행 프로세스가 짜임새 있게 연결되고 있는가? 리빙랩 기획과 행정관리의 주체별 역할이 뚜렷한가?			

○ 일반적 사업평가기준

- (정책기획) 창의성은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특성 반영 정도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을 가진 정도를 통해 평가됨
- (정책과정) 노력도는 지역 내 유관기업과의 협력 및 주민참여 정도, 추진을 위한 현황조사 및 조례 제·개정 노력 등을 통해 평가됨
- (정책성과) 효과성은 지역사회 생활편의 및 만족도 제고 정도와 사회통합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정도를 통해 평가됨

○ 리빙랩 선정 기준

- (정책기획) 혁신성은 실험 방법이 기존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근거한 창의적 대안을 제시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되며 실현가능성은 실험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평가됨
- (정책과정) 시민참여는 시민의 주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견수렴 방안이 있는지를 통해 평가됨
- (정책성과) 사회문제 해결기여, 지속가능성, 확산가능성은 해당 실험의 기대효과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한 얼마나 지속가능하며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 평가됨

○ 본 연구 선정기준 제안

- 본 연구에서는 리빙랩 사업을 평가하고 수범사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정책기획단계에서의 지역성 및 기술결합, 정책과정 단계에서의 거버넌스 노력도, 마지막으로 정책집행 및 성과 부분에서 지속가능성과 확산가능성 등으로 나뉨

2. 평가기준의 도출

1) 개별평가 기준

관찰

- 지역의 문제가 정의되고 있는지?
- 주민주체에 의한 문제정의를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실험

- 실험의 공간 및 지역이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실험의 공간에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지?

협력

-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주민 참여 정도는 충분하가?
- 조례 제·개정 및 예산·인력 투입 등 노력과 지자체장 관심도는 적정한가?
- 물리적 활동 공간이 존재하는가?

공유

- 실험을 통해 도출된 프로토타입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가?
- 의도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 정책화 및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가?

2) 관리평가기준

- 각 프로세스의 단계별 관리를 체계적으로 연결할 자원과 역량이 존재하나?

제5장

리빙랩 우수사례분석

제1절 분석개요

제2절 심층 사례분석

제1절 분석개요

1. 기준별 평가의 적용

〈표 5-1〉 리빙랩 평가기준

정책단계	정책기획	정책과정(거버넌스)		정책집행(성과)
리빙랩 프로세스	관찰	실험	협력	공유
유관 평가기준	지역성	노력도, 기술결합		지속가능성 문제해결력
본연구의 개별평가기준	1. 지역의 문제가 정의되고 있는지? 2. 주민주체에 의한 문제정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1. 실험의 공간 및 지역이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2. 실험의 공간에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가?	1.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주민 참여 정도 2. 조례 제·개정 및 예산·인력 투입 등 구체적 노력 정도 및 지자체장 관심도 3.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는가	1. 실험을 통해 도출된 프로토타입이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가? 2. 의도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3. 정책화의 가능성이 있는가?
본연구의 관리평가기준	각각의 리빙랩 진행 프로세스가 짜임새 있게 연결되고 있는가? 리빙랩 기획과 행정관리의 주체별 역할이 뚜렷한가?			

제2절 심층 사례분석

1. 분석목적 및 개요

- 심층사례 분석을 통해 각각의 리빙랩 유형에서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확산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2. 리빙랩 수범사례

- 리빙랩의 수범사례에 대한 판단은 연구진 3인의 의견과 외부자문결과를 통해 <표 5-1>의 기준을 5점 척도로하여 총점이 가장 높은 사례를 1차 선정함
- 사업의 목적과 사업추진 지자체 담당자와의 사전 면담을 통해 리빙랩의 취지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적극적인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5개 사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음

<표 5-2> 리빙랩 평가기준

사례명	리빙랩수준별 실제 성고				프로세스 관리
	관찰	실험	협력	공유	
부평구생태 참여 놀이터	의제, 수요자 관점의 문제정의	실험결과			
강원춘천 담아모아가게	의제, 수요자 관점의 문제정의			지역전체의 인식개선	
대전본청 퇴퇴캠프	의제, 수요자 관점의 문제정의				
대전유성구 굴다리 안심길디자인		실험결과			
제주도 리빙랩사업및 생활공론장					리빙랩프로세스 기획 및 개별리빙랩수행 기록

1 인천 부평구 : 어린이와 함께 만드는 생태 참여 놀이터

○ 정책도입 배경 및 목적

- **(도입배경)** 민선7기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시작하여 2022년초까지 ‘생태참여놀이터’ 총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놀이터의 실질적인 수요자 이면서 사용자인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만드는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함.
- **(문제인식)** 어느 어린이 놀이터를 가나 기성품화된 천편일률적인 놀이터들이 대부분임. 즉 특히 같은 색과 형태, 자재로 만들어진 시소와 그네, 철봉들은 지루하고 무료하며, 창의적인 놀이보다는 기구를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특히 조달청의 관급자재를 사용하던 기존의 공공조성 놀이터는 지역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획일적이기에, 부평구에서는 수요자 친화적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동 과제를 추진함.
- **(정책목표)** 오래되고 낡은 놀이터를 새로이 정비하면서 이제까지 보왔던 정형적인 놀이공간이 아닌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 어린이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혀 다른 놀이공간을 조성함.

○ 사업구성요소

- **(기술적 요인 및 인프라)**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아이들의 시각에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한 디자인과 아울러 안전한 놀이터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인 고려들이 필요하였으며,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디자인 과정에서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프로그램과 함께 기술적인 사항들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함. 특히 제안된 디자인 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적 검토들, 예컨대 유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실제 조성방안 등을 반복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노하우 등을 환류하여 더욱 안전하고 가치있는 놀이터가 되도록 노력함
-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조)** 어린이 놀이터별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단계(기관협의 등), 계획단계, 자문단 운영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단계, 시공 및 관리단계별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괄함. 거버넌스 단계에서는 특히 인근 초등학교 및 동주민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계획단계에서 인근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 수업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원하는 놀이터를 디자인하는 작업을 6주간 진행(상상하기, 놀이터 체험, 내가 만드는 놀이기구 스케치 및 배치도 그리기, 놀이기구 모형 만들기 등)하여 창의적이고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 디자인을 도출한 후 최종안들의 투표를 통해 디자인을 결정하였음(〈그림 1〉 참조). 생태참여놀이터 조성 자문단 운영(자문회의 3-4회 개최)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주민(학부모, 어린이, 선생님, 인근 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 주민), 전문가(육아 및 놀이시설 전문가, 조경가, 건축가 등),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또한 시공 및 관리단계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등을 환류하고 과학적인 운영과 성과관리 등을 위해 인천연구원의 운영실태 연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그림 5-1〉 생태계 참여 놀이터의 어린이 제안 디자인(설치 후)



- (사업지원체계) 동 사업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서 부평구 자체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통상 놀이터 조성사업의 경우 1년이 걸리지 않는 사업이나 동 생태참여놀이터의 경우 아직 시도해 보지 않은 창의적인 디자인 등

이 적용되는 관계로 디자인의 도출 및 실행방안의 탐색 등 2년 사업으로 진행됨. 놀이터별로 행정안전부의 우수놀이터(조성이후 선정), 환경부의 생태놀이터 사업 등과 연계한 일부 국비예산의 지원이 있었음. 다만 중앙 부처의 지원을 받게 되면 부처공모 사업취지의 반영 및 제약 등이 있을 수 있어, 이는 아이들이 원하는 디자인 등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구청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참여 차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만은 보기 어려움

- **(장애극복 특이사항)** 아이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디자인이므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존재하였으며, 특히 발생될 여지가 있는 안전사고들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많은 기술적 고민들이 있었음. 놀이터 준공 등과 관련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품질인증과 안전검사, 구조안전진단 등 건축물에 준하는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 특히 어린이들이 원하는 디자인과 실제 실행의 기술적 기준들이 상충되는 경우들이 많았으나 ‘참여’가 동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만큼 어린이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였음

○ 환경분석

- **(지역의 특수성 및 작동요건)** 인천 부평구 지역은 인구가 많고 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큰 지역으로서, 단체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의지가 높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큼. 놀이터 리모델링 이후 놀이시설 내 CCCTV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온라인 육아맘카페 회원 등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으나, 놀이터 인근 주차공간의 협소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현재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임. 요컨대, 생태참여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등에 있어서 놀이터의 리모델링이나 이용수요, 주민의 관심도 및 운영 상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적 여건은 좋은 편이며 지역의 니즈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확장가능성 및 제도개선 사항)** 환경부의 생태놀이터 등 유관사업과의 연

계에 있어서 동 사업이 ‘참여’에 초점을 둔 반면 환경부의 사업 등은 ‘생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관 간 연계가 쉽지 않아 이러한 점에 대한 개선이 바람직함.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건축물에 준하는 안전검사 등 관련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도 놀이터의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한 주민참여 위원회 등의 구성이 필요함. 현재 구청에서는 150여 개의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참여를 통해 유지관리에 있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필요함.

○ 우수사례 선정기준 부합성

- **(지역성)** 지역내 놀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실수요자로서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디자인을 제안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이를 달성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임.
- **(노력도, 기술결합)** 아이들의 시각에서 즐거운 놀이터는 어른들의 시각에서 안전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어른들과 아이들의 상충되는 현실적 기준에 대한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므로 실제 구조물을 조성하는 구현 과정에서 아이들과 주민,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한데 동 사례는 이러한 거버넌스와 참여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지속가능성 및 지역문제해결 기여도)** 조성된 생태참여놀이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 구청 공원녹지과의 관리체계는 바람직하며 지속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에 기반한 접근은 향후 개선사항으로 볼 수 있음.
보다 지속가능하고 타 지역으로 확산가능하기 위해서는 놀이터의 활용에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주민참여에 기반한 사후관리가 병행될 때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함.
향후 읍면동의 다양한 공동체, 주민조직, 주민자치회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생태참여놀이터의 활성화가 모색되면 좋을 것임

2 강원 춘천시 : 이동식 리필트럭 ‘담아가게’ 및 ‘모아가게’

○ 정책도입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최근 기후변화와 쓰레기 문제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으며 그중 일상생활과 소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리빙랩 실험을 진행함.
- (문제인식) 지금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환경활동, 탄소중립, 자원순환 실천과 같은 활동의 책임과 주체가 시민들에게 한정되어 있었으며 일상에서 여러 불편함을 감수한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처럼 개인에게 집중된 환경 운동을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원순환체계에 주민들의 쉬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문화를 만들고자 함
- (정책목표) 리빙랩 실험을 통해 생활 속 소비과정에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하며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제로웨이스트 샵을 조성하고 운영함.

○ 사업 구성요소

- (사업개요) 2021년 5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36일간, 춘천 시내 아파트 단지 및 공공장소 9개소를 선정하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동식 제로웨이스트 리필샵 ‘담아가게’ 및 리워드 상점 ‘모아가게’를 운영하였으며, 지역 제로웨이스트 매장 내 솥인솥 플레그샵 매장을 운영하고, 아울러 운영매뉴얼 제작 등 주민주도 리필샵 자체 운영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함
- (기술적 요인 및 인프라) 강원도 민간업체의 기증으로 확보된 전기트럭을 이용하여 이동식 제로웨이스트 매장과 이동식 리필스테이션 운영을 통해 세제류 및 생활용품의 리필을 통해 재활용쓰레기(플라스틱 뚜껑, 빨대, 아이스팩) 수거와 리워드 제공을 가능하게 함

〈그림 5-2〉 강원 춘천시 이동식 리필트럭 ‘담아가게’



- (서비스 운영프로세스) 자발적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 자원순환협력기관, 중간지원조직인 춘천사회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전개

〈표 5-3〉 자발적 자원순환 활동 서비스 운영프로세스

사전협조 및 홍보	시민 사전참여	행사 운영	상품교환	폐자원 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아가게’ 운영장소 협조 • 행사 운영 일정 및 장소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사전참여 • 폐자원 수집 (플라스틱, 아이스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식 리필트럭 담아가게 & 모아가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 쓰레기 교환 • 리필용품 • 제로웨이스트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종료 후 수거된 폐자원 재활용/재사용
춘천사회혁신센터	시민	춘천사회혁신센터	춘천사회혁신센터	자원순환협력기관

- (거버넌스 구조와 혁신성) 시민들의 지속적 참여와 실천의 문화 형성을 위해 지역 내 제로웨이스트 및 자원순환 거버넌스를 구성함. 제로웨이스트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직관적 이해와 사업종료 후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위한 허브로서 제로웨이스트 샵을 현재 운영 중인 더뉴히어로즈를 협력기업으로 하여, 재활용 및 재사용 폐기물의 자원순환협력기관 등 거버넌스를 구축함

〈표 5-4〉 재활용 및 재사용 폐기물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

<p>춘천 사회혁신 센터</p>	<p>이동식 리필샵 사업 총괄 - 사업기획 및 총괄 운영 이동식 리필샵 ‘담아가게’ 행사 준비 및 현장운영 ‘모아가게’ 사업 협력 기관 모집 및 자원 재활용</p>
<p>협력기업</p>	<p>[더뉴히어로즈-제로웨이스트샵] 담아가게, 모아가게 운영 협력 제로웨이스트 샵 구성 및 운영 자문 담아가게 운영 매뉴얼 자문 및 제작 담아가게 플래그쉽 매장 운영 (요선당 내 흡인숍 형태)</p>
<p>자원순환 협력기관</p>	<p>[춘천시자원봉사 지원센터] 플라스틱 재활용자원 수거 및 순환 사업 운영을 통해 수거된 플라스틱 뚜껑, 빨대 수거 수거된 플라스틱 자원의 순환 및 재사용을 위한 가공</p> <hr/> <p>[새마을운동춘천지회]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운영을 통해 수거된 아이스팩 수거 수거된 아이스팩의 선별, 세척 과정을 통해 재사용</p>
<p>춘천시청</p>	<p>사업운영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전기트럭 지원 춘천자원순환 시민TF팀 조직화 및 운영</p>

- (추진과정 및 성과) 이동식 리필트럭 담아가게 캠페인 총 9회 운영 및 주민주도 운영지원 2회를 통해 하기와 같은 성과를 달성함. 또한 팝업스토어 형태의 리필트럭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시민들의 참여 및 관심 제고를 위해, 이동식으로 운영되는 담아가게 및 모아가게의 상설매장으로 지역 내 제로웨이스트 샵인 ‘요선당’과 협업하여 매장 내 매대를 설치하여 플래그쉽 매장을 운영함.

〈표 5-5〉 리빙랩 추진 성과

구분	운영 기간	운영회수	참여시민 (이용자)	수집자원(단위: 개)			
				뚜껑	빨대	아이스팩	합계
내용	2021.5.22. ~6.26.	총 9회차	1,463명	15,548	5,325	4,364	25,237

○ 환경분석

- (지역의 특수성 및 작동요건) 쓰레기 문제 해결과 제로웨이스트 문화에 관심있는 단체, 활동가 뿐만 아니라 제로웨이스트 문화에 관심이 있는 춘천시민이 골고루 참석하여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춘천의 시민 활동가, 기업, 중간지원조직, 공공기관, 행정 등 다양한 참여주체가 포함된 ‘제로웨이스트 시민참여 캠페인 TF팀’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그림 5-3〉 강원 춘천시 이동식 자원순환 리워드 상점 ‘모아가게’



- 지속가능성을 위한 향후 과제) 리필트럭 사업에 시민들의 참여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민 등 지역이해당사자의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이미 타 지역에서 에코포인트, 세금감면 혜택, 요금할인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처가 적고 제한적이어서

활용성이 낮은 형편임. 이러한 문제를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적용을 통해 관리의 분산화, 활용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순환자원 회수 로봇으로 운영되는 ‘네프론’과 같이 직접적 보상금 지급을 위해 개인의 자원순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비용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우수사례 선정기준 부합성

- **(지역성)** 전기트럭을 이용한 이동식 리필샵 및 리워드 상점을 통해 주민에 대한 캠페인과 재활용 참여 촉진, 주민조직 및 지역기업체, 관계기관 등 지역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든 점 등은 매우 고무적임. 아울러 플래그쉽 매장의 운영, 주민주도 리필샵 자체 운영을 위한 운영매뉴얼의 제작 등 후속 및 유관활동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 등 동 사업을 통해 파생되고 지속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한 점 역시 주목할만함.
- **(노력도, 기술결합)** 동 사업을 추진한 춘천사회혁신센터의 박정환 센터장은 리빙랩 실험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동 사업과 같이 문제의 도출 및 정의 단계에 있어서 (전문가와 같은 원활한 진행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반드시 주민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참여는 이후 해결책의 모색과 실천의 단계에서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음. 따라서 리빙랩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최우선에 놓고 문제를 도출하고, 이후 문제의 정의 및 솔루션 아이디어, 변수에 따른 검증, 프로토타입 실행 등 이후 단계에서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리빙랩을 통한 혁신의 성과는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주민조직 등에서 확인되는 것이 중요함
- **(지속가능성 및 지역문제해결 기여도)** 동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자원순환을 위한 분리배출과 재활용 자원의 수거에 대한 경험이 생겼고, 거버넌스 구조와 함께 시민이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음. 특히 사업종료 이후에도 시민 스스로 분리배출 활동을 지속하며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본사업 이외에 지역 내 이러한 수집과 분리배출을 실천하기 위

한 다양한 사업들이 파생됨.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주민주도 사업 시범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직접운영을 한 ‘후평동 주민자치회’ 외에도 춘천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단 등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자체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단체들을 발굴하였음. 또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전기트럭 지원을 한 춘천시 자원순환과는 캠페인으로서 사업의 효과성을 인정하여 ‘2022년 이동식 리필트럭’ 추가 운영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계획하여 정책적 연결을 위한 계기가 됨.

〈표 5-6〉 리빙랩 사업모델 및 확산성과

사업 모델 확산 성과	주민주도 직접운영	협력운영	협력운영 요청	사업연계 협력운영
	1건	3건	4건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평동 주민자치회(꽃밭토론회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춘천효자종합복지관(마중물 환경캠페인) •나비소셜컴퍼니(제로제로GoGo) •자유총연맹춘천(나라사랑그림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계동 주민자치회(퇴계동 녹색장터) •춘천 자원봉사단 •춘천청소년수련관(제로웨이스트샵) •춘천시 디자인과(미디어파사드 준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춘천시 자원순환과 2022년 ‘담아가게’ 운영 계획 중

③ 대전 본청 : 지역밀착 생활실험 지원 - 퇴퇴캠프

○ 정책 추진배경

- (문제인식) 신입사원(청년) 직장 입사 1년 내 퇴사율 증가하였고 청년의 사회적응 및 조직 내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신입사원(청년)에 대한 지원을 조직 자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으며 청년의 사회적응, 조직 적응,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서적, 제도적 서비스 부재함
- (정책목표) 청년의 사회적응, 조직 적응,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서적 제도적 서비스 마련

○ 정책 추진과정

- (추진동력 및 추진체계) 청년들에게 필요한 성격검사, 고민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노무사의 강연 등 개인의 치유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도 병행함
- (장애극복 특이사항) 청년들의 고민이 단순히 퇴사나 이직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아와 관련된 깊은 고민이라는 점에서 처음 구상한 프로그램과는 다른 점이 있었으나 신속한 프로그램의 수정을 통해 적절한 콘텐츠를 생산해냄

○ 우수사례 선정기준 부합성

- **(지역성)** 청년이직과 퇴사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경청하고 조언하고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음
- **(노력도, 기술결합)** 노무사 초빙 등 이직과 퇴사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편성하였으며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신속한 대응을 통해 매끄러운 워크숍 진행을 이끌어냄
- **(지속가능성 및 지역문제해결 기여도)** 청년의 사회적응, 조직 적응,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서적 제도적 서비스 마련하고 관련된 정책의제(관찰)를 발굴하는 기획과 관리과정이 우수하여 이 같은 노력이 축적되고, 실제로 의제화될 수 있는 통로마련이 필요함

4 대전 유성구 : 굴다리, 안심길을 디자인하다

○ 정책 추진배경

- (문제인식)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산장산 진입 주요 통로인 진잠 굴다리가 노후화되고 낮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워 주민 불안 및 불편사항 상존
- (정책목표)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리빙랩 사업 추진

○ 정책 추진과정

- (추진동력 및 추진체계) 아이디어 도출 회의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

민(굴다리 주변 등산객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그밖에도 태양광 패널 발생 에너지를 활용한 굴다리 속 상시 점등 및 굴다리 진출입구에 그림타일을 부착하여 안전한 굴다리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과정에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개입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장애극복 특이사항) 당초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에어컴프레셔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사용 불가판정으로 대체지를 물색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행위허가를 신청
- 도로 점용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유성구와 도로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우수사례 선정기준 부합성

- **(지역성)** 굴다리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친근하고 개성있는 마을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굴다리 속 상시 점등으로 이용 주민 편의 제공 및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주민 인식 개선 효과가 발생
- **(노력도, 기술결합)** 마을공동체 회원/주민/주민자치회, 한국도로공사, (주)하나건설, 유성구청 등의 이해관계자가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괄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었음
- **(지속가능성 및 지역문제해결 기여도)** 주민 주도로 이뤄졌기 때문에 마을 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어 공동체 의식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환경 대선으로 자긍심 및 성취감이 고취되었음

5 강원 춘천시 : 케어카페

○ 정책도입 배경 및 목적

- (문제인식)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벗어나, 마을 안에서 일상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마을주민의 상호돌봄이 실현되는 대안돌봄이 필요함.
- (추진배경) 2019 춘천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된 건강문제” 1위 만성질환(25.06%), “가장 우선해야할 보건정책” 1위 건강서비스 강화(28.40%), “의료기관 불만족 이유” 1위 긴 대기시간(26.1%)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를 위한 공간이 시급함. 일본사례와 같이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공간을 고민하게 됨.

- (정책목표) 마을별 건강상태 조사를 바탕으로, 마을단위 케어카페 운영을 통해 누구나에게 제공되는 일상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마을주민 상호돌봄 기반 주민주도 돌봄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함. 즉, 유희간호사, 마을돌봄활동가 등 지역내 새로운 돌봄주체들을 형성하여, 지역내 취약한 의료 및 보건 분야의 인프라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돌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 구성요소

- (사업개요) 2020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말까지 돌봄의 욕구가 있는 춘천거주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약사명동 터무니맹글(약사명동 소재) 및 워크즈협동조합(거두리 소재)의 2개소의 케어카페를 조성하고 운영함
- (운영프로세스) 이 과정에서 마을의 건강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 구성 및 설문조사를 수행한 후, 마을내 공유공간 및 업무시간외 공간의 활용(전자의 경우 약사명동, 후자의 경우 거두리)을 통한 카페 공간을 조성하고, PM간호사, 공간별 간호사, 마을돌봄활동가, 이웃사촌 각 1명(총7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카페를 운영함
- (기술적 요인 및 인프라)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 안에 걸어서 갈 수 있고, 간호사와 마을사람들이 어울려 서로를 돌보는 케어카페가 운영됨. 지역내 유희간호사와 마을돌봄활동가가 상주하여 공간별 의료물품 및 장비 구입, 간호진단 및 상담 서비스, 영양관리 서비스, 일상 건강관리 프로그램(다도 및 상담, 운동, 미술, 요리, 손마시지 및 네일 등)을 운영하며, 이를 위한 운영인력 워크샵, 성과분석 등을 수행함
- (거버넌스 구조와 혁신성) 리빙랩의 추진주체로서 춘천사회혁신센터

중심으로 인력구성 및 마을건강조사 등이 추진되었고, 공간지원 등 약사명동의 현장지원센터와 거두리의 워커즈협동조합이 참여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 등이 핵심주체로 구성됨.

〈표 5-7〉 리빙랩 거버넌스 구조와 혁신성

춘천 사회혁신 센터	케어카페 총괄 기획 인력구성 및 운영 : 간호사, 커뮤니티매니저, 이웃사촌 마을 건강조사, 케어카페 운영, 홍보기록 아카이빙 마을별 공동체 자원 발굴 및 연계
약사명동 현장지원센터	공간지원, 일상건강관리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물품지원, 홍보영상 제작
워커즈협동조합	공간지원, 조합원 홍보
춘천시협동조합 지원센터	케어카페 운영 자문 및 사업 홍보, 마을돌봄활동가협동조합 추진

- (추진과정 및 성과) 케어카페 2개소의 운영을 통해 참여인원 351명(일평균 10명, 참여인원대비 재방문 비율은 약사명동의 경우 88%), 간호사협동조합설립 1건(강원도 최초 간호사 협동조합 설립, 춘천지역 최초 의료보건분야 협동조합 설립), 돌봄수첩배포 및 관리 47개(도시재생지역 276명의 17% 대상 혈압혈당 측정), 프로그램 개발 7개(손마시지 및 네일서비스, 공예, 미술, 운동, 푸드닥터, 생협 및 로컬푸드와 연계한 영양관리, 다도 프로그램 등) 개발 및 운영
- (정부지원 연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예산지원 26,000천원), 약사명동 건강마을-약사케어 추진사업(예산지원 211,500천원) 등

〈그림 5-4〉 강원 춘천시 '케어카페'



○ 환경분석

- (지역의 특수성 및 작동요건) 지역 전체적으로 고령화율이 16~17%에 이르고 있어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볼 수 있으나, 도심지역보다 구도심(도시재생지역)이나 농산어촌과 같은 소지역에서는 고령화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임. 더욱이 고령자의 경우 도심병원의 외래를 가는 것 또한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방문간호사(유휴간호사) 및 마을활동가 등 3인 1조의 방문형 또는 거점형 케어에 대한 아이디어가 유효했음. 다만 간호와 마을돌봄활동을 초기에 구분하기 어렵고 각자의 역할과 역량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함.
- (확장가능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특이사항 없음

○ 우수사례 선정기준 부합성

- **(지역성)** 사업의 중심에 있는 춘천사회혁신센터의 박정환 센터장은 리빙랩의 기준으로서 첫째, 평소의 전달체계와 다른 서비스를 구현해야 하며, 둘째, 현장에 기반해야 하고, 셋째, 지역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성과는 단순한 산출물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평소의 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가치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주도성이라는 리빙랩의 정체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나 이러한 주민주도성이 해결책의 도출과 같은 성과보다는 과정의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 보다 다양한 결과나 성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과의 개방성과 실패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전달체계를 창출함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음. 또한 전문가나 지원기관, 행정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이해당사자의 거버넌스의 구축이 혁신과 실현가능성을 제고시킨다고 제안하고 있음.
- **(노력도, 기술결합)** 약사명동 도시재생센터와 협력하여 운영한 약사명동 케어카페의 경우 조직화된 마을공동체가 기반이 되어, 케어카페 운영시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 중 마을에 더 필요한 수정보완 사항이 주민을 통해 개선하는 등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거두리의 경우 마을보다는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운영함으로써 중년층 및 먹거리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케어카페 활성화를 만들어가는 등 공동체 특성에 따른 케어카페가 운영됨. 향후 케어카페가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특성과 필요를 확인하면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지속·확산가능성 및 지역문제해결 기여도)** 케어카페 운영시 상호돌봄을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꺼내어보는 ‘폼’ 개념으로 보았으나,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정해지는 방식으로 관계가 형성됨. 주민들 스스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돌보는 행위에 대한 상호 이

해가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경험이 쌓이는 장으로서의 케어카페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돌봄 학교, 주민봉사자 등을 통해 실제 적용해볼 수 있는 상호돌봄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

⑥ 제주 본청 : 소도협력공간을 통한 리빙랩 기획과 관리과정의 프로세스

○ 관찰: 제주생활 탐구, 제주 가치 상승 프로젝트, 끝을 프로젝트

- (문제인식)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요 판로인 해외 수출 차단과 도내외 오프라인시장에서의 판매가 부진하고, 단순히 상품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비되지 않고 제주의 소중한 자원들이 버려지거나 헐값에 처리되고 있으며 위기에 처한 제주의 자원들의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하나 소상공인과 농민들은 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들일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부족함
- (정책목표) 제주지역 농수축산 원물을 조사하고 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시도

○ 정책 추진과정

- (추진동력 및 추진체계) 제주의 삶 속에서 마주쳤던 일상 속 문제를 발견하고, 다양한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활동 지원
- 대상 : 문제를 인식하고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개인, 소모임, 단체, 법인 등
- 선정방식 : 사업기간 내 정기적으로 공고 및 모집 · 선정(2021년 상·하반기 총 2회 진행 예정)
- (장애극복 특이사항) 기존에는 유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빠른 배송과 자원 관련 스토리를 중점적으로 여겼다면 소비자들은 가격과 배송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 외에도 농·수·축산물의 생산자를 만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지라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문제점을 수동적으로 추측해왔음

○ 정책 추진결과

- (추진성과)제주 구업답 자원을 발굴하고, 1차 농수축산물 종사자와 지역

내 다양한 가공업체들을 연계하여 새로운 기획상품 구성(개발) 및 판매하였으며 높은 스마트 스토어 및 인스타그램 반응률 및 도내 비슷한 판로 확보를 위한 플랫폼들이 개발되었고 이를 통해 해당 분야(1차 농산물 판로 개척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됨

- (성공요인)제주 농수축산 원물 자원관련 종사자 뿐만 아니라 도 내·외 소비자, 원물 자원 유관기관 종사자 까지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책에 담았으며 스마트 스토어, 인스타그램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매체를 사용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접근하기 용이하게 사업을 진행함

○ 실험 1: 제주생활실험,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투명한 제주형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

-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한 가설을 토대로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직접 확인해보는 활동 지원
- 대상 :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주민, 단체 등
- 선정방식 : 사업기간 내 공고 및 모집·선정(2021년 연 1회 진행 예정)
- (공동주택관리 문제인식)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운영 시스템이 부재하여 본팀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회계 부정과 관리·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주자 대표들과 위탁관리 업체 등이 뒤엉켜 갈등이 있음
- (정책목표) 자체적으로 개발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시스템 확산

○ 정책 추진과정

- (추진동력 및 추진체계) 자체적으로 개발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시스템의 효과적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근 공동주택의 자치회장단(13명)과 함께 공동주택 연합회를 창설하여 공동주택 구성원들 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음

- (장애극복 특이사항) 현안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경우 결과를 도출하기 수월했으나,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상반될 경우에는 약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였고 본 팀의 활동유형이 공동주택 구성원이 참여하는 활동유형이기에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참여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킴

○ 정책 추진결과

- (추진성과) 공동주택연합회(아파트 관리 회장 13명)를 창설하여 자체 개발한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관리시스템을 확산시켰으며, 투명하고 주민자치 기반의 관리·운영 매뉴얼 수립을 통해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진 운영시스템 지역 정착에 기여하였고 각 공동주택 구성원 간 민주적 합의 도출, 투명한 데이터 공개, 이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소통을 위해 공동주택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대안적 언론사(제주소통투데이) 창간하였음
- (성공요인) 민주적인 절차와 투명한 조직운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음

○ 실험 2: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투명한 제주형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

- (문제인식)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환경재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2020 제주쓰담 해안쓰레기 정화 및 브랜드 조사’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해안 쓰레기는 제주 삼다수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곳에서 플라스틱을 줄여보려고 해도 별도의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물을 마실 때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게 됨
- (정책목표) 제주지역의 물 특성을 고려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친환경 정수기를 개발해보고자 함

○ 정책 추진과정

- (추진동력 및 추진체계) 지하수 주변 잠재오염원, 하수처리시설, 질산성 질소 평균 농도, 토양 질소 비율 등 제주지역 물 특성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었으며 이후 정수기 모델개발을 위해서도 철저한 시장조사가 이뤄짐
- 추가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을 초빙한 물 워크

숍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포괄하고자 하였음

- (장애극복 특이사항) 걸러내어야 할 성분을 새롭게 발견(토양에 질소 비율이 높음)하게 되었으며 이를 거르기 위한 필터 소재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새로운 성분이 발견될 때마다 이를 거르기 위한 새로운 소재를 다시 찾고 새로운 실험을 진행함

○ 정책 추진결과

- (추진성과) 제주 물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정수기에서 걸러야 하는 성분을 2가지로 최종 확정하고, 이를 거를 수 있는 필터 재료 (2가지) 모두 찾아 실제로 걸러지는 효과를 수치로 확인하였음
- (성공요인)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는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음

○ 관찰과 실험: 제주생활공론

- (사업개요) 지역사회의 불편함을 제기하면 이것을 캠페인화하여 솔루션까지 확산/ 이주민 등장으로 인한 돌봄의 이슈 등장, 사회적 돌봄, 교통문제도 약자들의 활용으로 돌봄으로 수렴
- 운영프로세스
- 기술적 요인 및 인프라
- 거버넌스 구조와 혁신성: 공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통의 주체가 등장함, 공공기관과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등/ 문턱을 낮추고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 소모임에서 시작했는데 단체 및 법인, 협력, 사회적 기업으로 등장하는 단계로 연결
- 주민의 높은 환경 감수성/ 공동체에 대한 높은 감수성- 공동주택의 관리: 기존의 사회적 영역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정보공개시스템, 오픈소스)=> 제주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존재함), 제주이슈에 특화가 된 주민의 정체성
- 시민이 등장하기 위한 고민과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데 특히 언어사용이 중요, 플랫폼/리빙랩의 불편함 지양, 개인이 들어올 수 있는 방식 => 직원

이 고생해서 기획하는 형태로 가는 매니지먼트의 비중이 큰 것(결과가 나올때까지 서포트 하는 사안)

- 역할과 구체적인 미션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센터운영에 대한 강력한 권한과 역할에 대한 내용/ 선도사업과 혁신사업에 대해선 제한을 무제한으로 풀고 자율성 부여)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리빙랩 현황분석

□ 지역별로 리빙랩 수행의 편차가 존재함

-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격차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필연적으로 지역 내 시민사회, 주민, 지자체의 역량의 격차를 야기함
 - 수도권 및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의 리빙랩 사업예산은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음
 - 평균수행기간 또한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비수도권에서는 충분한 예산 공급과 안정적인 리빙랩 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유형별 특성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음
 - 지역 내 리빙랩 수행이 가능한 혁신역량에 대한 파악, 역량의 지역적 격차를 고려한 문제해결의 가능성 타진에서 출발해야함
 - 고령화로 인해 사회혁신의 참여자의 풀(pool)이 제한적인 농촌지역, 참여가능한 사람들은 많으나 잦은 인구이동으로 지역에 대한 문제인식이 희박한 도시지역 등과 같이 지역별로 사회혁신자원의 편차가 크지만 실제 지역특성별로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의제가 충분히 발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 내 민간혁신 역량을 수용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까지 연결 짓기 위해선 지자체의 혁신역량에 대한 파악과 관리전략마련이 시급

□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

- 상당수의 리빙랩이 마을 의제발굴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리빙랩의 단계중

가장 첫 번째 “탐색” 단계에 해당하며 의도하던 문제해결의 단계까지는 많은 절차적 이행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관계 자체가, 또는 리빙랩을 통해 해결된 지역문제, 삶의 질 개선이 성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빙랩을 통해 달성하는 성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리빙랩은 새로운 거버넌스(플랫폼)을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지역단위로 확장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마을의제 발굴의 최종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워짐
- “마을의제발굴”이 완전한 리빙랩 유형으로 인정받고 그로 인한 성과가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인 관계 자체를 성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협력관계로 인해 맺어진 결실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에 리빙랩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주민참여제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빙랩의 ‘실험성’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이를 판단하는 평가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지나치게 많은 이해관계자로 인한 관리부담의 발생

- 리빙랩 대상이 협업을 강조함으로 관리범위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함
- 주민의 정책참여를 모두 리빙랩으로 간주하는 경우, 리빙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음
 - 리빙랩의 무분별한 양산이 아닌 정확한 개념적 정의를 통하여 리빙랩만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부각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함
 - 지역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리빙랩을 전부 리빙랩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이슈로, 과학기술연구진이나 대학이 주도하는 지역 리빙랩과 주민참여제도와의 차별적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추진 방식의 한계) 공공부문 주도의 공모사업의 부수적으로 포함된 일회성 프로젝트의 속성과 분절적 전달체계에 따른 시너지 창출이 어려울 수 있음

- 본질적으로 리빙랩은 “참여”와 “기술”의 결합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있는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지속적인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협력체계의 유지가 필수적임
- 즉 리빙랩의 설계, 집행, 이후의 성과관리까지의 프로세스별로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가 명확해야하며 이러한 체계를 관리하고 운영할 역량이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 추진·운영중인 대부분의 리빙랩은 중앙주도, 지자체주도의 하향적 공모사업⁸⁾에 포함되어 있어 리빙랩을 통해 구축된 거버넌스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동력을 상실함
- 특히 지역 내 다양한 리빙랩 사업들이 수행되지만 분절적인 추진체제로 인해 사업의 통합적 추진이 어려워 민간자원의 시너지 창출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됨
- 현재의 공모사업적 특성을 지니는 리빙랩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거버넌스의 실현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리빙랩을 개발 및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수적임

○ (성과관리의 어려움) 범위의 포괄성과 추진체계의 분절성은 관리체계(성과지표, 평가체계)구축의 어려움을 초래함

-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리빙랩 사업이 원래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역성’을 가지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리빙랩은 과도하게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체계가 분절되어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업을 주민주도로 실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 혹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차이가 극심하다고 여겨지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모든 지역의 상황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의 구축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8) 지난 5-6년 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이 주축이 되어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시민섹터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리빙랩이 시도됨

2. 리빙랩 유형화 분석

- 관 주도의 자생력이 약한 사업들이 다수이거나 리빙랩 프로세스 중 일부만 형식적으로 갖춘 경우가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의 약 45%에 해당하는 리빙랩이 관찰, 실험, 협력, 공유 중 한가지 유형에만 해당하고 있음을 확인함
 - 한 가지 유형에 특화되어있는 리빙랩은 그 역할 및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특별성을 지닐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여지가 큼
 - 네 가지 프로세스 중 두 가지 기능 만을 수행하는 리빙랩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약 85% 가량 되며 전체 프로세스의 절반 정도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지속가능한 리빙랩으로 보기에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여지가 큼
 - 3가지 이상의 프로세스를 갖춘 리빙랩은 전체의 약 15%에 불과하였으며 모든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갖춘 리빙랩은 3군데(1.34%)에 불과했음
 - 특히 실험 및 공유 프로세스를 갖춘 리빙랩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 지역별로 리빙랩 유형의 분포가 달라짐
 - 리빙랩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17개 시도 간 유형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기본적으로는 관찰 및 관찰+실험의 형태를 가진 리빙랩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다수였지만 통일된 규칙없이 다양한 형태의 리빙랩 유형 분포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존재하였음
 - 관찰+실험 유형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경남)가 대부분이었으나 관찰 유형 리빙랩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광주,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등도 다수 존재하였으며 특별히 강원과 충남은 관찰+실험+협력 유형이 가장 많았음
- 소통협력공간이 조성된 지자체(춘천, 충남, 제주, 울산, 전북, 대전)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비교결과 제시

- 춘천이 거점도시가 되어 소통협력공간이 운영되는 강원과 충남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관찰+실험+협력 유형의 리빙랩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이는 소통협력공간이 운영됨으로 지자체의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협력이 원활해짐에 따라 다양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리빙랩이 생겨난 것으로 여겨짐
 - 그 외 지역(제주, 울산, 전북, 대전)은 복합유형의 비중이 더 큰 울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단독유형 리빙랩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소통협력공간이 조성되지 않은 지자체와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리빙랩 프로세스별로 각각의 성과관리의 주안점과 관련지표가 상이한데, 특히 리빙랩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4가지 유형의 복합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성과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됨

3. 리빙랩 성과분석

- 총 76개 지자체중 지역여건이 높지 않음에도 리빙랩이 수행된 지자체는 19곳
 - 리빙랩 시행지역의 25%에 해당하여 사업관리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원인: 공모사업 위주의 사업시행, 국비차입을 위한 지자체의 사업신청 되풀이
- 지역특성에 대한 이해 필요
 - 지방행정 영역의 특수성 고려 필요
 - 지역여건과 리빙랩 수행과의 불합치 수준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관리 노력 필요
- 개념의 특정을 위한 구체적 수범사례 발굴 필요
- 제도개선의 총괄 추진체계의 필요

제2절 정책적 제언

1. 리빙랩 유형별 맞춤형 정책지원

〈표 6-1〉 리빙랩 유형에 근거한 맞춤형 정책지원

리빙랩유형	성격	리빙랩성과	관리성격	정책지원방안	성과관리의 주안점: 행정관점	
단독	관찰	문제발굴	의제	개별영역의 목적 달성	발굴의제의 정책화 조례 마련	발굴된 문제의 성격과 발굴주체의보편성, 지속가능한문제발굴 통로 확보
	실험	실험	실험결과			실험과정의혁신성, 실패에도 계속되는 시도 실험결과외 확산
	협력	공간, 거버넌스	인프라			조성된 공간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채우며 연대의 틀을 만드는 것 공간운영주체의 자율성 보장
	공유	정책, 확산, 홍보	정책, 사업			결과의 활용과 제도화 유관정보아카이브의 구축과 정보축적
복합	관찰+실험	발굴된 문제의 실험적 적용	의제별성과	의제의 발굴 및 연계작업	마을3법의 연계통한중간 지원조직거버 넌스 구축	발굴의제별 성과외 확산과 자원연계
	관찰+협력	문제중심의 주민연대	의제의 발굴과 의제에 동의하는 자원연대			의제해결할 실험적 시도, 실험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관찰+ 공유	발굴의제의 공식화	의제의 정책화			발굴된 문제가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채택

리빙랩유형	성격	리빙랩성과	관리성격	정책지원방안	성과관리의 주안점: 행정관점
관찰+실험 +협력	실험결과의 개선을 위한 외부자원과의 연대와 협력체계	의제별성과의 확산이 가능한 연대, 네트워크			초기 구축된 문제해결자원의 제도적 전환
관찰+실험 +공유	가시적성과	의제별성과의 정책화			문제해결자원의 확장 문제해결방식의 일반화
관찰+실험 +협력+공유	완결적문제해결 프로세스	시스템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선순환 관리
실험+공유	실험결과의 즉각적인 정책도입	실험결과의 사업화, 정책화	성과축적	소통협력공간 운영자율성 및 평가지표 자율화	실험에 사용될 의제가 지역의 고유한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 외부자원연계 방식검토
실험+협력	실험결과와 해결자원간 연계	실험결과, 연대			실험에 사용될 의제가 지역의 고유한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
실험+협력 +공유	외부의 의제로 실험실시	실험결과, 연대, 사업화 및 정책화	공간운영의자 율성 부여		실험에 사용될 의제가 지역의 고유한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
협력+공유	자원의 결합을 위한 공간	네트워크, 인프라			공간의 지속적인 활용

2. 부처연계 방안

□ 읍면동 현장 중심의 대응력 확보 지원

○ 현장 대응 전문성 확보

- 지역사회 현안과 정보, 기술 및 행정과의 연계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 코로나19 대응 등 주민안전과 민방위 체계의 읍면동 행정 및 주민자치회 중심의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마을복지, 주민자치 지원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단위 지원센터 기능 강화
- 읍면동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인식 개선 및 주민력(주민역량) 강화 지원

□ 다수의 지역자원의 읍면동 중심의 통합

-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등 중간지원 조직과 소통협력공간의 신규지원 조직과의 연계확보하여 분절적으로 내려가는 다수의 사업의 통합연계 방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범부처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분절적 지역사업의 통합관리

- 사업예산의 통합성과 책임성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함
 - 특별교부세 사업과 예산사업의 중복 운용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가능성 존재(행안부 사업에서 마을단위사업의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특교사업의 검토과정 부재에 있음)
 - 주민자치 공공서비스와 중복, 사회혁신가와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중복, 또는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근본적으로는 행안부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사회혁신 추진계획마련이 필요함
 - 과학기술분야에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이 수립되어 운영 중이며, 2013년

- 1차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을 시작으로 2차 계획이 수립 완료됨⁹⁾
- 그러나 최상위 계획과의 연계부족으로 인해 행안부 내 사회혁신 사업설계 시 수행사업 간 기능연계 등은 고려되지 못함
 - 지역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에 대한 예산지출, 이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담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 부재
- 기본계획에 근거한 지역혁신사업의 집적화 작업이 필요함
- 특징: 부처 간 조율, 난이도 高, 조정비용 高, 별도추진체계 구축 有
 - 타부처 혁신사업 기능총괄 조정(현재 정비 분야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구조적 접근)을 파악할 권한과 별도의 조직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에 지역수준의 각종 사업 총 현황 분석 통해 지역단위의 혁신전달 프로세스 총괄기능 부여함
- 각 사업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리빙랩 활동과 보완개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필요
 - 팹랩 등 메이커 운동, 미래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산업부의 기술사업화 및 실증사업 등 관련 사업 및 활동과의 연계
 - 리빙랩의 유형·범위·위치에 따른 세부 운영 프로그램 설계 및 기술개발/실증 과정에서의 사용자 참여 역할과 범위 설계
 - 근거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마을공동체활성화 법안,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법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3. 지역혁신사업에서의 리빙랩 확장방안

□ 명확한 현장과 정책환경에 대한 현실인식

- 현 리빙랩 사업은 ①혁신의 지원자로서의 너그럽고 신뢰할 만한 정부와 ②

9)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의 사업계획은 1차 계획에서 지적되었던 수행기능 및 전담조직이 산발적으로 존재, 관리역량 부재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음

공동체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이해관계가 동질적인 선한 시민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각 주체의 역할을 설정, 사업방향을 설계하기 때문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표 6-2〉 정책행위자에 대한 잘못된 가정

	이상	구체적 형태	간과한 점
정부	정부는 예산사업의 실패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장기적 시계(time span)를 유지, 높은 정책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의 틀 내에서 공간조성, 주체간 네트워킹 조성, 홍보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무름	개별정부의 플랫폼구축 후 실시간 정보교류, 성과관리, 행태에 대한 추적, 타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고민 부재
시민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동기와 무관하게 공동체의 관점에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선한 시민	학습, 자발적 문제발견 권한의 전면 부여	혁신주체, 및 주민 대해 어떻게 지원해야하는지에 대한 모델링 부재

-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역할 설정은 중앙-지방-사업추진업체-주민 간 이질성과 다이내믹스 고려가 부족한 획일적 관리방식으로 귀결,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결과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지자체 및 민간의 혁신역량 수준에 대한 정의, 이에 대한 지역별 역량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간 자체적으로 추진되어 온 다양한 지역개발, 마을만들기사업(지역수준)과 지역균형개발과 일자리 창출(국가수준) 등의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회혁신사업을 배치하는 것이 요구됨

□ 주민의 정의에 따른 사업 배치의 다변화

- 현행 사업에 다양한 주민의 개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필요
- 핵심키워드의설정: “연결을 통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면 누구와 누구의 연결이며, 국내 타 사업과의 연계성확보는 어떻게 가야하는지에 대한 로드맵 필요

〈표 6-3〉 지역혁신사업에서의 리빙랩 확장에 관련된 사업 로드맵 제안

전략	주민자치영역	지역혁신영역	통합관리 방향
공간의 연결	기존 자치의 공간	결합을 위해 조성된 공간 (은오프활동공간, 플랫폼)	사업조성공간에 주민접근성 강화, 주민자치회 공간 연결 별도의 공간조성사업 지양
의제의 연결	주민자치의제 내실화 지역범위의 확대	주민생활공간(더 작은 마을단위의)의제	리빙랩의제의파악
행정(제도)의 연결	불충분한 참여제도의 외연확장 부처와 조달제도의 한계 극복	개별사업단위의 제도적 연결 사업종료후 자생생태계 마련	지역사회종합플랫폼의 적용범위를 의제발굴->관라->조달행정-> 성과체계까지 통합

주민개념	일반주민	자발적 사업참여주민(리빙랩)	이해관계자/ 사업참여주민(기존)	선출직(임명직) 주민대표
주민권한	정책 선호표시 지역문제제기	지역문제(포괄성)에 대한 해결 시도(약한 응집력)	지역문제(지역성)에 대한 해결 시도(강한 응집력)	의제설정(아직미약)과 집행의 실제주체
주민의 기대와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리한 서비스 제공 단순고객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해결과정에 기여 정서적 참여효능 실제적 변화기대 문제해결 시도의 지속적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 요구 사항의 반영 실제적 변화 사업유지 더 공식적인 정책과정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적 변화 실질적 결정권한 부여 행정과의 더 강한 연계고리 확보
주민역할	일반민원 제기 국가차원(국민청원) 민원제기	자문의견제시 파트너십의 시작	고충민원 직접접촉(행정) 사업수행자	주민의 대표자 사업수행의 결정자 사업수행자 직접접촉(행정, 정치)
부내 담당부서	민원과 혁신관련과, 제도과	지역혁신국 과	지역혁신국 과 제도과	주공단 제도과
현행 제안아젠다	디지털기반 주민직접참여 서비스 개선 노인통합돌봄 전달체계 마련 공공서비스 제공 마을조직 활성화	주민활동 공간 확대 소통·협력 공간 2.0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주민·지자체 주도 지역사회활성화 계획 읍면동 기능 개편	주민세 개인분을 활용한 마을기금 조성, 협동조합 업무 일원화	주민자치회 확산, 주민자치회 공적기능 강화

- “이중순환학습과 시스템적 사고” 2014.04. 동아비즈니스 리뷰.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180126 조건(보도) 지자체 주도 자율적 혁신생태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국민을 위한 R&D…과학으로 생활문제 해결” 정책 브리핑 국회입법조사처(2014) 「시민참여적 지역사회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본 국회입법과 정상 시사점 연구」.
- 김도영, 정혜진. (2018). 지역문제 해결모델로서의 일상생활실험실과 마을만들기 사례. 수원시정연구원.
- 김성균·김찬수. (2016). ‘참여의 사다리’로 본 민관협치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 사례를 중심으로. 「NGO연구」, 11(2): 153-187
- 성지은 (2016). 「기술개발사업 「시민연구멘토단」 구성·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 성지은·박인용. (2016). 시스템 전환 실험의 장으로서 리빙랩: 사례분석과 시사점. 기술혁신학회지, 19(1), 1-28.
- 성지은 외 (2016).「멘토링을 통해 본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STEPI Insight」, 19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송위진·정서화 (2016),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현황과 과제」, 「STEPI Insight」, 18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옥진아·정효진 (2019). 도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경기도 리빙랩. 이슈&진단, 1-25.
- 이재원, 최현선, 박정운, 유수동, 박세연. (2019). 주민참여리빙랩 실태조사를 통한 확산·공유 방안연구. 한국정책학회.
- 이재현 (2020). 4차 산업혁명 기술진화와 주민자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의 모색.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4(4), 6-30.
- 주경일. (2020). 국내 리빙랩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리빙랩 운영의 시사점 도출. 한

국자치행정학보, 34(3), 293-312.

희망제작소 (2018).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2018 국민해결: 최종보고서.

〈홈페이지〉

지역별고용조사. 국가통계포털. (2021).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3/index.board (검색일: 2021. 3.19.)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검색일: 2021. 3. 19.)

평생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평생교육법> (검색일: 2021. 5. 25.)